

2011 고유과제 정책제안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발 간 사

이 책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2011년도에 발간한 고유연구과제의 연구결과와 이에 따른 정책제안에 초점을 둔 정책제안보고서입니다. 모든 고유연구과제들은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정책(evidence-based policy)연구가 될 수 있도록 통합적·체계적인 데이터 생산 및 검증절차를 도입하여 최대한 조사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정책고객의 욕구에 부합할 수 있도록 연구과제 발굴 단계부터 정책고객 참여를 확대하여 충분한 준비와 토론을 거쳤으며, 연구계획서발표회와 중간보고서 발표회, 최종 보고서 정책협의회 및 관계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주요 정책고객이나 정부기관의 요구에 부응할 뿐 아니라 아동·청소년 관련 현장의 실태와 요구를 반영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정책제안보고서는 이러한 올해의 연구성과와 정책제안을 홍보하고, 또 공유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기회로서 발간하게 되었으며, 본 정책제안보고서에 수록된 연구들은 활동·역량, 보호·복지, 통계·기초 등의 주제로 분류되어 아동·청소년정책이 각 분야에 종사하거나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본원에서 수행한 고유연구과제의 연구성과와 정책제안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기획하였습니다.

본 정책제안보고서를 보신 후, 궁금한 내용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라며, 우리 연구원이 더 좋은 연구를 통하여 청소년정책의 발전에 기여하고 연구자와 학계의 필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www.nypi.re.kr) 좌측하단에 ‘연구과제 제안’을 받는 공개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으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연구가 있으시면 적극 제안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연구보고서 전문은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 ‘전자도서관’에서 볼 수 있으며, 정부간행물판매센터(02-734-6818)에서 구입하실 수도 있습니다. 연구내용에 관한 문의는 직접 해당 연구진에게 해주시고, 보고서 구입 및 기타 문의사항은 정보학술센터(02-2188-8844, sooji@nypi.re.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구원 임직원은 앞으로도 성실한 연구와 활발한 국내·외 교류협력을 통해 청소년계 여러분의 연구와 활동에 도움이 되고 청소년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연구원을 한결같이 아껴주시는 모든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 3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 이 재 연

목 차

활동·역량 분야

- 청소년활동시설 평가모형 개발 연구 II : 청소년수련관을 중심으로 • 김 형 주 3
-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형 개발 연구 I • 이 기 봉 8
- 청소년수련시설 인증방안 연구: 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집을 중심으로 • 맹 영 임 13

보호·복지 분야

- 지역사회중심 청소년공부방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 • 이 유 진 21
- 가족유형에 따른 아동·청소년 생활실태 분석 및 대책연구 • 성 윤 숙 33
-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종단연구 II • 양 계 민 38
-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종단조사 II • 황 진 구 42
-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 가정 아동 지원방안 II-1 • 김 경 준 47
-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 가정 아동 지원방안 II-2 • 김 경 준 53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I • 임 희 진 57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I • 최 인 재 63

통계·기초 분야

-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 II • 이 경 상 73
- 한국 아동·청소년 종합통계체계 구축 연구 • 김 기 현 77
- 청소년 국제교류정책 현황 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 윤 철 경 84
-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 I • 최 창 욱 92
-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 II • 안 선 영 96
- 아동·청소년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방안 연구 I • 장 근 영 107

부 록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최근 5년간 발간물 목록 117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직 명단 및 연락처 144

활동·역량 분야



청소년활동시설 평가모형 개발 연구 II: 청소년수련관을 중심으로 • 김형주 | 3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형 개발 연구 I • 이기봉 | 8

청소년수련시설 인증방안 연구: 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집을 중심으로 • 맹영임 | 13

청소년활동시설 평가모형 개발 연구 II : 청소년수련관을 중심으로

연구 요약

- ❖ 책임연구원 : 김형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 ISBN : 978-89-7816-945-5(93330), 자체 보고서 번호 : 11-R01
- ❖ 발행처(연도)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1)

❖ 연구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수련관의 운영 효율성과 효과성을 촉진하기 위한 평가모형을 개발하여 평가를 통한 최적의 질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임.
- 이는 궁극적으로 청소년수련관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주체뿐만 아니라 정책고객인 청소년들의 이용률을 극대화하여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함임.

❖ 주요결과

1) 청소년수련관 평가에 관한 이론적 고찰

- 평가이론적 기초를 다지기 위해 기관평가의 개념과 여러 평가모형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나라 청소년수련관의 현황과 지금까지 부각된 문제점들에 대해 고찰함.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평가사업의 이력과 발생된 문제점을 분석하고, 평가체제의 변천과 그 시사점을 살펴봄. 해외 청소년시설의 유관 평가사례를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살펴봄. 다년연구로써 1차년도인 2010년 청소년수련관 평가모형 연구결과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2011년도 청소년수련관 평가모형 연구에 주는 시사점을 분석함.

2) 청소년수련관 평가모형 설계

- 본 연구에서 개발한 평가모형의 기본 틀은 Stufflebeam의 CIPP모형을 이론적 기초로 하여 청소년수련관의 설립배경과 취지를 감안하여 IPP모형으로 수정함. 평가모형은 전체 3단계 (Input Evaluation, Process Evaluation, Product Evaluation)와 특화사업 평가로 구성되어 총 4개 대영역과 8개 중영역, 그리고 31개 평가지표로 초기 구안됨.

3) 청소년수련관 평가모형 타당성 및 가중치 분석결과

- 구안된 청소년수련관 평가모형 타당성 조사와 AHP분석을 통한 청소년수련관 평가가중치를 도출하였는데, 가중치가 가장 높은 평가영역은 과정평가였고, 뒤를 이어 산출평가, 투입평가, 특화사업평가로 분석됨. 평가 중영역 및 세부 평가지표에 대해서도 평가가중치를 분석하였음. 또한 본 조사를 통해 평가의 적절성 및 평가 가능성에 관한 타당성도 검증됨.

4) 청소년수련관 평가모형 시범적용의 평가결과

- 시범적용을 위해 전국의 청소년수련관 중 총 8개의 시설에서 시범평가를 실시하였고, 그 적용결과를 통해 실제 평가에서의 적절성과 문제점을 분석함.

5) 최종 평가영역 및 평가지표

- 평가모형 타당성 조사와 시범적용상의 적절성 분석 등의 과정을 통해 본 연구의 평가모형은 4개 평가영역, 8개 중영역, 33개 평가지표로 최종 개발됨.

정책제안 1

평가 정보를 통한 청소년수련관의 실질적인 개선 방향 제시 및 유도

❖ 제안 내용

- 첫째, 해당 청소년수련관의 평가결과에 따른 개선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어야 함. 평가지표의 영역별로 평가지표가 지향하는 바람직한 모습과 현재의 모습과의 격차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함.
- 둘째, 평가받은 전체 청소년수련관의 특성을 평가영역별로 제공함. 즉 평가가 지향하고 있는

바람직한 청소년수련관의 모습을 평가영역별로 제시하고 실제 평가를 통해서 분석한 결과 또한 제시하여 이의 개선방안을 함께 제공함. 이러한 자료를 통해서 해당 청소년수련관이 자기 기관의 특성을 다른 기관들과 비교하면서 새로운 발전방안을 모색하는데 참조할 수 있음.

- 셋째, 평가결과에 따른 개선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해당기관에 개선권고사항으로 통보함. 다만 평가결과에 따라서 청소년수련관 수준에서 개선할 수 있는 사항과 설치운영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개입하여야 개선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개별 청소년수련관 수준에서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권고사항으로 작성하여 평가기관에서 통보함.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개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중앙정부가 개선지침을 내리도록 제안함.

❖ 기대 효과

- 평가지표가 평가를 받는 청소년수련관의 발전지표 역할을 하여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해 줌.
- 상대적, 절대적 평가 정보를 통한 청소년수련관의 현 실태를 점검해 보고 자율적인 발전을 도모하게 함.

정책제안 2

청소년수련관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로 동기 부여

❖ 제안 내용

- 첫째, 청소년수련관의 종사자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제공되어야 함. 우수 청소년수련관으로 평가받은 청소년수련관에는 기관장을 비롯한 종사자들 개인에 대한 포상금, 해외 연수, 상여금 지급 등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함.
- 둘째,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기관 인센티브가 제공되어야 함. 기관에 대한 포상과 더불어 시설개선 비용, 장비구입비용 등과 같은 재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또한 우수 청소년수련관이라는 명패를 포함하여 시설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상징물을 수여하여 해당 시설의 자긍심을 높여줄 필요가 있음.
- 셋째,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에 대한 포상제가 도입되어야 함. 청소년수련관은 시설 설치 및 운영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정도에 따라 운영수준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따라서

적극적으로 청소년수련관 운영을 지원한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공무원에 대한 포상제가 병행되어야 함. 이를 통해서 지자체 담당공무원들의 관심과 노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함.

❖ 기대 효과

- 평가결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통해 기관 발전을 위한 종사자들의 동기유발을 촉진할 수 있음
- 평가결과의 혜택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공유함으로써 기관 운영의 질 제고에 협력적 풍토를 구축할 수 있음.

정책제안 3

청소년수련관과 관련된 현안사항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분석

❖ 제안 내용

- 청소년수련관 운영 실태분석을 위해서는 평가활동을 진행할 때에 평가위원뿐만 아니라 조사활동을 담당하는 인력이 추가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함. 조사인력이 평가과정에 함께 참여하여 평가자료와 정황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심층적인 청소년수련관 운영실태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음.

❖ 기대 효과

- 평가활동을 통해 수집된 현안사항들을 통해 청소년수련관 관련 정책과 운영지침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음.
- 평가결과와 함께 현안사항의 분석결과가 현장 친화적인 자료로 기능하여 현실성 있는 정책의 개발과 시행에 기여할 수 있음.

정책제안 4

청소년수련관 평가의 법적 근거 마련

❖ 제안 내용

-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청소년수련관 평가(평가의 실시, 평가결과에 따른 사후조치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거나 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항에 삽입하여 평가의 정당성을 확보하여야 함.

이를 통해 평가 행위에 대한 법적 권한을 부여하고 청소년수련관이 공공시설로서 필수적으로 평가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는 의무가 있다는 것을 명기하는 것이 중요함. 또한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평가가 서로 비슷하여 일선 수련관에서 평가를 준비하는데 이중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소비하는 경우가 있는데, 두 평가기관에서 공유할 수 있는 평가 영역이나 내용은 한 기관에서 실시하는 평가로 대치하거나 인정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 기대 효과

- 청소년수련관 평가에 관한 법제도 정비를 통해 평가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음.
- 평가의 법적 근거를 통해 평가수행과 평가결과 활용에 대한 시비를 없애고 평가의 순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음.

정책제안 5

청소년수련관 평가를 위한 전담기관을 선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 확보

❖ 제안 내용

- 평가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과 이를 담당하는 인력을 지정하고 전문성과 평가의 연속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또한 평가를 실시할 인력풀을 구성해 주기적으로 평가에 대한 교육 및 세미나를 통한 정보의 교류, 평가일정에 대한 조기 알림 등을 통해 경험 있는 평가위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평가자 간의 기준 차이로 인한 평가결과의 편차를 줄일 수 있는 제도적 노력이 필요함.

❖ 기대 효과

- 평가 전담기관의 선정은 평가기관과 평가수행자, 평가위원들이 평가수행상의 다양한 문제들을 일관적이고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함.
- 평가인력과 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통해 다년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평가의 전문성 향상과 평가결과의 일관성을 보장할 수 있음.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형 개발 연구 I

연구 요약

- ❖ 책임연구원 : 이기봉(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 ISBN : 978-89-7816-947-9(93330), 자체 보고서 번호 : 11-R02
- ❖ 발행처(연도)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1)

❖ 연구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사회에서의 창의적 체험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지역사회운영모형을 개발하는 데 있음.
- 지역사회자원 연계를 통해 창의적 체험활동을 활성화시키는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 주요결과

1) 청소년 체험활동 운영 외국사례조사 결과

- 중학교 2학년생을 대상으로 일주일간의 직업체험활동을 운영하는 일본 효고현의 「트라이아르 워크」는 지역사회자원을 연계하여 학생들의 요구에 맞춰 운영함으로써 교육적 효과를 높이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청소년 체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사회네트워크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임.
- 중학교 졸업 후 고등학교 2년 과정에 들어가기 전 1년 동안 스스로 요구에 맞춰 다양한 체험활동을 경험하게 하는 아일랜드의 「전환학년제」는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에 맞추기 위해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장기체험활동 프로그램으로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에 시사하는 바가 큰 사례임.
- 두 외국사례는 성공적인 청소년 체험활동의 운영을 위해서 청소년들의 요구에 맞춰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지역사회가 잘 연계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며, 동시에 청소년의 체험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지역사회연계의 촉매역할을 한다는 점과 청소년 체험활동 지원사업의 성과가 단기간에 나타나지 않고 점진적으로 나타나며, 따라서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청소년 체험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함.

2)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실태 및 인식 조사 결과

- 전국의 중·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중·고등학생들이 가장 많이 실시하는 창의적 체험활동 유형은 자율활동(49.6%)인 반면, 가장 하고 싶은 활동은 동아리활동(38.6%)과 진로활동(28.7%)이며, 동아리활동의 참여도(M=3.0)와 만족도(M=2.8)가 중간(M=2.5)보다 높은 수준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봉사활동의 참여도(M=2.6)와 봉사활동 및 진로활동의 만족도(M=2.6)는 중간 정도 수준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중·고등학교 창의적 체험활동 담당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교사들은 학교의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을 위한 내부자원 보유 정도(M=2.0~2.1)와 외부자원 활용도(M=2.2~2.3)가 낮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학교의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한 학생/학부모/교사의 요구 반영 정도에 대해 그다지 높지 않게(M=2.6) 인식하였고, CRM 활용 정도에 대해서는 낮게 인식하는 편임(M=2.3).
- 또한 창의적 체험활동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교사들이 더 많았지만(58.6%), 많은 교사들이 학교 내 자원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음(83.5%). 또한 창의적 체험활동과 관련한 연수에 대한 필요성(M=2.9)을 높게 인식하고 있으며, 창의적 체험활동이 학생들과 친밀한 관계를 갖게 해 주는데 도움을 주는 것(M=2.7)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업무만족도 증진(M=2.1)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은 낮게 나타났음(M=2.1).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학생과 교사 모두 창의적 체험활동이 인성계발과 다양한 측면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고등학생들에게는 동아리활동과 진로활동의 기회를 확대시키고, 봉사활동과 진로활동의 만족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또한 교사들에 대해서는 창의적 체험활동 연수를 확대하고, 교사들이 업무부담을 갖지 않도록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연계시켜야 함.

3) 시범사업운영 결과

- 창의적 체험활동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역사회가 어떻게 연계되어야 하는지 운영모형을 개발하고자 대도시 지역 두 곳을 선정하고, 청소년기관을 코디네이터 기관으로 지정하여 지역내 시범학교의 창의적 체험활동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운영한 결과 지역사회자원을 연계한

모형이 창의적 체험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결론에 다다름.

- 코디네이터 기관으로 선정된 청소년기관은 시범사업 운영을 통하여 청소년 프로그램 제공자에서 지역사회 코디네이터로서의 전환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학교와의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청소년 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한 보다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음.
- 창의적 체험활동 시범사업에 참여한 학교들은 시범사업 운영을 통하여 지역사회자원연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코디네이터 기관이 차년도 학교연간계획수립에 참여하기를 기대하는 등 변화를 보였고, 다양한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을 통해 청소년 및 학부모의 학교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었음.
- 본 연구에서 추진한 시범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정책적인 의미가 부각되어 2012년 시범사업 확장을 위한 예산이 여성가족부 신규사업예산으로 확보되었고, 시범사업의 확장을 통해 지역사회 청소년 체험활동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임.

정책제안 1

지역사회 청소년 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한 마스터플랜의 수립

❖ 제안 내용

- 지금까지 운영되어 오던 청소년활동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며, 타부처 사업까지 포괄하는 지역사회 청소년체험활동 활성화 마스터 플랜의 수립이 필요함.

❖ 기대 효과

- 청소년 체험활동정책의 방향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청소년활동사업이 전반적으로 활성화될 것이며, 부족한 청소년활동정책의 예산상황을 해소할 수 있음.

정책제안 2

지역사회 코디네이터 기관 및 코디네이터 육성

❖ 제안 내용

- 창의적 체험활동과 지역사회 청소년 체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는

코디네이터의 역할이 중요하며, 코디네이터 양성 및 역량개발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히 요구됨.

❖ 기대 효과

- 코디네이터 육성을 통하여 청소년기관이 지역사회에서 보다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음.

정책제안 3

지역사회 코디네이터 기관에 대한 컨트롤 타워 및 컨설팅 그룹의 필요성

❖ 제안 내용

- 지역사회에서의 자원연계를 주 업무로 하는 코디네이터 기관의 역량이 아직은 미흡함으로 앞으로 확산될 코디네이터 기관의 업무를 조정하고, 코디네이터(기관)에 대해 컨설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함.

❖ 기대 효과

- 중앙의 코디네이터 기능과 지역 코디네이터 기관의 역량강화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중요한 역할로서 청소년활동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임.

정책제안 4

다양한 형태의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방식 개발

❖ 제안 내용

- 청소년들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창의적 체험활동이 다양화되어야 하며,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이 이른바 ‘트라이 앵글 모형’처럼 연계되어 운영되어야 하고, 농산어촌을 위한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형이나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운영모형 등이 개발되어야 함.

❖ 기대 효과

- 연계형 체험활동은 청소년들의 체험활동에 대한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형태의 활동임. 또한 소외계층, 소외지역 대상 운영모형 개발을 통해 계층 또는 지역 간 격차를 줄일 수 있음.

정책제안 5

지역사회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한 예산의 확보

❖ 제안 내용

- 지역사회에서의 창의적 체험활동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루트, 즉, 중앙부처 예산, 지자체 예산, 교육청 예산, 교육기부, 자부담 등의 가능성이 열릴 수 있도록 해야 함.

❖ 기대 효과

- 예산확보는 지역사회연계가 활성화될 때까지 사업이 지속성을 유지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임. 다양한 예산확보방안은 예산확보의 가능성을 높여줌.

정책제안 6

교사와 코디네이터의 소진을 막을 대안 마련

❖ 제안 내용

- 창의적 체험활동이 자칫 교사와 코디네이터의 소진을 불러오지 않도록 예산의 확보와 함께 코디네이터의 팀제 운영이 필요함.

❖ 기대 효과

- 예산의 확보는 코디네이터 인력충원과 인력양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며, 코디네이터 인력양성이 충분히 이루어질 때까지는 팀제 운영이 코디네이팅 사업을 안정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임.

청소년수련시설 인증방안 연구: 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집을 중심으로

연구 요약

- ❖ 책임연구원 : 맹영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 ISBN : 978-89-7816-948-6(93330), 자체 보고서 번호 : 11-R03
- ❖ 발행처(연도)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1)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중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집을 중심으로 정책적 차원에서
의 품질관리와 대외적인 신뢰성 확보를 위한 기관인증제 도입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함.

❖ 주요결과

1)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의 필요성 및 목적에 대한 인식

- 필요성 및 목적: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청소년관련업무 담당공무원
(78.3%)이 청소년지도자(75.0%)보다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
남.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의 주된 목적은 '청소년수련시설의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통한
질적 수준 향상'(공무원 51.8%, 청소년지도자 47.2%)이 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음.

2)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 시 인증체계에 대한 인식

- 인증체계 : 인증주체는 '정부'(청소년지도자 55.0%, 공무원 42.2%)가 되어야 한다는 응답비율
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인증대상은 '모든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지도자 60.3%, 공무원
52.4%)이 되어야 한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인증범위에 대한 인식은 청소년지
도자와 청소년관련업무 담당공무원, 청소년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청소년지도자는
'부문인증에서 종합인증으로 점진적 확대'(40.2%), 청소년관련업무 담당공무원은 '모든 영역에
대한 종합인증'(47.0%), 청소년은 '영역별 부문인증'(38.4%)이 가장 응답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인증방식에 대한 인식도 청소년지도자와 청소년관련업무 담당공무원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청소년지도자는 ‘포괄적 인증방식’(50.0%), 청소년관련업무 담당공무원은 ‘등급부여 인증방식’(62.7%)이 가장 응답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인증유효기간에 대한 인식은 청소년지도자(59.0%)와 청소년관련업무 담당공무원(57.2%) 모두 ‘3년’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인증재원 부담은 의무인증 시에는 ‘인증주체에서 모두 부담’(청소년지도자 76.7%, 공무원 62.7%)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은 반면, 자율인증 시에는 ‘인증주체에서 모두 부담’(청소년지도자 44.9%, 공무원 32.5%)해야 한다는 응답비율과 ‘인증주체와 시설 공동부담’(청소년지도자 40.0%, 공무원 36.7%)해야 한다는 응답비율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남. 모니터링 필요성 및 주기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청소년지도자(89.0%)와 청소년관련업무 담당공무원(90.4%)이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니터링 주기는 ‘연1회’(공무원 60.4%, 청소년지도자 51.4%)가 되어야 한다는 응답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정부지원이 가장 필요한 부분은 ‘활동지도환경개선비’(청소년지도자 62.9%, 공무원 56.0%), ‘시설개·보수비’(청소년지도자 32.9%, 공무원 38.6%)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3)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 시 인증절차 및 기준에 대한 인식

- 인증절차기준 : 대다수의 청소년지도자(91.1%)와 청소년관련업무 담당공무원(92.8%)은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 시 인증신청→자체점검 및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개선관리→현장인증심사→인증심의→인증서발급→사후관리 단계로 이루어진 인증절차(안)에 대해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 시 인증기준을 공통기준과 개별기준으로 구분한 것에 대한 적절성(5점 척도)에 대해 ‘공통기준’(청소년지도자 3.85, 공무원 3.78)과 ‘개별기준’(청소년지도자 4.05, 공무원 3.92) 모두에서 청소년지도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4)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 시 고려사항 및 기대효과에 대한 인식

- 인증제 도입 시 고려사항 및 기대효과 : 청소년지도자(72.4%)보다 청소년관련업무 담당공무원(74.1%)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인증신청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남. 인증기대효과에 대해 청소년지도자는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신뢰도 증가’(43.0%), ‘청소년활동서비스의 질적 수준향상’(32.9%), ‘인증과정에서의 관리운영체제 개선’(18.4%) 순으로, 청소년관련업무 담당공무원은 ‘청소년활동서비스의 질적 수준향상’(43.4%), ‘청소년수련시설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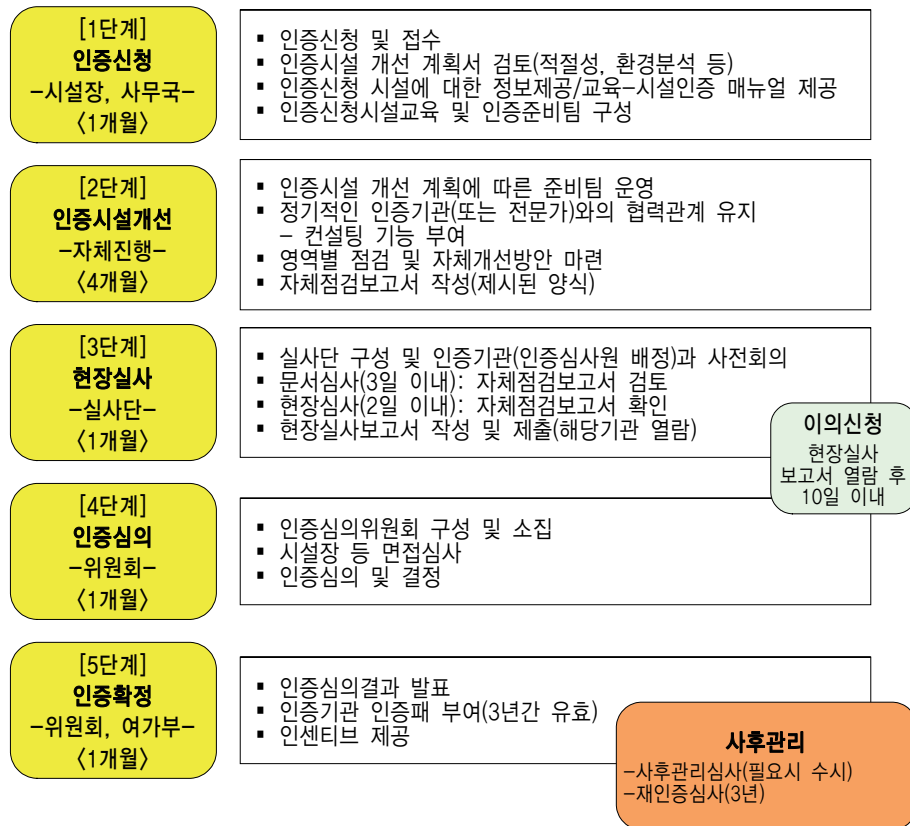
대한 신뢰도 증가'(31.9%), '인증과정에서의 관리운영체제 개선'(21.7%)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고려사항에 대해 청소년지도자는 '시설의 인증제 참여를 위한 지원체제'(4.34), '합리적인 인증시스템 구축'·'적절한 인증기준(지표) 설정 및 적용'(4.33) '인증 후의 사후관리체제'(4.31), '인증평가 전문가 확보'(4.29) 순으로, 청소년관련업무 담당공무원은 '합리적인 인증시스템 구축'(4.19), '적절한 인증기준(지표) 설정 및 적용'(4.16) '인증 후의 사후관리체제'·'인증평가 전문가 확보'(4.11), '인증제 목적의 타당성 확보'(3.98) 순으로 적절성이 높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인증활용방안에 대해 청소년지도자는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자들의 선택을 위한 정보자료로 활용'(57.6%),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자료로 활용'(30.7%), '운영단체 재위탁 시 평가자료로 활용'(9.5%) 순으로, 청소년관련업무 담당공무원은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자들의 선택을 위한 정보자료로 활용'(49.4%), '운영단체 재위탁 시 평가자료로 활용'(28.3%),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자료로 활용'(20.5%)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인증시설지원방안에 대해 청소년지도자는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비 지원'(78.4%), '공모사업 신청 등에서 가산점 부여'(12.2%), '운영단체 재위탁 시 가산점 부여'(6.1%) 순으로, 청소년관련업무 담당공무원은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비 지원'(54.2%), '운영단체 재위탁 시 가산점 부여'(24.7%), '공모사업 신청 등에서 가산점 부여'(18.7%)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정책제안 1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

❖ 제안 내용

- 청소년시설의 책임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함께 청소년활동서비스 질의 향상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면서 과거 운영 실적이 아니라 향후 운영에 대한 품질 보장이 가능한 운영 시스템 평가인 인증평가모형의 도입도 고려할 필요 있음.
-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 시 인증유형은 기관인증, 인증주체는 정부, 인증대상은 모든 청소년수련시설, 인증운영기관은 인증전담기구, 인증범위는 종합인증, 인증방식은 포괄적 인증방식, 인증유효기간은 3년, 인증재원은 인증주체와 시설 공동부담, 인증기준은 공통기준과 개별기준으로 구분적용될 수 있으며, 인증절차는 다음과 같이 구성될 수 있음.



【청소년수련시설 인증절차】

❖ 기대 효과

- 청소년수련시설의 대외적인 신뢰성 확보와 지속적인 품질관리와 개선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통해 일정기간 그 수준을 인정해 주는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가 도입됨으로써 정책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대안이 될 수 있음.

정책제안 2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을 위한 선행과제

❖ 제안 내용

-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수련시설이 얼마나 공공재적 성격을 갖춘

기관인가에 대한 스스로의 자기점검과 정책적 보완 및 지원이 반드시 뒤따라야 함.

-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을 위한 선행과제로는 첫째, 인증제 도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둘째, 법적 근거 마련 및 예산 확보 선행, 셋째, 인증제 운영체계 마련, 넷째, 신뢰할 수 있는 인증기준(지표) 마련, 다섯째, 합리적인 인증절차(과정) 마련, 여섯째, 인증기관(인증전담기구) 구성방안 마련, 일곱째, 인증 사후관리체계 마련, 여덟째, 시범기간 운영 및 지속적 홍보 필요, 아홉째, 청소년수련시설평가 및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와의 통합(연계)방안 모색 등이 필요함.

❖ 기대 효과

-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에 앞서 정책적 보완 및 지원 관련 선행과제를 수행함으로써 제도 도입의 효과성을 높이고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음.

보호·복지 분야



- 지역사회중심 청소년공부방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 · 이유진 | 21
- 가족유형에 따른 아동·청소년 생활실태 분석 및 대책연구 · 성운숙, 김영한 | 33
-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종단연구 II · 양계민 | 38
-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종단조사 II · 황진구 | 42
-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 가정 아동 지원방안 II-1 · 김경준 | 47
-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 가정 아동 지원방안 II-2 · 김경준 | 53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I · 임희진 | 57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I · 최인재 | 63

지역사회중심 청소년공부방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

연구 요약

- ❖ 책임연구원 : 이유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 ISBN : 978-89-7816-950-9(93330), 자체 보고서 번호 : 11-R04
- ❖ 발행처(연도)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1)

❖ 연구목적

- 1980년대 중반부터 저소득지역을 중심으로 설립된 청소년공부방은 이후 맞벌이 부부의 증가와 대가족체제에서 핵가족체제로의 변화에 의해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음. 1984년에 하월곡동의 ‘산돌공부방’과 ‘밤골아이네공부방’이 서울지역에서 처음으로 공부방 활동을 시작하였음. 1989년 광역시를 중심으로 시범사업으로써 ‘청소년야간공부방’에 대해 정부지원이 시작되었고, 이후 2000년 기준 500여개소의 청소년공부방이 정부지원을 받았으며, 2006년에는 민간지원을 포함하여 621개소까지 증가하였음.
- 2009년 복지예산사업 정비 및 전달체계 개선 종합대책(안)의 일환으로 청소년공부방을 비롯한 모든 돌봄서비스 사업을 1개사업으로 통합하는 안이 제시되었음. 2009년 당시 아동·청소년정책을 담당하고 있던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청소년공부방, 방과후아카데미,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방과후보육, 청소년야학 운영지원 등의 돌봄서비스 사업을 지원하고 있었음. 종합대책안에 따라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돌봄서비스 통합이 진행되어 일부는 시설전환을 하였으나, 이후 2010년 청소년정책이 여성가족부로 이관함에 따라 지역아동센터는 보건복지부가 담당하고, 청소년공부방은 여성가족부가 담당하는 체제로 이원화되면서 통합추진방안이 변경되게 되었음.
- 그 결과 2010년 말 청소년공부방사업을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이관하여 지역아동센터로의 전환을 유도하기로 하고, 2011년 정부예산(안)에서 청소년공부방 사업예산을 반영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 청소년공부방사업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고 정부예산에 반영되지 않음으로써 금년부터 지원예산의 절반이 삭감된 상황임. 이와 같이 청소년공부방사업이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이관됨에 따라 이 사업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지속운영이 가능한 청소년사업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가능성 검토가 필요한 시점임.

- 이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먼저 청소년공부방의 운영실태를 파악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청소년공부방과 유사한 청소년지원사업들과의 중복성 및 차별성을 분석하며, 청소년공부방사업의 가치와 한계에 대한 진단 및 평가를 실시하여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청소년친화형 ‘청소년공부방’의 운영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 주요결과

1) 현장조사 결과

- 현장방문을 통해 많은 공부방들이 열악한 상황임을 직접 확인하였음. 재정적 어려움은 운영인력의 양적 부족과 전문성 부족, 낙후되고 불결한 시설·환경, 안전 관련 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위험상황 노출 등의 결과를 초래함. 전문인력 부족 문제와 직원 처우 개선 필요성에 대한 건의가 많았음.
- 지역 내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지역 청소년과 주민의 필요와 요구가 큰 공부방의 경우 계속 운영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음. 특히, 농산어촌 지역이나 저소득층 거주 지역 중 다른 아동·청소년 서비스 제공 시설이 없는 지역의 경우 작고 열악한 공부방이나 청소년들을 위한 유일한 학습·문화·정보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음.
- 공부방 담당자들은 대부분 학습공간 제공과 학습지원 기능 중심인 현재 상태로 시설을 유지하기를 바라고 있으며, 다른 시설로의 전환을 원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 일부 공부방은 담당자가 공부방에 대한 이해나 청소년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마인드가 없이 단순 관리만 하는 곳도 있고 전문 자격증을 갖춘 지도인력이 상근하고 있지 않은 시설도 많이 나타나 청소년시설로서 기본적인 질을 갖추도록 엄격한 관리체계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 담당자들은 청소년공부방 운영 관련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 그동안 발전을 저해한 요인이었음을 지적하였음. 공부방을 법정 시설로 지정하여 시설 설립·운영 기준을 정하고 안정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지역단위에서 조례 제정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 현장조사 결과, 실사위원들은 우수공부방의 요소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됨 : 관장의 의지, 직원의 전문성과 업무 이해도, 헌신성과 사명감, 실무자 교육, 운영단체의 청소년 관련 전문성,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지, 지역자원 개발과 연계·활용, 이용자 욕구

파악과 적절한 대응, 지역 내 전문 자원봉사 인력 활용,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 공적 영역과 연계, 후원 모금 등 예산 확보를 위한 적극적 자체 노력, 학습공간 제공 외에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높은 이용률 등

2) 사례조사 결과

- 조사대상 청소년공부방의 실무자들은 청소년공부방이 사회적으로 매우 필요하며, 그동안 소외 지역과 취약계층의 청소년들에게 매우 의미 있는 공간으로 기능해 왔기 때문에 청소년공부방은 지속적으로 존속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음. 즉 대부분의 청소년공부방은 저소득층 밀집지역이나 학교이외에 다른 문화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에 있으며, 이러한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청소년공부방은 단순히 학습공간으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특별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소중한 공간으로서의 말은바 소임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것임. 따라서 청소년공부방을 폐쇄시켜서는 안 되며, 청소년공부방에 대한 예산지원 중단에 대해서도 강한 반대와 저항의지를 나타내었음.
- 조사대상 청소년공부방의 실무자들은 국고지원 중단이 지자체의 지원예산 삭감으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는 청소년공부방의 폐쇄로 이어지기 때문에 국고지원 중단은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음. 특히 차상위 계층이나 차차상위 계층의 청소년 등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정책인데, 최저수준의 예산지원 마저도 중단하는 것은 국가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는 것임. 따라서 무조건적인 국고지원 중단이나 예산삭감 계획은 철회되어야만 하며, 청소년공부방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국가의 예산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음.
- 조사대상 청소년공부방은 국고지원이 중단된 이후에도 현재까지는 지방비(시도비, 시군구비)로 국고지원 예산을 보충하였기 때문에 큰 변화는 겪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하지만 2012년 이후에는 지자체의 예산지원이 불투명한 상황이며, 예산삭감 및 예산지원 중단으로 시설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국고지원 부활 이외에 별도의 자구책을 마련한 기관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음. 구립시설의 경우에도 위탁운영이기 때문에 다른 민간시설에 비해 비교적 안정적으로 예산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청소년공부방에 대한 예산을 전적으로 지자체가 부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지속적인 예산삭감이 불가피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음. 그리고 국고지원 중단은 지자체의 자체예산 중단을 위한 좋은 구실을 주기 때문에 의미있는

공부방들을 존속시키기 위해서는 국고지원의 부활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시설종사자 뿐만 아니라 담당공무원에게서도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조사대상 청소년공부방은 지역아동센터로의 전환에 대해서 강한 반대의견을 갖고 있었음. 지역아동센터로 전환을 반대하는 이유로는 시설기준을 충족시키기 어렵고, 1년간의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현재 청소년공부방을 이용하는 청소년들 중 상당수가 중고등 학생, 차상위 학생, 차차상위 학생 등 지역아동센터의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점을 들었음.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로의 전환은 청소년공부방의 정체성이나 교육철학과 맞지 않으며, 각종 규제로 인해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으며, 오히려 불편이나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지원이 중단되더라도 지역아동센터로의 전환은 하지 않겠다는 시설들이 대부분이었음.
- 청소년학습지원센터로의 전환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도 있었음. 즉 청소년공부방이 제대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학습기능의 강화가 필요한데, 현재의 지원예산으로는 다양한 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학습지원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하지만 학습기능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적자원들이 자원봉사자로 청소년공부방과 연계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며, 바우처제도와 연계 등 다양한 제도적 뒷받침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반면 시청의 담당공무원은 평생학습센터, 도서관, 청소년문화센터,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수련관 등 유사한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학습지원센터의 기능은 이러한 시설들로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였음.
- 농어촌 지역에 있는 청소년공부방의 경우에는 청소년공부방이 지역사회의 유일한 청소년공간일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을 위한 시설로서의 매우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특히 지역내에는 학습을 위한 학원이나 문화시설이 전무한 상황이라 청소년공부방을 청소년들이 모이는 소통의 장이자 학습의 공간, 놀이의 공간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하지만 농어촌 지역의 경우 지역적 특성상 이용가능한 청소년의 수가 매우 제한적이며, 아동청소년의 수도 매우 부족한 실정임. 따라서 청소년공부방의 지원기준을 시설규모나 이용청소년의 수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지원기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농어촌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도시지역과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3) 종사자 설문조사 결과

- 공부방은 지역사회 안에서 꾸준히 설립·운영되어 오면서 정착되어 왔음. 1989년 정부지원 공부방이 ‘청소년야간공부방’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이래 최근 2010년까지 공부방이 지속적으로 설립된 바 있음. 어려운 여건이지만 운영기간이 ‘5년 이상’인 곳이 7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공부방에 대한 필요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공부방을 운영하는 운영자(91.7%)는 물론이고 지역청소년(79.4%)과 지역주민(76.8%) 또한 공부방에 대한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
- 공부방 종사자들은 안정적으로 활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운영기간 중 ‘5년 이상’이 76%를 차지하는 것에 비해 종사자의 재직기간 중 ‘3년 미만’이 전체의 47.5%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근직보다 비상근직의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어, 공부방 종사자들이 장기적으로 활동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뿐만 아니라 평균 근무인력은 상근직과 비상근직을 포함하여 2.63명에 불과하며 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 가운데 자원봉사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인력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공부방 종사자들의 지역사회 청소년관련 시설·사업에 대한 인지도와 협력경험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지역사회 관련 단체와의 업무협력 시 겪는 어려움도 ‘협력방법을 몰라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많아 지역 내 단체들과의 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공부방은 단독건물의 비율이 낮으며 매우 협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절반 정도가 66㎡~132㎡ 미만으로 다양한 시설을 보유하거나 이용청소년들에게 학습 공간 제공 및 학습지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청소년 활동·복지 프로그램 지원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종사자들은 시설·환경의 다른 측면보다 공간크기가 부족하다고 응답해 공간크기로 인한 어려움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현재 공부방의 주요 기능은 ‘자율적인 학습공간 제공’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운영중인 프로그램 중에서도 ‘학습지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반면 현재의 공부방 기능에 대한 만족도는 42.9%로 그리 높지 않아 청소년들의 요구가 많은 학습지원 외의 다른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한 필요성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공부방의 재정상태는 매우 열악함. 2010년도 예·결산내역을 살펴본 결과 수입에서 국고와 지방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상태에서 국고 지원이 중단된 상태임. 프로그램 운영이 어려운 이유로 예산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국고지원

중단 이후 이용자 감소와 직원퇴직 등 운영에 직결되는 다양한 문제를 경험하고 있어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음.

- 2011년 국고지원 중단과 지방사업으로의 전환 이후 시설 전환에 대한 의사가 있는 경우는 9.2% 정도였으며 71.1%가 현행 유지를 원하고 있었다(서울 제외 시). 시설 전환을 할 경우 시설별 선호도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30.7%, 청소년문화의집 25.2%, 지역아동센터 24.9%로 나타나 방과후아카데미로의 전환을 조금 더 선호하였으며, 시설전환을 위해 무엇보다 전문적인 인력 확보가 가장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4) 이용청소년 설문조사 결과

- 공부방 이용실태는 다음과 같음. 청소년공부방 이용청소년의 이용기간은 평균 26.82개월(약 26개월 25일), 1회 이용시 평균 199.61분(약 3시간 20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청소년들은 공부방을 주로 주중(오후, 저녁)에 이용하며, 비규칙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시험기간에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도별로 공부방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았고, 이동하는데 평균 11.13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친구와 부모님을 통해 공부방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음.
- 공부방 이용동기에는 다양한 욕구가 반영되고 있음. 청소년공부방 이용청소년의 공부방 이용동기를 살펴보면, 학습과 관련한 동기를 많이 갖고 있으며 (학습 도움 33.2%, 공부할 공간 19.9%, 정보·자료 6.6% 등) 그 밖에 여가시간 활용이나 친구와의 만남 등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공부방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공부방 이용에 대체로 만족하고 있음. 청소년공부방 이용청소년의 이용 만족도는 ‘매우 만족’(27.8%)과 ‘만족’(46.7%)을 합하면 74.5%로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사업분야별 만족도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 ‘매우 만족함’과 ‘만족하는 편임’에 대한 응답률을 살펴보면, 자율적인 학습공간 제공 82.0%, 자료열람대출 및 정보제공 58.0%, 학습지도 54.5%, 여가문화체험활동 45.0%, 복지지원 등 지역사회 연계협력사업 40.9%, 상담 및 정서지원 39.3%로 나타나 학습공간 제공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편이었으나, 그 외 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지 않거나 미흡한 수준으로 제공되고 있음을 예상할 수 있음.
-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시설·사업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경험은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음. 지역도서관만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방과후 학교가 절반 정도의 수준인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설·사업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경험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종합사회복지관, 청소년쉼터,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청소년활동진흥(자원봉사)센터,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교육복지(투자)우선지원사업, 드림스타트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경험은 ‘알고 있으나 이용한 적 없다’와 ‘모르고 있었다’를 포함하여 전반적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음.

- 공부방의 필요성은 90.6%의 청소년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필요한 편 32.7%, 꼭 필요 57.9%). 공급과 학업성적에 따라 공부방의 필요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청소년공부방을 이용하면서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경험하고 있음. 다양한 활동 부족, 시설 및 환경에 대한 불편사항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에 상응하는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음.

정책제안 1

지역사회중심 청소년공부방 운영 활성화 방안

❖ 제안 내용

- 전국적으로 청소년공부방 실태조사연구를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과 장점,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우수하게 운영되고 있는 사례를 모아, 도심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모형 하나와 소외지역의 특성을 반영된 두 개의 모형을 통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가 실질적으로 지속하여 운영할 수 있는 청소년공부방의 3가지 운영모형을 제시함.
- 모형 1 (사업명: 지역청소년독서실) : 모형 1의 모형개발 방향은 인구집중(도심)지역내 공공시설 활용을 전제로 지자체가 직접운영 또는 전문청소년단체가 운영하도록 함. 지역사회 차원에서 누구나 공부할 수 있는 계층 통합 독서실로 활용함. 단, 초·중·고등학교의 시험기간에 있어서는 사회적 차원에서 청소년들에게 우선권을 부여함. 사업운영은 기초지자체가 설치 및 운영의 주체가 되고, 지자체 직영 또는 전문단체를 통해 위탁 운영함.
- 모형 2 (사업명: 우리 마을 청소년 꿈터) : 모형 2의 모형개발방향은 소외지역(농산어촌)의 공공시설(지자체소유 또는 장기 건물활용 지자체기부채납)의 활용과 운영상 지역사회(마을회)가 책임성있는 지분을 갖게 함. 사업운영은 기초지자체가 설치 및 운영의 주체가 되고, 마을회 직영 또는 전문단체를 통해 위탁 운영함.
- 모형 3 (사업명: 우리 동네 청소년 희망터) : 모형 3의 모형개발방향은 소외지역(농산어촌)의

민간시설 활용과 지역독지적 차원의 민간(종교단체 포함) 운영을 중심으로 함. 본 시설모형은 민간영역에서 자율 및 책임성을 가지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을 기본운영방향으로 설정함. 사업운영은 민간(개인, 단체)이 지역의 공익성 및 봉사를 위하여 설치 운영하고, 지자체는 청소년이용권장시설로 등재하여 지역의 청소년 활동시설로 관리함.

❖ 기대 효과

- 지역사회의 특성에 따른 청소년공부방 운영모형을 제시함으로써 자생적으로 지속가능한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정책제안 2

지역아동센터로의 전환 방안

❖ 제안 내용

- 청소년공부방을 지역아동센터로 전환시키고자 할 때 학습할 수 있는 공간만 있는 가형(66제곱미터, 20평 이상)은 공간이 좁다는 문제점이 있음. 현재 지역아동센터는 25평 이상을 권장하고, 최소 공간이 18평 이상이기에 최소 조건을 갖춘 곳을 지역아동센터로 전환시킬 수 있음. 만약 현재 공간이 아동과 청소년이 활동하기에 현실적으로 좁은 곳은 증축·개축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임.
- 청소년공부방을 지역아동센터로 전환할 때 필수공간으로 학습공간과 조리실, 식당을 요구함. 기존 청소년공부방은 학습공간은 있지만 조리실과 식당이 없거나 공간의 특성상 조리실과 식당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음. 이 경우 사회복지관, 청소년수련관 등에 부설된 공부방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조리실과 식당 등 주방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시설기준을 보다 유연성 있게 적용하면 될 것임.
- 청소년공부방의 직원(관장, 지도교사, 관리인 등)은 법정 자격이 없지만, 지역아동센터(시설장, 생활복지사, 영양사 등)는 사회복지사 등 법정 자격증을 갖춘 사람만 임용될 수 있음. 청소년공부방을 지역아동센터로 전환시에는 사회복지사 등 법정 자격을 갖춘 사람을 시설장으로 임용하도록 해야 함. 다만, (아동)공부방을 지역아동센터로 전환할 때 경과조치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시간을 준 전례가 있다(아래 참고 자료). 사회복지사 등 자격을 갖춘 사람을 시설장과 직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되, 청소년공부방을 현신적으로 운영한 경력이 있는 실무자가 계속

일하기를 희망할 경우에는 2년 안에 법정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경과조치를 두는 것도 한 대안임.

- 청소년공부방을 지역아동센터로 전환시키면 중앙 행정부처의 관할은 여성가족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바뀌지만, 시·군·구청에서는 대체로 같은 팀에서 청소년업무와 아동업무를 맡거나 한 담당자가 아동과 청소년업무를 담당하기에 행정상 문제될 것이 없음. 전환 첫해에는 기존 가용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여 청소년공부방 예산을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로 지원하고, 예산의 차액을 추경 등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면 될 것임. 2011년에 전환시킬 경우에 2012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현재 지역아동센터의 이용자는 초등학생이 주류이고 중학생이 일부 이용하는 경우가 많음. 또한 1318 해피존과 같이 ‘청소년전용 지역아동센터’를 표방하여 주로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이용하는 곳도 있음. 따라서 청소년공부방을 지역아동센터로 전환시킬 경우에 ‘청소년전용 지역아동센터’로 운영하면 공부방을 이용했던 청소년이 자연스럽게 센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임.

❖ 기대 효과

-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에 규정된 법정시설로써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현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공부방의 경우 지역아동센터로 전환함으로써 운영에 있어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정책제안 3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로의 전환 방안

❖ 제안 내용

- 나형 청소년공부방 중에서 공간이 넓은 경우에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로 전환시킬 수 있을 것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청소년공부방에 비교하여 10배 가량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해당 시·군에서 1개소 가량 선별하여 전환시킬 수 있음. 특히 해당 시·군·구에 아직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 없는 지역이면서, 시·군·구청 소재지 혹은 인구 밀집지역(읍소재지)에 있는 청소년공부방 중에서 공간이 되는 곳을 우선적으로 전환시키면 될 것임.
- 현재 대도시에 비교할 때 중소도시인 시와 농어촌인 군단위(혹은 읍단위)의 청소년복지 인프라는

매우 취약함. 대도시에는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등 다양한 공간이 있음. 하지만 시와 군단위에는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등 일부 청소년시설만 있고, 일부 군단위와 면단위에는 청소년을 위한 문화공간이 전혀 없는 경우도 많음.

- 농산어촌에는 도시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청소년문화의 집 등이 전혀 없었는데, 겨우 한 두 개 있던 청소년공부방조차 국비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해당 지역에 사는 청소년을 심각하게 차별하는 정책임. 이들에게 좀 더 나은 문화적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청소년공부방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로 개편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여성가족부가 청소년공부방의 예산을 축소할 대신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예산을 늘려야 함. 청소년공부방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로 전환시킬 경우에는 시·군·구에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등 기존 인프라를 고려하여 인프라가 적은 지역에 우선 배정해야 사회적 형평을 도모할 수 있음.

❖ 기대 효과

- 청소년공부방은 여성가족부 산하의 인프라이므로 시설전환을 할 경우 역시 여성가족부 인프라인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로 전환한다면 정책추진의 일관성과 지원의 편리성 등 행정적인 장점이 있을 것으로 기대됨.

정책제안 4

작은 도서관으로의 전환 방안

❖ 제안 내용

- 청소년공부방을 주변에 지역아동센터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 있어서 전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작은 도서관으로 전환도 적극 도모할 수 있음. 청소년공부방 중에는 도서책을 많이 확보하고 도서책의 대여를 중요한 사업으로 수행한 곳이 있음. 특히 주민센터 등 공공건물의 일부 공간에 열람실만을 확보한 작은 청소년공부방은 주방설비 등 지역아동센터에 필수적인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곳도 있을 것임. 이 경우에는 청소년공부방을 도서관법상 작은 도서관으로 전환시키는 것도 한 방법임. 작은 도서관의 최소 기준은 표준화되어 있지 않지만 대체로 시설면적 33제곱미터(10평) 이상, 열람석 6석 이상, 도서관자료 1,000권 이상으로 청소년공부방의 최소 면적 66제곱미터(20평) 이상보다 기준이 낮음. 작은 도서관에 대한

지원은 청소년공부방에 비교하여 더 낮을 수 있기에 기존 운영자에게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음.

- 따라서 청소년공부방을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작은 도서관 등으로의 전환은 해당 공부방의 시설과 설비, 운영자와 직원, 운영단체(기관)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할 것임. 오랫동안 청소년공부방을 운영한 단체와 담당 실무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청소년공부방을 전환시킬 수밖에 없는 사정을 설득해야 할 것임.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서 지원을 늘리는 것도 쉽지 않지만, 이미 있는 사업을 전환시키거나 지원을 줄이는 것도 쉽지 않음. 청소년공부방을 운영하기 위해서 소명을 갖고 헌신을 한 단체와 실무자에게 포상과 같은 사회적 예우가 꼭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음.

❖ 기대 효과

- 작은 도서관으로의 전환방안은 소규모의 청소년공부방이 용이하게 시설을 전환할 수 있는 방안으로써 지역사회의 여건에 따라 간단한 시설환경만을 갖춘 상태에서 청소년시설을 운영하고 자 할 때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정책제안 5

청소년공부방의 특성화를 통한 재정립 방안

❖ 제안 내용

- 다양한 상황에 있는 청소년공부방을 일시에 모두 다른 시설로 전환시키는 것보다는 당분간 그대로 두면서 사업의 필요성을 느낀 시·군·구와 시·도가 자체 예산으로 계속 운영하는 것도 한 방법임. 서울특별시도 자체 예산으로 청소년공부방을 운영하고, 재정자립도가 높기에 계속 청소년공부방을 운영할 수 있음. 재정자립도가 높은 경기도와 일부 광역시도 자체 예산을 확보할 수 있기에 ‘청소년공부방’을 다른 시설로 전환시키지 않고 운영할 수 있을 것임. 다만, 청소년공부방은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 유사한 사업과 중복된다는 정책적 판단으로 국고 지원이 중단되었기에 ‘청소년공부방’이란 사업 명칭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함.
- 청소년공부방은 이용 청소년이 주로 자발적인 학습공간(시설 독서실과 같이)으로 활용하는 측면이 강하다는 점에서 ‘청소년자율학습센터’ 혹은 ‘지역청소년센터’로 사업의 정체성을 새롭게 해야 할 것임. 또한 지역청소년센터가 이용 청소년에게 학습공간을 제공하면서 청소년이 희망하

는 다양한 문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간을 확충하고 전문인력을 충원할 수 있도록 사업의 규모를 재정립해야 할 것임.

- 청소년공부방의 사업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보다는 핵심사업으로 학습지원과 문화체험을 중시하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로 발전시키고, 청소년수련시설이 없어서 아카데미로 전환시키기 어려운 경우에 한 하여 ‘농산어촌형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한 모델인 지역청소년센터로 정체성을 재정립시킨 새로운 모델을 정책 사업으로 개발해야 할 것임. 새로운 사업을 개발할 때에는 기존 청소년시설이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집중되어 있고, 군청이 없는 읍과 면단위에는 거의 없다는 점에서 비춰볼 때 이러한 지역 중에서 이용 청소년이 있는 지역부터 집중 지원을 해야 할 것임.
- 현재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청소년수련시설이 있는 곳에 프로그램사업으로 설치되고 있는데, 시/군청 소재지가 아닌 농산어촌의 경우에는 당분간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이 설치되기 어려울 것임. 이미 청소년수련시설이 있는 도시나 농촌의 군청 소재지에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 병설되는데, 청소년수련관 조차 없는 농산어촌에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프로그램도 없다는 것은 사회적 형평에 맞지 않음. 따라서 프로그램 사업인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독립된 기관형 사업으로 발전시켜서 농산어촌에는 ‘지역청소년센터’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사회적 형평에 부합할 것임. 농산어촌에 지역청소년센터를 설치한다면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지원형을 기본 모델로 하고, 청소년 가족의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혼합형을 추가로 실시하면 될 것임.

❖ 기대 효과

-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현재의 청소년공부방에 대한 지원을 지속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청소년공부방이 기존에 해오던 역할을 그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새로운 정체성을 찾는 방안을 모색한다면 청소년공부방의 특성화를 통한 재정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가족유형에 따른 아동·청소년 생활실태 분석 및 대책연구

연구 요약

❖ 책임연구원 : 성운숙(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ISBN : 978-89-7816-956-1(93330), 자체 보고서 번호 : 11-R05, 11-R05-01

❖ 발행처(연도)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1)

❖ 연구목적

- 가족유형별 아동과 청소년의 생활실태를 전체적으로 조망하여, 각각의 유형이 지니는 개별적 특징뿐만 아니라, 가족유형들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를 분석함.
-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아동과 청소년이 다양한 가족유형으로 인해 겪게 되는 문제들의 효율적 해결을 위해 필요한 사회적 지원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이들이 안정적이고 건강한 사회인으로서의 성장을 돕는 방안을 모색함.

❖ 주요결과

1) 가족유형에 따른 외국의 아동·청소년 지원정책 비교 분석

- 가족유형에 따른 아동·청소년지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일찍이 우리나라보다 먼저 가족유형이 변화된 미국, 캐나다, 독일, 일본 등의 정책 및 제도 등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 캐나다의 경우 대부분의 주에서 17주의 모성휴직이 주어지고 있으며 경제적인 지원을 위해 국가고용보험(Employment Insurance: EI)이 시행되고 있음. 독일의 정책이 특히 유의미한 것은 2011년 통과된 “가족을 위한 근로시간 현장”등 가정생활에 있어서 삶의 질을 중시하고 있다는 점임. 일본의 경우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저출산고령화문제를 해소하고자 예방적 가족복지정책이나 취업지원 등 다양한 가족지원책을 시행중에 있음.
- 한부모가정 등 위기가정 지원정책의 경우 공통적으로 세분화되고 다양한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음. 미국의 경우 이혼 증가로 인한 가족유형에 대처하기 위해 다양한 법적 절차, 프로그램, 부모교육 및 필요가정 한시지원제도(TANF) 등의 다양한 지원책을 취하고 있음. 특히 TANF는

모자가정의 취업률 증가, 전반적인 가정수입 증가 등의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주어 한국의 한부모가정 지원정책에도 고려해 볼 수 있음. 반면 캐나다의 경우는 연방정부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연방정부의 지원하에 각 주에 따라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독일의 경우는 가족유형의 분류에 따른 개별적 접근이나 지원보다는 가정이 지니는 본질적 가치로부터 접근한다는 특징이 있음. 즉 ‘전망 재취업’ 프로그램 등에서 나타나는 것은 가족의 형태와 상관없이 모든 가족을 미래지향적인 책임공동체로서 최우선적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며, 그것을 통해 가족의 문제를 근본적인 차원에서 해결해나가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임. 일본의 경우는 「모자 및 과부복지법」 등에 기반하여 다양한 프로그램과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을 포괄적으로 지원함과 동시에 한부모가정의 종합적인 자립지원을 추진하고 있음.

2) 가족유형에 따른 아동·청소년의 생활 실태 분석

- 가족유형에 따른 아동·청소년의 생활실태 분석을 위해 전국의 초·중·고등학생 총 9,39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음. 실태조사영역은 크게 가정생활, 학교생활, 지역사회생활, 문제행동, 여가생활로 구분하였음.
- 가정생활실태를 살펴보면, 양친부모가정의 자녀들은 조손가정의 자녀들과 마찬가지로 가족경제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었음. 그러나 한 달 용돈의 평균 금액과 아르바이트 경험은 한부모가정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 가족관계의 경우 양친부모가정의 자녀들은 만족스런 가족관계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그에 비하여 한부모가정과 조손가정의 자녀들은 가족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았음. 가출시도경험의 경우 한부모가정의 자녀들이 다른 가족유형에 비해 월등히 높았음.
- 학교생활의 경우 양친부모가정의 자녀들과 조손가정의 자녀들이 한부모가정의 자녀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인간관계 만족도가 높았음. 반대로 학업중단 생각, 가해(욕설, 폭력, 따돌림) 경험 등 부정적 행위의 빈도는 다른 가족유형보다 낮았음. 방과 후 학교활동에 대해서는 가족유형에 관계없이 모두 불만인 편이나, 양친부모가정의 자녀에 비해서 한부모가정의 자녀가 상대적으로 더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지역사회생활의 경우 전체적으로 양친부모가정의 자녀가 다른 가정, 특히 한부모가정의 자녀에 비해 만족도가 높고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빈도수는 낮았음. 한부모가정의 자녀들이 다른 가족유형에 비해 문제행동을 많이 일으켜 가장 관심과 배려를 가지고 돌보아야 할 자녀들이

확인되었음.

- 여가생활과 관련하여, 도서관이나 문화시설 등 공공시설은 주로 양친부모가정의 자녀들이 많이 이용하는 편이었음. 한부모가정과 경제적 저소득층의 자녀들은 '인터넷 이용시간'이 높았음. 그리고 한부모가정 자녀들은 컴퓨터보유정도가 가장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여가시간은 컴퓨터와 인터넷을 이용하는데 가장 많이 할애되고 있었으며 한 달 휴대전화이용요금도 가장 많이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특기할만한 사실은 조손가정의 경우 한부모가정에 비해 아동·청소년들의 삶이 현저하게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었음. 조손가정 자녀들의 경우 전체적으로 심각한 일탈현상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의 인간관계에 있어 양친부모가정과 유사하거나 때로는 더 긍정적인 경우도 확인되었음. 특히 지역사회에서의 인간관계는 양친부모가정의 자녀들보다도 더 긍정적이었음.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폭력, 협박 등 반사회적 행위에 있어서도 조손가정 자녀들의 참여비율이 가장 낮았음.

정책제안 1

양친부모 가정 대상 지원정책 내용

❖ 제안 내용

-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증진을 위한 정책으로, 부모의 자녀에 대한 이해를 위한 정책과 청소년기 자녀 양육 방법에 대한 교육이나 지도, 자녀가 다니는 학교를 중심으로 체험활동 시간을 통하여 부모교육 및 자녀와의 의사소통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제안
- 한부모·조손가정에 대한 반편견교육 및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이해와 관용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제안
- 맞벌이 가구의 경우 나홀로 아동으로 방치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아동을 위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학습조직 체계를 구축하고, 학교를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진 활동지원체계를 학교-지역사회-가정을 연계하여 주말의 경우에는 학교가 아닌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방안 마련 필요

❖ 기대 효과

- 양친부모 가정의 세부유형별 정책수요를 확인하였으며, 그에 따른 맞춤형 지원 가능

정책제안 2

한부모 가정 대상 지원정책 내용

❖ 제안 내용

- 아동양육비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규정한 아동의 연령인 18세미만까지 확대. 통신비에 대한 국가적 지원
-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프라를 통해 한부모가정의 아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 CYS-Net과 같은 지역사회 단위 청소년중심 지원체계에서 한부모가정 아동·청소년의 특성을 감안하여 주요 정책적 대상으로 삼아 지원을 해 나가는 것도 필요
- 폭력·흡연·음주 등 문제행동을 보이는 아동·청소년에 대상 건강가정지원센터,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등과 연계, 아동·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대한 상담, 문화활동, 정서함양,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한부모가정의 가족역량 강화 필요
- 건강가정지원센터, 종합사회복지관, 고용지원센터 등 다양한 기관에서 한부모가정 지원 프로그램 확대 추진 필요. 재혼에 대한 장려 정책 필요
- 부모의 근로시간 중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을 정책적으로 부여하거나, 자녀가 부모와 함께하는 수업 등 부모와 자녀가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인성교육 기회 확대

❖ 기대 효과

- 통신비 지원은 한부모가 경제활동을 하는 동안 아동이 방치되는 상황을 고려한 정책
- 한부모 가정의 역량강화와 한부모 자녀의 인성발달 및 문제유형별 맞춤형 지원

정책제안 3

조손 가정 대상 지원정책 내용

❖ 제안 내용

- 조손가정의 경우에는 복지급여 체계내에서 보다 두터운 지원이 필요하며, 조부모의 학력이 낮은 점을 감안할 때 학습지원, 건강악화를 감안한 가사서비스 등에 대한 서비스 지원 확대가 필요함.
- 각 부처별로 노인, 아동·청소년별로 분리하여 지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조손가구를

대상으로 한 통합적 접근과 서비스가 필요함.

- 여성가족부에서 조손가구를 대상으로 손자녀 학습증진, 조부모 가사 돌봄 서비스, 문화체험 등을 제공하는 ‘조손가족 희망사다리’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양육자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의료지원 정책이 우선되어야하며, 학교생활 및 문제행동 부분에서는 세대간 차이에 의한 손자녀 이해관계 등 돌봄 문제 해결과 지역사회 내 인적자원을 활용해 부모의 역할을 일정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는 대리위탁 시행과 대부대모 제도를 통한 지속적인 연계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 기대 효과

- 조손가정 청소년의 불리한 성장환경에 대한 보완효과

정책제안 4

전체 가정 대상 지원정책 내용

❖ 제안 내용

- 학교가 주말에 청소년 기관·단체 등에 학교를 개방하여 위탁운영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 또한 시설운영, 종사자 처우여건 등을 주말활동에 맞추어 개편

❖ 기대 효과

- 주5일제 실시에 따른 주말 청소년 여가활동 수요 충족 및 청소년 양육가정의 부담 경감과 활동 기회 확대.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종단연구 II

연구 요약

❖ 책임연구원 : 양계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ISBN : 978-89-7816-956-1(93330), 자체 보고서 번호 : 11-R07

❖ 발행처(연도)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1)

❖ 연구목적

- 2010년도 수행한 예비연구를 통하여 도출된 내용을 근거로 최종 설문지 및 조사방법을 확정하고 패널을 구축함.
- 구축된 패널을 대상으로 1차년도 설문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 및 성장과정에서 차이를 보이는 요인을 집단 내 다양한 특성에 따라 비교 분석함.
-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 및 성장의 특성을 비(非)다문화가정 중 취약계층과 횡단 비교함으로써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특징을 파악함.
-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특성에 부합하는 정책적 지원방안을 마련함.

❖ 주요결과

-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발달특성이 어머니의 출신국, 어머니의 교육수준 및 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임. 예를 들면,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거나, 가정의 소득수준이 높은 다문화가정 또는 특정국가 출신의 어머니를 둔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한국어나 외국어를 사용하는 능력, 학교의 성적, 이중문화수용 및 다양한 이중문화경험, 자존감이나 성취동기와 같은 심리적 특성, 부모의 양육태도, 학교생활 적응 등에서 매우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낸 반면,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낮거나 가정의 소득수준이 낮은 가정 또는 베트남이나 필리핀 출신 어머니를 둔 다문화가정 학생은 그 반대의 결과를 보임.

- 부모의 배경적 심리적 특성이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심리행동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예를 들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자녀에 대한 부모의 기대수준, 어머니의 학교행사 및 활동참여, 아버지의 교육수준 등이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업 및 학교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어머니의 자아존중감,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신체적 심리적 스트레스 및 차별인식 등이 다문화가정 자녀의 심리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산출됨.
- 취약계층과 다문화가족의 청소년들을 비교했을 때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들이 취약계층 청소년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더 긍정적인 발달 상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결과는 기존에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있는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들이 결핍되고 부족한 집단이라는 고정관념과는 대비되는 결과임.
- 결론적으로 '다문화가정'이라는 동일한 집단에 속한 학생일지라도 개인이 속한 다양한 배경변인에 따라 발달의 양태가 매우 상이한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이 가진 역량이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다문화'라는 한 가지 차원의 분류를 가지고 이들을 동일한 특성을 가진 집단으로 규정하고 동일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필요가 있음.

정책제안 1

수요자 요구 및 특성에 기반한 다문화정책

❖ 제안 내용

- 동일한 다문화가정이어도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라 청소년의 심리적 발달특성이 다양하고, 요구도도 매우 다름.
- 다문화가정의 특성별로 세분화하여 집단별 특성에 맞는 요구도를 파악할 필요 있음.
- 각 집단별 요구도에 근거한 지원정책이 이루어질 필요 있음.

❖ 기대 효과

- 일률적인 잣대에 의한 일방적인 지원에서 벗어나 좀 더 수요자 요구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음.
- 수요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내용을 적절하게 지원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음.

정책제안 2

다문화사업 지원 대상을 보편적 복지정책의 대상으로 편입

❖ 제안 내용

- 다문화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은 매우 다양하며 저소득층만 존재하는 것이 아님. 따라서 현재와 같이 다문화사업의 지원 대상을 별도로 관리하여 ‘다문화가정’이라는 기준에 근거하여 지원하기보다, 기존의 복지정책 내에 흡수하여 원칙적으로는 비(非)다문화가정 청소년들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되 다문화청소년 집단에 대한 할당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 있음.
- 다문화가정 청소년 중 저소득층 가정 청소년으로 지원대상으로 한정할 필요 있음.

❖ 기대 효과

- 지원대상을 다문화가정 자녀와 비(非)다문화가정 자녀를 구분하지 않거나 가시적으로 구분이 드러나지 않도록 함으로써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자연스럽게 한국사회의 보통 청소년들과 통합될 수 있음.
- 지원정책에 있어 가시적 구분을 하지 않음으로써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한국사회의 소수집단으로 구분되고 인식되는 것을 감소시킬 수 있고, 그 결과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과 편견이 생성 및 강화되는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음.

정책제안 3

다문화가정 어머니 교육의 강화

❖ 제안 내용

-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 및 양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어머니의 역량 및 심리적 변인임이 밝혀진 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건전한 발달을 위해서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을 개발시키고, 양육효능감 및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등 어머니의 역량강화 방안이 필요함.
- 어머니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청소년수련시설, 상담지원센터 등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각 시설의 전문성을 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면, 다문화가정 지원센터를 통하여 한국어 학습 및 자녀 교육방안 등을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수련시설을 통해 청소년지도, 부모효능감 향상 프로그램 등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지역의 상담지원센터를 통해 심리상담, 가족상담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협력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음.

❖ 기대 효과

- 일차적으로는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어머니 자신의 적응적 삶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이차적으로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긍정적이고 건전한 발달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임.
- 또한 어머니의 역량이 강화됨에 따라서 다문화가정 스스로가 자녀들의 역량개발을 위하여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고, 이는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긍정적 발달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그 결과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역량이 높아진다면 다문화가정 청소년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과 편견을 감소시키는 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종단조사 II :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양육시설 이용 아동·청소년을 중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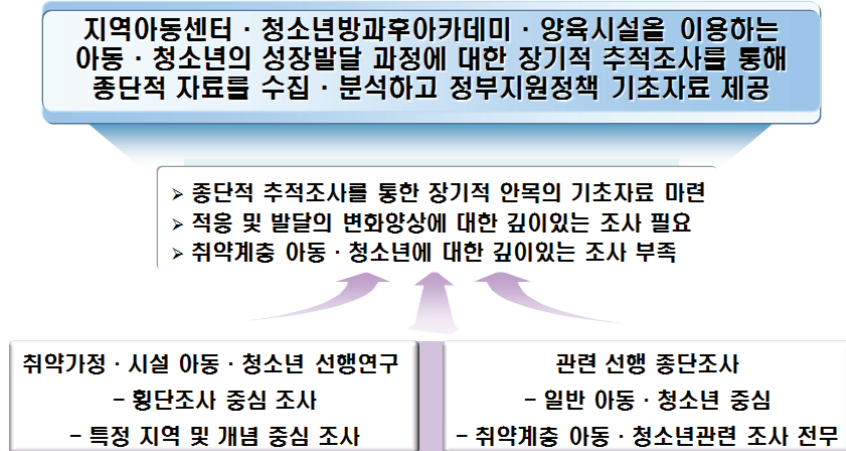
연구 요약

- ❖ 책임연구원 : 황진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 ISBN : 978-89-7816-957-8(93330), 자체 보고서 번호 : 11-R08
- ❖ 발행처(연도)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1)

❖ 연구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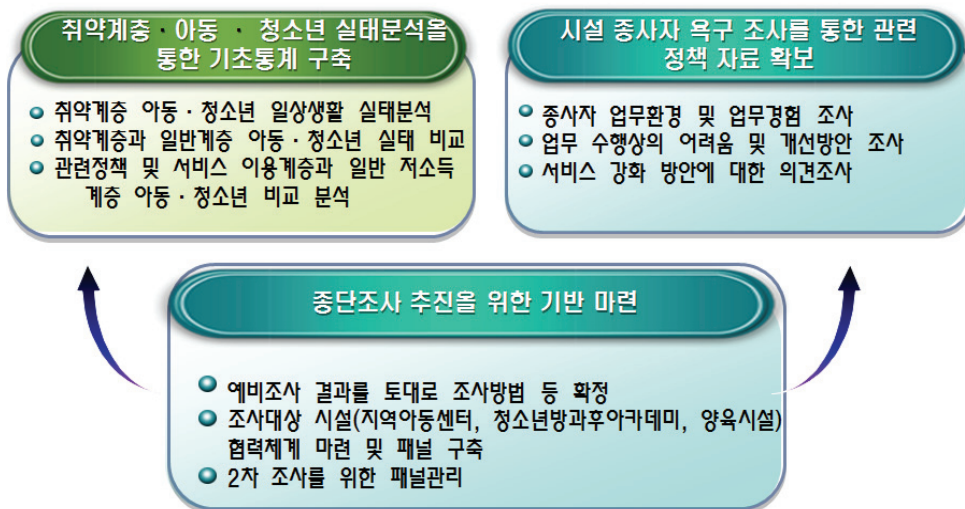
- 우리사회의 경제적 양극화 심화, 불안정한 구조와 기능을 지닌 가정의 증가는 빈곤가정과 정상적인 성장에 필요한 환경을 갖추지 못한 가정에서 성장하는 아동과 청소년의 수를 증가시키고 있음.
- 취약가정과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청소년은 생애주기적 차원에서 발달과업의 성취가 지연되거나 열악한 사회적 환경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성장과정에 대한 종단조사를 통해 그 변화양상을 동태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종단조사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생애주기별 필요한 발달과업의 성취도와 욕구변화 등을 동태적으로 분석할 수 있어 관련 정책의 필요성과 방향, 그리고 효과성을 검증하는 기반을 제공할 수 있음.
- 다양한 유형의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중에서 세부적인 조사대상 집단을 선정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종단 조사를 수행함으로써 성장발달과 생활변화 등을 장기적 관점에서 파악하고, 관련 정책의 효과와 향후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매우 필요함.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2010년에 “취약가정·시설의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종단연구 I”을 수행하여 종단조사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이를 위한 세부적인 방향을 설정하였음.
- 이 조사의 중장기적인 목적은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성장발달 과정에 대한 장기적인 추적조사

를 실시함으로써 이들의 성장과정에서 나타나는 발달특성이나 생활변화와 더불어 관련 정책이나 지원시설의 기능과 효과 등에 대한 종단적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는 것에 있음[그림 1].



【그림 1】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종단조사의 중장기 필요성과 목적

- 2011년에 실시된 조사의 목적은, 향후 3년간 추진될 취약계층 아동 · 청소년 종단조사의 1차년도로서 종단조사 전반의 내용을 확정하고, 1차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고, 이후 진행될 조사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에 있음[그림 2].



【그림 2】 2011년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종단조사의 목적

❖ 주요결과

1)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관련 논의와 선행조사 분석

- 다양한 유형의 취약가정과 시설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논의를 통해 취약가정 중에서 저소득가정에 초점을 맞추어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이용하는 계층을, 아동복지시설 중에서는 아동양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청소년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고, 세부적인 조사대상을 확정함.
-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업과 중단조사의 연관성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조사항목 등을 확정함.
- 청소년관련 선행 중단조사 및 관련 연구, 복지관련 선행 중단조사 및 관련 연구에 대한 검토를 통해 이 중단조사가 지닌 고유한 목적과 내용 및 특징 등을 파악함.

2)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중단조사 모형과 관련사업 현황분석

- 2010년 10월 조사실행업체(동서리서치)를 선정하였으며, 11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한 예비조사 결과에 대한 검토를 통해, 조사의 목적, 조사대상, 조사내용, 조사과정 등을 세밀하게 확정함.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중단조사 모형 확정
- 조사대상과 표본, 조사기간과 주기, 조사체계와 방법, 조사영역과 항목 등을 확정함.
관련 사업 현황 분석
- 조사대상이 되는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아동양육시설 이용 아동·청소년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사업 현황을 분석함.

3) 2011년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중단조사 개요

- 지역아동센터에서 638표본,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서 199표본, 아동양육시설에서 163표본, 총 1,000명의 표본을 할당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별 샘플수를 할당함.
- 조사영역 및 항목은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아동양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다른 조사들과의 차별성 및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작성되었고, 일반청소년과의 비교를 위해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에서 조사된 항목과의 연계성 및 각 사업의 효과성 검증방안을 고려하여 확정됨.

4) 2011년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종단조사 주요 내용

- 일상생활(생활시간, 건강, 미디어 이용, 학교생활 및 학습, 비행 및 폭력 피해)
- 자아가족사회에 대한 인식 및 생활(자아탄력성과 스트레스, 문제해결능력, 가족에 대한 인식과 생활, 지역사회와 공동체 인식, 일상생활 만족도)
- 시설 및 서비스(도움에 대한 인식, 서비스 만족도, 생활변화 인식) 등의 내용을 분석함.

5)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패널과 한국아동·청소년 패널 비교분석

-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일상적인 생활여건과 상태에 대한 파악을 위해 취약계층 패널과 2010년 실시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의 전체 학생들과의 차이를 분석함.
- 가족배경, 생활시간과 건강, 미디어 이용, 학교생활, 자아탄력성, 부모관계, 지역사회 및 공동체 인식을 비교함.
-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아동양육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효과를 검토하기 위해 2010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 가운데 저소득계층에 포함된 대상을 선택하여 취약계층 패널과의 차이를 비교 분석함.

6)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종사자 의견조사 분석

-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종단조사를 위해 선정된 기관들의 종사자 2명씩 총 517명을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됨.
- 직무현황 및 인적사항, 시설종사자의 직무인식 및 태도, 서비스 관련 현황 및 개선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함.

정책제안 1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조사체계 구축을 위한 제언

❖ 제언 내용

- 장기적 관점의 대안 마련, 정책과 사업의 효과성 검증, 성장·변화하는 아동·청소년의 특성 등을 반영한 조사체계 마련을 위한 세부적인 대안을 제시함.

❖ 기대 효과

- 취약계층에 대한 중장기적 차원의 조사와 관련된 법·제도적 장치 마련

정책제안 2

시설 서비스 및 정책의 활성화를 위한 제언

❖ 제안 내용

- 시설의 서비스 강화를 위해 학습지원 관련 세부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개별적인 접근의 필요성과 방향, 기관 특성 중심의 서비스 제공 등을 제안함.
- 관련 정책의 효과성 강화를 위해 돌봄기능의 확대, 건강지원 사업의 방안, 컴퓨터 교육 등의 강화를 제안함.

❖ 기대 효과

- 일반계층 청소년에 비해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서비스 내용 확인
-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의 세부적인 서비스 개선 유도

정책제안 3

시설종사자 관련 제언

❖ 제안 내용

- 처우개선 방안, 업무배분 체계의 개선, 직무 재교육, 시설 유형별 개선방안 모색 등을 제안함.

❖ 기대 효과

- 지역아동센터 등 취약계층 대상 서비스 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방향 확인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 가정 아동 지원 방안 II :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멘토링 활성화 정책 방안

연구 요약

❖ 책임연구원 : 김정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ISBN : 978-89-7816-960-8(93330), 자체 보고서 번호 : 11-R09-1

❖ 발행처(연도)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1)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청소년멘토링 활성화 정책의 필요성과 현황 분석, 그리고 청소년멘토링 활성화를 위한 정책 대안 마련을 목적으로 수행되었음.

❖ 주요결과

1) 청소년멘토링 정책의 필요성과 의미

- 청소년멘토링 활성화 정책의 필요성은 기존의 청소년 지원방식에 대한 반성과 청소년멘토링의 효과 검증, 사회 각계 각층에서의 청소년멘토링에 대한 요구 확대, 청소년멘토링에 대한 이해 부족과 효과적 운영을 위한 지원시스템의 미흡, 청소년멘토링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법제도, 프로그램 개발 및 기타 지원의 필요 등에서 찾아볼 수 있음.
- 청소년멘토링의 활성화는 정책적으로 청소년 자원봉사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사회참여 수단의 개발, 청소년문제 예방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절감, 미래 국가사회 발전의 중요한 인적 자원으로서의 청소년역량 개발, 소외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한 정서적 지지, 사회통합에의 기여 등의 의미를 가짐.

2) 국내·외 청소년멘토링 정책현황

- 우리나라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의 다문화학생멘토링, 탈북청소년멘토링, 보건복지부의 휴먼 네트워크, Korea Hands의 청년봉사단 멘토링, 여성가족부의 사이버멘토링 '위민넷', 법무부의 청소년동반자멘토링, 고용노동부의 창조캠퍼스멘토교실 등 각 정부부처에서 다양한 멘토링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산발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함.
- 미국의 경우에 멘토/전국멘토링파트너십(Mentor/National Mentoring Partnership), BBBS(Big Brothers Big Sisters) 등 멘토링의 여러 부문에서 프로그램을 향상시키기 위한 접근이 시도되어 왔음. 또한, e-멘토링, 또래멘토링, 집단멘토링, 팀 멘토링, 대안적인 전달 형식 및 구조, 범법자 아동 등 특정 인구 및 문화 집단에 맞춰진 서비스 등 청소년멘토링에 관한 혁신적인 프로그램도 실험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호주 빅토리아 주정부에서는 청소년멘토링 지원을 위해 멘토링역량구축계획(Mentoring Capacity Building Initiative, MCBi)에 2005년부터 3년 동안 2백 50만 달러를 지원하였으며, 2008-2009년에서 2011-2012년까지의 4년 동안에 특히, 교육, 고용, 훈련을 위해 3백 9십만 달러를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 청소년멘토링 활성화를 위해 빅토리아 정부가 설정한 목표는 멘토링 투자에 대한 통합적이고 증거에 기반 한 접근, 질높은 멘토링프로그램에의 청소년 참여 확대, 멘토링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모든 부문의 참여 확대이며, 정책 수단으로는 현재 및 미래의 멘토링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조정을 위한 정부 내의 메커니즘, 사회적, 경제적으로 고립된 농촌 및 기타 지역의 청소년멘토링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표로 설정한 기금, 프로그램의 설계, 위험 관리, 평가 등 증거에 기반을 둔 멘토링 우수사례 지침의 제공, 청소년 멘티와 멘토로 자원봉사하게 되는 사람들에 대한 자문, 멘토링의 혜택에 대해서 조사하기 위한 중요 관계자들과의 포럼, 멘토와 코디네이터에 대한 훈련, 자원봉사 자원센터와의 네트워크, 정부 종사자의 멘토로서 자원봉사 하는 기회 제공 등임.

정책제안 1

지역단위의 멘토링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 제안 내용

- 시·군·구 단위의 멘토링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하는 방안으로 1단계(2012-2013) 기술지원, 프로

그럼 개발 및 지원, 전문인력의 양성 및 훈련의 기능을 하는 중앙청소년멘토링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하고, 2단계(2014-2015) 대중홍보, 정보 제공과 의뢰, 커뮤니티 제공의 기능을 하는 시도청소년멘토링지원센터의 설립·운영, 그리고 3단계(2015이후) 멘토링의 활동을 실질적으로 수행.

❖ 기대 효과

- 청소년멘토링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종합적인 지원체계의 구축
- 중앙단위에서의 체계적인 지원과 지역단위에서의 실질적인 멘토링 운영체계를 구축하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련 조직들이 네트워크에 적극적으로 참여 가능.

정책제안 2

단계별 청소년멘토링 전문인력 양성 방안

❖ 제안 내용

- 제1단계(2012-2014) 멘토양성 전담기관의 지정·운영, 제2단계(2015-2017) 시도단위 청소년멘토링 전담기구의 설치를 통한 멘토의 양성, 제3단계(2018년 이후) 시군구단위 청소년멘토링 전담기구의 설치를 통한 멘토의 양성을 제안하였음. 또한 전문인력의 양성은 제1단계(2012-2014)에 멘토링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결연관리자 및 슈퍼바이저 과정의 개설·운영, 제2-3단계(2015-2017, 2018년 이후)는 청소년멘토링 전문인력 양성기관 상시 멘토링 전문인력 양성 과정 운영체계의 구축을 제안하였음.

❖ 기대 효과

- 멘토, 코디네이터, 슈퍼바이저 등 멘토링 전문인력의 양성시스템 구축
- 멘토링 프로그램의 성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함.

정책제안 3

청소년멘토링 인센티브 제도

❖ 제안 내용

- 개인에게는 창의적 체험활동 이수 인증 및 다양한 형태의 포상 등을 제공하고, 단체, 시설,

기관, 기업, 종교단체 등에게는 청소년멘토링 참여 마크 사용 승인, 공신력과 사회적 인지도 제고를 위한 각종 이미지 홍보 무상 제공, 청소년멘토링 활동내용 및 성과에 따른 예산 차별지원 등이 제안되었음.

❖ 기대 효과

- 청소년멘토링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환경의 조성
- 청소년멘토링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대와 지역사회의 전문적 자원의 활용

정책제안 4

멘토링 프로그램의 체계화 추진

❖ 제안 내용

- 청소년단체, 시설, 학교, 지역사회, 기관, 기업, 종교단체, 보호시설 등 다양한 조직별 특성에 따른 멘토링 활동 프로그램 유형을 분류하고, 매뉴얼, 운영사례집 등을 제공함으로써 환경과 여건에 적합한 멘토링 프로그램 개발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음.

❖ 기대 효과

- 멘토링 프로그램의 체계화 도모
- 환경과 여건에 적합한 멘토링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

정책제안 5

청소년멘토링 참여등록제

❖ 제안 내용

- 청소년멘토링 참여를 희망하는 개인과 조직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청소년멘토링 참여등록제의 체계를 정립하여 실시할 필요.

❖ 기대 효과

- 사회적으로 멘토링활동 참여를 위한 제도적 시스템을 마련하고, 청소년멘토링 참여등록증

또는 인증서를 발급함으로써 사회적 공신력을 높임.

- 청소년멘토링에 대한 사회적 관심 사회공헌활동으로서의 위상 제고

정책제안 6

멘토링을 위한 전자정보 체계 구성

❖ 제안 내용

-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멘토링 모니터링을 위해서 전자정보 체계(EDI, Electronic Data Interchange)를 구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한 표준화된 모니터링 평가지표 개발 필요.

❖ 기대 효과

- 신속한 멘토링 평가 정보 수집과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 평가지표와 함께 평가주기를 명시함으로써 멘토링 평가환경의 표준화

정책제안 7

사회적 지원네트워크 구성

❖ 제안 내용

- 체계적인 멘토링활동의 추진과 지역사회 전달체계의 구축, 학교와 전달기관의 한계 극복, 지역사회 기업과의 연계 등을 위해서 지역사회 내 학습지원 네트워크, 진로체험 네트워크, 활동지원 네트워크, 정서·심리지원 네트워크, 행·재정지원 네트워크의 사회적 지원네트워크 필요.

❖ 기대 효과

- 청소년멘토링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과 사회적 지원네트워크의 구축

정책제안 8

청소년멘토링 관련 법·제도의 개선

❖ 제안 내용

- 멘토링활성화를 위해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활동진흥법 등의 기존 법령의 개정과, 청소년멘토링의 종합법령이 되는(가칭) ‘청소년멘토링지원법’의 제정이 필요.

❖ 기대 효과

- 청소년멘토링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체계의 구축
- 멘토링운영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 가정 아동 지원 방안 II : 청소년멘토링 시범사업 운영 및 효과측정

연구 요약

- ❖ 책임연구원 : 김경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 ISBN : 978-89-7816-961-5 (93330), 자체 보고서 번호 : 11-R09-2
- ❖ 발행처(연도)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1)

❖ 연구목적

-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멘토링 시범사업의 운영과 멘토와 멘티에 대한 효과 검증을 통해서 청소년멘토링의 청소년에 대한 유용한 가치를 확인하고, 청소년멘토링의 구조와 운영 과정에서 의 문제점 분석을 바탕으로 청소년멘토링 모델의 개발과 확산을 목적으로 하였음.

❖ 주요결과

1) 청소년멘토링에 대한 양적 효과 측정

- 단기적으로 멘토링활동 참여 후에 멘티에게 나타난 효과는 그리 크지 않았음. 멘티 전체적으로 볼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나타낸 변인은 없었음. 하지만 세부 변인별로는 남자 아동과 농산어촌 아동에게서 멘토링활동 후에 일탈행동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연령별로는 농산어촌지역의 중학생멘토 프로그램에 참여한 멘티에게서 우울감이 감소한 효과를 보인 반면, 농산어촌지역의 고등학생멘토 프로그램에 참여한 멘티에게서는 우울과 공격성이 증가하고, 학교유대감과 친구유대감이 감소하는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났음. 하지만 도시지역의 고등학생멘토 프로그램에서는 멘티의 자기유능감과 사회적 지지가 높아지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음.
- 멘토링활동 참여 후에 멘티의 생활상의 변화를 통해서 멘토링 효과를 측정한 결과에서는 70% 이상의 멘티가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음. 멘토링활동이 멘티의 태도와 학교생활 및 사회관계

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짐. 또한 이러한 멘티의 주관적인 멘토링 효과는 사회적 지지, 자기표현, 자기유능감, 우울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멘토링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은 여러 독립변수 중 멘토와의 관계, 멘토링 참여도, 멘티가 받고 있는 서비스 중 문화활동이 가장 많은 종속변수와 유의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 멘토링활동 참여 후에 멘토 전체에게 유의미하게 나타난 효과는 아동에 대한 이해였음. 성별로는 여자 멘토에게서 멘토링활동 참여 후에 아동에 대한 이해가 증가하였지만, 남자 멘토들에게는 사회적 책임감이 증가하였음. 지역별로는 도시지역 멘토에게서 아동에 대한 이해와 사회적 책임감에서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고, 농산어촌 멘토에게서는 아동에 대한 이해와 자아효능감에서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연령별로 멘토에게 나타나 효과를 살펴보면, 중학생 멘토들은 비교집단에 비해서 성취감, 자아효능감, 자아탄력성이 높아졌으나 사전점수보다 낮아졌으며, 고등학생 멘토들은 아동에 대한 이해와 사회적 책임감이 증가하였고, 대학생 멘토들은 아동에 대한 이해, 자신감, 자기표현, 자아존중감, 자아효능감, 진로성숙도가 높아졌음.
- 하지만 멘토에게 나타나 효과를 도시지역과 농산어촌지역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을 때는 다른 결과가 나타났음. 농산어촌지역 중학생 멘토의 경우에는 멘토링활동 후에 자신감, 자기유능감, 자아효능감, 자아탄력성이 증가하였고, 고등학생 멘토의 경우에는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으며, 농산어촌 대학생의 경우에는 멘토링활동 이후에 아동에 대한 이해, 자기표현, 진로성숙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도시지역 중학생 멘토의 경우에는 책임감, 이타성, 진로성숙도가 증가하였고, 고등학생 멘토의 경우에는 아동에 대한 이해, 사회적 책임감, 이타성, 성취감, 자아존중감, 자기유능감, 학교유대감이 증가하였으며, 대학생 멘토의 경우에는 자신감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멘토링활동 참여 후에 멘토의 생활상의 변화를 통해서 멘토링 효과를 측정한 결과는 학교생활과 친구관계 등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으나, 학교공부나 교사, 혹은 교수와의 관계에는 멘토링 활동의 주관적인 긍정적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음. 또한 이러한 멘토의 주관적인 멘토링 효과는 15개 종속변수 모두와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멘토에 대한 멘토링 효과는 멘토의 사회활동참여경험, 멘토링 만족도, 멘토링 기간 등과 관련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사회활동 참여 경험은 사회적 책임감, 성취감, 자아존중감, 자기유능감,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 미래에 대한 생각, 진로성숙도 등의 종속변수와 가장 관련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2) 멘토링활동의 질적인 효과 측정 분석

- 멘토링 참여 동기는 멘토의 경우에 의미있고 보람있는 봉사활동에 대한 기대, 진로 개발에 대한 기대 등으로 대부분 자발적으로 참여하였으나, 멘티는 멘티기관의 추천이나 부모의 신청에 의해서 비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었음.
- 멘토링활동이 멘토에게 미친 긍정적인 영향으로는 멘티와의 정서적 친밀감과 유대감 형성, 자아성장의 기회, 사회적 책임감과 자신감 형성, 그리고 가족 간의 관계의 개선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하지만 멘티가 뜻대로 따라오지 않는데 대한 실망감과 통솔의 어려움 등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음.
- 멘토링활동이 멘티에게 미친 영향은 양적인 효과측정에서와는 달리 다양한 영역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멘토와의 정서적 친밀감이 형성되고 있었으며, 부모, 형제 등 멘티 가족에 대한 관계 개선이 이루어지기도 하였음. 또한 학습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으며, 진로에 대한 희망도 생기는 것으로 나타났음. 한편, 멘티가 약속시간을 지키지 않는 불성실한 멘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는 경우도 나타났음.
- 멘토들의 경우에 멘토링활동 과정에서 구체적인 활동계획 수립의 어려움, 멘티를 다루는 방법의 어려움, 멘토링 장소의 부적절, 멘토링 시간의 부족 등을 활동상의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었음.

정책제안 1

❖ 제안 내용

- 멘토링활동의 주체인 멘토와 멘티의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모집과 선발을 위해서 멘토 선발에서의 엄격한 기준의 적용, 멘티가 멘토가 되는 선순환 구조를 위한 멘티 관리 프로그램의 운영, 멘토링활동에 멘티의 주도적 참여기회의 부여, 중·고등학생 멘토의 확산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함.

❖ 기대 효과

- 우수한 멘토의 선발과 교육을 통한 멘토링 효과 증진
- 멘티와 멘토의 자발적 참여에 대한 멘토링 활성화

정책제안 2

❖ 제안 내용

- 청소년멘토링활동 과정에서 멘토와 멘티의 활동을 효과적인 지원하기 위해서는 멘토, 멘티 및 부모 대상의 교육기회의 확대, 멘토와 멘티에게 멘토링 경험을 공유하게 하기 위한 멘토간, 멘티간 집단모임의 제공,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등 청소년대상 집단별 멘토링 활동 프로젝트의 개발, 청소년멘토를 중간에서 매개하는 매개자로서의 대학생 또는 성인 멘토의 참여, 멘토링에 대한 수퍼비전의 강화와 멘토 참여 동기부여 방안의 마련 등이 필요함.

❖ 기대 효과

- 다양한 청소년멘토링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 멘토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을 통한 활동상의 어려움 해소

정책제안 3

❖ 제안 내용

- 다양하고 과학적인 청소년멘토링 효과 측정을 위해서 청소년멘토링 영역별 세분화된 측정도구의 개발, 멘토와 멘티의 팀별 추적 관찰 등 양적 조사분석 방법의 다양화, 중도탈락팀과 부정적인 효과에 대한 심층 분석이 필요함.

❖ 기대 효과

- 과학적인 효과성 측정을 통한 청소년멘토링의 문제점 진단 및 해결방안 제시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I

연구 요약

- ❖ 책임연구원 : 임희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 ISBN : 978-89-7816-968-4(93330), 자체 보고서 번호 : 11-R11
- ❖ 발행처(연도)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1)

❖ 연구목적

- 이 연구는 아동·청소년 인권지표를 산출하여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전반적인 인권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아동·청소년 인권 환경의 종합적·체계적인 모니터링에 기여하고자 「국제기준대비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수준 연구」(2006-2010)의 후속연구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6개년 연구로 기획되었음.
- 이 연구의 정책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1차년도인 2011년에는 「국제기준대비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수준 연구」에서 개발한 기존의 지표체계를 유엔아동권리협약 정기보고서의 작성 지침에 따른 지표체계로 수정하고, 새로운 지표체계에 따라 아동·청소년 인권지표를 산출하고 분석하여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정책의 문제점을 보완·검토·개선할 수 있는 정책적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이 연구의 보고서는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I」과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I : 2011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통계」의 2권으로 구성하였음.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I」에서는 새로운 인권지표체계에 따라 지표 결과를 분석하고 해석하였으며, 지표의 하위영역별로 아동·청소년의 인권신장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언하였고,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I : 2011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통계」에는 이 연구의 일환으로 실시된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국가승인통계, 제40201호)의 개요 및 표본설계, 결과표를 제시하였음.

❖ 주요결과

- 새로운 지표체계는 정책적 활용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작성 지침의 클러스터 체계를 기반으로 하였으며, 이 중 「협약 이행을 위한 일반 조치», 「아동의 정의», 「일반 원칙」과 관련된 3개 클러스터를 제외한 「시민적 권리와 자유»,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장애, 기초보건 및 복지»,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특별보호조치」의 5개 클러스터를 새로운 지표체계의 영역으로 삼았음.
- 이 연구는 「국제기준대비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수준 연구」의 후속 연구로, 홀수년도에는 생존권·보호권 영역 지표, 짝수년도에는 발달권·참여권 영역 지표를 산출하도록 설계되어 있음. 따라서 1차년도인 2011년에는 (구)생존권·보호권 영역의 지표를 산출하였으며, 이는 「시민적 권리와 자유», 「가정환경 및 대안 양육», 「장애, 기초보건 및 복지», 「특별보호조치」의 4개 영역에 관한 66개 지표임.
- 「시민적 권리와 자유」 영역과 관련하여, 아동·청소년들은 학교 내에서 용모 및 복장 검사, 교사나 동료 및 선후배들에 의한 체벌, 폭력, 모욕이나 욕설 등을 많이 경험하고 있으며, 이를 인권 침해라고 생각하지만 그에 대한 대응은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학생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으로 학생의 의사를 반영하고 대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요구됨.
-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영역과 관련하여, 학대 및 부모와의 갈등 등으로 인하여 요보호 아동·청소년의 발생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요보호 아동·청소년들이 가정과 비슷한 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가정위탁이나 입양 등의 보호체계에 대한 지원 강화 및 원가정으로의 복귀를 위한 가정 내 지원 서비스 강화가 요구됨.
- 「장애, 기초보건 및 복지」와 관련하여, 장애아동·청소년의 통합교육 비율은 20% 미만이었으며, 장애아동·청소년특수학교와 일반학교는 취업률에서 큰 격차를 보임. 장애 아동·청소년의 사회적응문제나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장애에 대한 편견을 없애기 위하여 통합교육의 의무화가 요구되며, 졸업을 앞둔 장애아동·청소년들을 위한 장애아동 지원 전담기구 마련이 요구됨. 또한 전체 아동·청소년의 2~3명 중 1명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으며, 3~4명 중 1명은 행복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는 등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하였으며, 이로 인한 아동·청소년의 자살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학교 내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이나 정신건강 스크리닝 사업의 보급·내실화가 요구됨.

- 「특별보호조치」 영역에서는 아동·청소년들이 초과근무나 최저임금 미보장 등의 경제적 착취로 인하여 근로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적피해를 입었을 시 보호자나 경찰에 알리지 않고 혼자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감당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남. 이를 위해 연소자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엄격한 지도 점검 및 성범죄자 엄중 처벌과 더불어 경제적 착취 및 성적 착취의 피해 아동·청소년들을 구호해 줄 수 있는 상담 및 보호체계 강화가 요구됨.

정책제안 1

아동·청소년 친화지수의 개발

❖ 제안 내용

- 이 연구에서 생산한 인권지표를 비롯한 아동·청소년 관련 통계자료의 체계화를 통해 아동·청소년 인권지수 또는 친화지수를 개발해야 함. 이를 위한 학문적 논의를 본격화하여 정책적 활용성을 갖춘 지수개발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함.

❖ 기대 효과

- 아동·청소년 친화지수는 아동·청소년 정책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됨. 아동·청소년 인권지표는 아동·청소년 친화지수 개발의 기초자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음. 아동·청소년 친화지수가 개발되어 매년 지역별로 아동·청소년 친화지수를 비교하고, 지자체 평가에 반영한다면 파급효과는 클 것임. 지자체가 아동·청소년 정책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하게 하는 강력한 수단이 됨. 아동·청소년 친화지수는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아동·청소년정책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모니터링 하는 도구가 될 것이기 때문임.

정책제안 2

아동·청소년 영향평가제도의 도입

❖ 제안 내용

- 2011년 9월에 열린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58차 회기 우리 정부의 「제3·4차 통합 국가보고서」 심의에서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아동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음. 이와 같이 중요한 정책이 도입될 때에는 반드시 아동·청소년 영향평가를 하도록 법제화가 추진되어야 함. 「아동복지법」이나 청소년 관련법에 근거를 마련하거나 조례의 제정이 필요함. 아동·청소년 영향평가를 위한 지표로 이 연구에서 산출한 아동·청소년 인권지표가 활용될 수 있음.

❖ 기대 효과

- 아동·청소년 영향평가제도는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이나 사업이 아동·청소년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종의 사전 모니터링 제도라고 할 수 있음.

정책제안 3

아동·청소년 참여기구 활동과 권리 모니터링 활동의 연계

❖ 제안 내용

- 전국에서 선발된 대표청소년들(480여명)이 청소년정책의 대안을 발굴하고 정부에 정책을 건의하는 「청소년특별회의」, 2010년 5월 현재 176개 지자체에 설치 운영 중에 있는 「청소년참여위원회(지역에 따라 청소년차세대위원회)」, 청소년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운영위원회」 그리고 한국아동단체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한민국아동총회」와 같은 아동·청소년 정책 참여기구의 활동이 권리 모니터링 활동과 연계되어야 함. 이러한 참여기구들의 주된 활동은 아동·청소년 권리 모니터링 활동으로 개선되어야 하며, 권리 모니터링 활동 결과를 지자체나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형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 함. 핀란드의 「청소년의 목소리」¹⁾가 좋은 사례임. 아동·청소년 참여기구 이외의 채널도 마련되어야 함.

❖ 기대 효과

- 이와 같은 제도의 도입여부를 아동·청소년 친화지수에 반영하고 지자체 평가지표에 반영하게 되면, 지자체가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1) 핀란드 수도 헬싱키에서는, 매년 3월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시장과 초·중·고 학생대표들이 참석하는 ‘시장과 함께 하는 청소년의 목소리 회의’가 열린다. 참석한 학생들이 학교별로 발표를 하면, 토론을 거쳐 예산배당을 투표로 확정한다. 회의에는 시의원, 시민단체, 언론사대표나 기자들도 초대되어 방청할 수 있다(<http://blog.daum.net/hakbumosangdam/5809056>, 검색일: 2011. 10. 22)

있음. 권리 모니터링 활동은 인권교육의 수단으로서도 매우 효과적임.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인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학습하고 체험함으로써 인권교육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음.

정책제안 4

온라인 아동·청소년 권리 모니터링 활동 지원

❖ 제안 내용

- 인터넷 모니터링 활동이나 모바일 앱을 통한 모니터링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모니터링 활동이 크게 활성화될 것임. 모바일 또는 웹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은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나 「청소년희망센터」에 둘 수도 있고, 민간단체에 둘 수도 있을 것임. 별도의 시스템 구축 없이 SNS를 통한 모니터링 활동도 가능할 것임. 권리 모니터링 활동 교육 자료가 개발·보급되면, 온라인 모니터링 활동은 쉽게 확산될 수 있음.

❖ 기대 효과

- 온라인 권리 모니터링 활동 기반을 구축하게 되면,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의 활발한 활동을 유도할 수 있음.

정책제안 5

아동·청소년 권리 모니터링 활동 교육 자료의 개발·보급

❖ 제안 내용

- 아동·청소년 인권지표는 곧 아동·청소년 권리 모니터링 지표이기도 함. 그렇지만 아동·청소년이나 학부모 또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종사자 등이 실제로 아동·청소년 권리 모니터링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인권지표는 적절히 재가공될 필요가 있음. 그 결과물은 아동·청소년 권리 모니터링을 위한 체크리스트의 형태일 수도 있고, 안내서나 매뉴얼 같은 형태일 수도 있을 것임. 이와 같은 교육 자료들은 아동·청소년들의 권리 모니터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함. 교육 자료들은 아동·청소년의 연령발달에 맞춰 수준별로 개발되어야 함. 취학 전 어린이용에서부터 초등학교 저학년용 및 초등학교 고학년용과 중학교용, 고등학교용, 성인용과 같이 학교급이나 연령발달에 맞는 교육 자료가 체계적으로 개발되어야 함.

❖ 기대 효과

-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이나 단체들이 자체적으로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지표 또는 교육 자료가 개발·보급되면, 아동·청소년의 인권 개선을 위한 좋은 수단이 될 뿐 아니라, 아동·청소년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의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도 있음. 이런 활동을 통해 종사자들이 인권의식을 높이고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교육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음.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이나 기관 등의 평가지표에 자체 인권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여부 항목을 포함시키는 것도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는 좋은 수단이 될 것임.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I : 총괄보고서

연구 요약

- ❖ 책임연구원 : 최인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 ISBN : 978-89-7816-984-4(93330), 자체 보고서 번호 : 11-R22
- ❖ 발행처(연도)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1)

❖ 연구목적

- 과학기술의 발달과 지속적인 주거 및 여가 환경의 개선은 삶의 만족도를 높였고, 각종 질환을 감소시키는데 일조하였다. 그러나 청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유해환경과 과도한 입시위주의 교육환경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의 정신건강 실태를 파악하고 국내·외의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정책 및 법·제도 현황을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음.

❖ 주요결과

1) 아동·청소년들의 정신건강 실태 조사 부문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도구를 개발하여 전국단위 대규모 조사를 실시하였음. 전국 16개 시·도의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일반계고와 전문계고를 포함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남, 여 청소년 9,435명을 최종 분석대상자로 하였음.
- 본 조사영역은 개인영역, 가족영역, 학교영역 및 지역사회 영역 등 크게 4개의 대 영역으로 구분하였고, 각 대 영역별로 세부영역과 문항을 구성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주요 요인에 대한 조사결과 우울과 불안, 자살 생각이나 계획, 스트레스 등의 경우 여자가

남자보다 더 높은 평균점수를 나타냈으며,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정서조절, 낙관주의 등 개인 내(內) 적응적 심리요인과 게임중독, 비행 등의 경우는 남자가 여자보다 평균점수가 더 높았음. 또한 대체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각 세부요인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나타냈음(게임중독, 자살계획의 경우 중학생이 다른 교급에 비해 더 부정적 결과를 보였음). 한편 가족 구성별로는 조손가정이나 한부모가정의 응답자가 양부모가정보다 좀 더 부정적인 결과를 나타냈음.

- 본 실태조사결과를 통해 파악할 수 있었던 것은 양부모 가정의 아동·청소년에 비해 조손내지 한부모 가정의 아동·청소년들이 여러 요인에서 취약하게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임. 이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정신건강의 도모를 위해서는 가정 내에서의 부모자녀관계가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함.
- 이에 부모자녀간의 긍정적인 관계형성과 올바른 의사소통을 위해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확대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긍정적인 부모자녀관계의 형성에 어려움이 있는 조손이나 한부모 가족에 대한 물질적·비물질적 지원이 확대되어야 할 것임.
- 또한 우울증이나 불안, 자살, 게임중독, 정서적 불안 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저해하는 심각한 위협요인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를 조기에 예방할 수 있는 개선책 마련이 요구됨.

2)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부문

-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정신건강 증진 관련 정책 현황을 파악하고, 정신건강 검진 및 정신건강 상담, 보건의료서비스 전달체계 등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정책시스템을 분석하여 그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논의하고, 학교와 지역사회의 접근방법, 개별적인 사례관리접근방법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자 하였음.
- 이를 위해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선진 외국의 효과적인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정책을 분석하였으며, FGI 인터뷰를 통하여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의 수요를 분석하고 정책적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건강향상, 건강위험요인감소, 질병위험요인의 조기 발견 등의 차원에서 핵심 사안을 도출하였음.
- 또한 전문가, 교사, 공무원 등 정신건강 담당자들 대상의 델파이조사를 통하여 학교,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중앙정부 및 지자체에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하였음.
- 아울러 이상의 연구내용에 대한 결과를 근거로 학교 차원, 교육청 및 지자체 차원 그리고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정책 개선 방안들에 대해 제안하였음.

3)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관련 법·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부문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에서는 국내·외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관련 법·제도의 현황을 포괄적으로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법·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있는지를 고찰하였음.
- 이를 위해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정신보건법, 아동과 청소년복지 관련법(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등)과 교육관련 기본법(학교보건법, 교육기본법, 초·중등학교법, 학교폭력예방대책에관한 법률 등) 등 부문별로 국내외 관련 주요 법·제도 현황을 분석하고 현행 법령상의 개념 및 정의 등 효과적인 법·제도적 정신보건 증진방안, 전달체계 등 관련기관 지원방안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였음.
- 독일, 미국, 호주 등 주요 외국의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및 예방 관련 지원 법·제도의 현황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법·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음.
- 또한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위하여 관련 주요 부문의 전문가 15인을 엄선하여 전문가를 대상으로 델파이 설문조사를 2회에 걸쳐 실시하였음.
- 설문조사 결과 현재 아동·청소년 정신건강관련 개별법에 분산 규정되어 있는 주요 규정들을 분석하고 개별법이 각각의 특성을 갖추고 있으나 각각의 입법목적을 넘어 이들을 통합할 수 있는 통합법 제정의 필요성과 가능성 그리고 그 문제점 등을 분석하였음.
- 이상의 연구내용들을 근거로 현행 법령의 문제점 및 향후 법·제도 측면에서의 개선을 위하여 요청되는 법체계, 정의, 전문기관, 전문인력 확보와 관련 종사자의 처우개선, 교육 및 훈련체계구축, 예방과 사회복귀 지원 등과 같은 주요 쟁점에 대하여 개선방안과 정책제안을 제시하였음.

정책제안 1

정신건강 위기 청소년의 조기발견 체제 구축

❖ 제안 내용

-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각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그 위기에 따라 계층화할 필요가 있으며, 개별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위기에 따라 그 수준을 구분할 수 있도록 준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 기대 효과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의 위기도에 따라 지원 방법과 내용을 개발하고 적용함으로써 서비스 제공자나 수요자 모두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며, 그 실효성도 담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정책제안 2

지역사회 정신건강 서비스 체계의 연결망 구축

❖ 제안 내용

- 지역사회에 있는 다양한 민·관 정신건강 서비스 자원에 대한 파악이 이뤄져야 할 것이며, 각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의 내용과 운영을 담당하는 전문인력, 참여자의 특성 등 상세한 정보가 조사되어야 함. 또한 지역사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전문병원 및 종합병원, 정신보건센터, 시·도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사설 상담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관련 실무자들과 학교 내 전문상담교사를 비롯한 관련 업무 담당자, 정신과의사와 임상 및 상담심리학자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들 간의 연계도 이뤄져야 할 것임.

❖ 기대 효과

- 현행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정책 관련 정책은 관련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에 한계점을 나타내고 있음. 이에 지역사회 정신건강 서비스 체계의 연결망을 구축함으로써 정책 추진의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정책제안 3

학교 정신건강 증진 사업의 개선

❖ 제안 내용

- 학교 내 협의체(보건교사·담임교사·상담교사·생활지도담당교사·지역사회 전문가 등)를 구성·운영하는 등 통합적·집중적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학생 정신건강관리 담당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과정을 운영하여 선별검사와 추후관리에 필요한 학교 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임.

❖ 기대 효과

- 학생 정신건강관리 담당 교사의 전문성 제고를 통해 정신건강 취약 아동·청소년의 조기 발견과 적절한 조치가 가능할 것이며, 정신건강 증진과 관련한 교육과 상담을 통해 부적응 아동·청소년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정책제안 4

부모자녀관계 지원정책 강화

❖ 제안 내용

- 학교 및 지역사회의 정신건강 증진 정책은 포괄적으로 부모자녀의 정신건강증진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함. 스트레스 및 우울 등을 경험하는 자녀에 대해 부모가 적절히 대처해 줄 수 있도록 교육과 기술적 지원정책이 필요함.

❖ 기대 효과

- 아동·청소년 대상 정책의 많은 부분은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지원이 담보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정책 추진 결과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정책제안 5

전문성 있는 검사 도구를 사용하여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 마련

❖ 제안 내용

- 정책개선을 위해서는 정기적인 정신건강 지표의 생산이 필수적이며, 현재 실시되고 있는 학생 정신건강 검진체계로는 대표성과 신뢰성 있는 통계생산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성인대상으로 5년마다 실시하는 정신질환역학조사와 같이 아동·청소년 대상 정신질환역학조사체계의 마련이 시급함.

❖ 기대 효과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의 정신건강

상태의 변화 양상에 대한 파악이 가능할 것이며, 아울러 정신건강 상태에 대한 전문적 도구를 개발하여 실제 조사에 활용함으로써 조사결과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정책제안 6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통합법의 제정에 대한 논의 필요

❖ 제안 내용

- 중장기적으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국무총리실 등을 중심으로 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관련 부처(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등)간, 중앙과 지자체 간 정책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공공/민간의 협력체제의 법·제도적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가칭,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법률」과 같은 통합법 제정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있음.

❖ 기대 효과

- 부처에 따라 산발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관련법에 대한 통합 작업을 통해 서비스의 중복을 막을 수 있으며, 또한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정책과 관련하여 보다 효과성 있는 정책을 추진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정책제안 7

정신보건관련 기본법 보완

❖ 제안 내용

- 정신건강 관련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현행 「정신보건법」은 주로 ‘중증 정신질환자 중심’인데 비하여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사업’이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고, 아동·청소년복지 관련법에는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보호조치가 부재한 실정이어서 이에 대한 보완 규정을 마련해야 함.

❖ 기대 효과

- 정신보건법에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지원과 관련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중증의 정신건강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며, 비용대비 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정책제안 8

정신보건법상 고위험가정에 대한 특별지원규정의 명문화

❖ 제안 내용

- 기존의 정신보건법상 규정의 범위를 넘어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새터민가정,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의 지원을 위한 별도의 지원규정을 명문화 시킬 필요가 있음.

❖ 기대 효과

- 취약계층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특별지원 규정을 명문화함으로써 이들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에 대한 장치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며, 아울러 향후 발생할 사회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효과성 있는 정책 방안이라 사료됨.

정책제안 9

정신건강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개선

❖ 제안 내용

- 국가·사회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 법적 규정이 임의규정인 부분을 의무규정으로 하여 법적용 실효성을 높여야 하며, 지역사회에서 아동·청소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가정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접근방안과 자원, 시스템 부족을 해결하기위한 관련 법 규정을 정비하여야 함.

❖ 기대 효과

-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많은 임의규정들을 가능한 의무규정으로 전환함으로써 정책 추진 결과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통계·기초 분야

-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 II • 이경상 | 73
- 한국 아동·청소년 종합통계체계 구축 연구 • 김기현 | 77
- 청소년 국제교류정책 현황 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 윤철경 | 84
-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 I • 최창욱 | 92
-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 II • 안선영 | 96
- 아동·청소년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방안 연구 I • 장근영 | 107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 II

기초분석보고서: 청소년의 활동참여 실태

연구 요약

❖ 책임연구원 : 이정상(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ISBN : 978-89-7816-966-0(93330), 자체 보고서 번호 : 11-R10-1

❖ 발행처(연도)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1)

❖ 연구목적

- 이 연구에서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 1차년도 중1 패널 자료 중 문화활동, 체험활동, 동아리활동, 팬덤활동, 컴퓨터 활용 등 중학교 1학년 청소년들의 활동참여관련 실태를 살펴보고 정책적 제언을 제시해보고자 하였음.

❖ 주요결과

- 청소년의 문화활동 참여실태를 살펴보면, 청소년의 문화활동 참여횟수의 평균값은 3.43로 나타났음. 중학생이 된 이후 문화활동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경우가 20.6%(485명)나 되었음.
-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실태를 살펴보면, 봉사활동을 제외한 다른 체험활동의 참여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봉사활동의 참여비율은 60.7%로 가장 높았고, 모험·개척활동(36.0%), 직업체험활동(32.3%), 건강·보건활동(31.7%), 문화·예술활동(21.7%), 자기개발활동(21.6%), 과학·정보활동(15.6%), 환경보존활동(11.5%), 교류활동(9.0%)의 순으로 나타났음. 봉사활동을 제외한 다른 체험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36% 미만으로, 전체적으로 청소년들의 체험활동 참여율이 낮은 것을 알 수 있음.
- 청소년의 동아리활동 참여실태를 살펴보면, 교내 동아리활동 참여정도는 참여한다가 28.9%로 10명 중 3명 정도는 교내 동아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교외 동아리활동 참여정도는 참여한다가 7.2%로 전체 10명 중 1명 정도가 교외 동아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전체적으로 청소년들의 동아리활동 참여율이 낮은 것을 알 수 있음.

- 청소년의 팬덤활동 참여실태를 살펴보면, 먼저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운동선수가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73.8%로 나타났음. 청소년들의 팬덤 활동은 홈페이지 방문(2.50)이 가장 높은 수준이었고, 이어서 팬클럽/팬카페 가입(2.16), 책/CD 등 구입(1.99), 댓글 달기(1.83), 방송국/공연장 등 가기(1.56), 동영상 올리기(1.49), e-mail/팬레터 쓰기(1.37), 팬미팅 참석(1.24)의 순이었으며 선물보내기(1.22)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청소년의 컴퓨터 활용실태를 살펴보면, 학습 이외 정보/자료(음악·영화 등) 이용(3.26)과 게임/오락(3.10)이 높은 이용빈도를 나타냈으며, 이어서 공부/학습 정보검색(2.80), 개인홈페이지 활동(2.48), 채팅/메신저(2.47), 댓글 달기(2.44), 동호회/카페/커뮤니티 활동(2.25), 전자우편(2.01)의 순이었고, 온라인 사고팔기(1.88), 19세 이상 사이트 이용(1.24)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음. 청소년들이 컴퓨터를 공부/학습의 용도보다는 주로 음악·영화 감상, 게임·오락 등 여가 및 취미생활의 용도로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정책제안 1

청소년 체험활동 참여증대

❖ 제안 내용

-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한국 청소년들의 체험활동 참여 정도는 많이 낮은 편임. 반면, 체험활동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참여 만족도는 비교적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음. 청소년 체험활동 참여 증대를 위해서는 첫째, 청소년 체험활동 참여시간의 증대가 필요함. 둘째, 초중고 담당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수연수시에 체험활동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강의를 하는 것도 필요함. 셋째, 지역사회의 여러 청소년 활동관련 인프라를 학교와 연계하는 것도 중요함.

❖ 기대 효과

- 청소년 체험활동 참여시간 증대에 따른 청소년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 강화
- 초중고 담당교사들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여 청소년 체험활동의 교육적 관심도 제고
- 청소년 체험활동의 학교-지역사회 연계 강화
- 청소년 체험활동 참여증대를 통한 미래형 인적자원 개발 강화

정책제안 2

청소년 동아리활동 참여증대

❖ 제안 내용

-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한국 청소년들의 동아리 활동 참여 정도는 그리 많은 편이 아님. 반면, 교내외 동아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참여 만족도는 많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청소년 동아리활동 참여 증대를 위해서는 첫째, 학교내 청소년 동아리활동의 참여시간이 증대되어야 할 것임. 둘째, 아울러 중고등학교에서 활동담당 교사연수시에 청소년 동아리활동 참여의 효과와 중요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

❖ 기대 효과

- 학교내 청소년 동아리활동 참여시간 증대에 따른 청소년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 강화
- 초중고 담당교사들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여 청소년 동아리활동의 교육적 관심도 제고
- 청소년 동아리활동 참여증대를 통한 미래형 인적자원 개발 강화

정책제안 3

청소년 단체·시설과 연계한 청소년 미디어교육 활성화

❖ 제안 내용

- 학교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청소년 기관과의 유기적인 연계체제 구축을 통해 보다 전문적이고 실용성 있는 미디어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할 것임. 첫째, 학교와 청소년단체·시설의 역할분담, 둘째, 지역 단위 미디어교육(프로그램) 거점 시설 지정·운영, 셋째, 미디어 교육·프로그램 전담인력 양성체제 구축, 넷째, 미디어 교육·프로그램 가이드북 및 사례집 제작·보급이 필요함.

❖ 기대 효과

- 학교와 청소년단체·시설의 역할분담 및 지역 단위 미디어교육(프로그램) 거점 시설 지정·운영을 통한 청소년 미디어 교육의 효율성 제고
- 미디어 교육·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한 청소년 미디어 역량 강화
- 청소년 미디어교육 활성화를 통한 미래형 인적자원 개발 강화

정책제안 4

청소년 기본계획수립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

❖ 제안 내용

- 청소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나 청소년 활동정책을 수립하고자 할 때, 이번에 분석한 기초분석결과뿐만 아니라 향후 청소년들의 활동참여실태의 종단적 변화양상을 분석한 결과 등을 과학적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기대 효과

- 청소년 기본계획 수립의 과학성 제고
- 청소년 활동정책 수립의 과학성 제고
- 청소년 활동관련 정책의 활성화를 통한 미래형 인적자원 개발 강화

한국 아동·청소년 종합통계체계 구축 연구

연구 요약

❖ 책임연구원 : 김기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ISBN : 978-89-7816-955-4(93330), 자체 보고서 번호 : 11-R06

❖ 발행처(연도)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1)

❖ 연구목적

- 이 연구는 첫째, 국가기초통계 생산이라는 측면에서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분야 통계 현황을 분석해 보고자 함. 특히 조사통계의 생산과 관련하여 아동·청소년 종합실태조사, 청소년 가치관조사 등 통계청 승인통계의 핵심지표들을 중심으로 대표성, 정확성, 일관성 등을 원자료(raw data)를 분석해 문제점을 분석하였음.
- 둘째, 아동·청소년 국가기초통계자료의 활용과 관련하여 국가통계의 제시 방식과 관련하여 핵심지표 영역체계(안)를 수립하고자 함. 여기에서는 선행 연구들에서 제안하고 있는 영역체계를 검토하고 전문가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전문가 델파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핵심지표 중 청소년 정책대상과 관련한 규모추정 방안도 제시하였음.
- 셋째, 아동·청소년 분야 통계자료의 관리와 관련하여 현재 실태를 살펴보고 통계관리 및 활용시스템 구축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함. 특별히 종합통계체계 구축과 관련 김형주 외(2008)가 제안한 아동·청소년 종합통계시스템 구축 방안에 따라 2010년부터 개발·운영 중에 있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아동·청소년 데이터아카이브」를 종합통계시스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확대 개편하는 사업을 제안하고 추진하였음.

❖ 주요결과

1) 아동·청소년 통계자료 현황 분석

- 통계자료의 생산과 관련하여 아동·청소년대상 국가승인통계의 구축현황을 살펴보면 총 27종의 통계가 있어 전체 승인통계 중 0.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조사유형별로 살펴보면, 정기실태조사는 21종이며 패널조사는 6종이었음.

- 아동·청소년분야의 보고통계는 수기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시설과 종사자, 시설 이용자의 실시간 변동사항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통계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음. 동시에 청소년분야의 경우 시설과 종사자에 관한 통계정보가 부실하며 특히 청소년 활동 분야의 경우 승인통계로 작성 중인 보고통계가 없는 실정임을 지적하였음.
- 조사 통계와 관련하여 패널조사는 잘 갖춰져 있으나 비정기실태조사가 많고 아동·청소년대상 정기실태조사가 부족하여 아동·청소년 정책수립의 과학적 근거마련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였음.
- 개별적인 조사 수준에서 아동종합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조사의 시의성 측면에서 조사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다시 환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음. 다음으로 청소년종합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학교밖 청소년 규모 추정 등을 위해 가구조사로 추진 중이나 조사 예산의 부족으로 16개 시도 수준에서 정책대상 규모를 추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하였음. 이어서 청소년 유해환경접촉 종합실태조사는 11년 간 이루어진 조사 자료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원자료에 관한 공개 역시 되고 있지 않고 조사업체의 빈번한 변경과 조사 자료의 단순 공표 외에 활용도가 높지 않은 상태임을 지적하였음. 마지막으로 청소년가치관조사의 경우 대표성과 관련하여 표본 가중치를 제시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으며 일관성 문제와 관련하여 낮은 문항유지율을 보여주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기하였음.
- 이어서 통계자료의 관리·활용과 관련하여 현행 아동·청소년 관련 통계정보자료 제공 체계는 통계정보자료 및 원자료 이용 시 각 부처별 통계정보DB시스템(혹은 홈페이지)을 별도로 방문하여 서비스를 이용해야 함으로 접근성 및 편리성 부족으로 인해 활용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이용자 불만을 야기하고 있음을 지적하였음.

2) 아동·청소년 핵심지표 영역체계(안) 구축

- 이 연구는 선행 연구들에서 제안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영역체계를 검토하고 전문가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전문가 델파이조사를 통해 핵심지표에 대한 영역체계(안)를 제시해 보았음. 제안한 영역체계(안)의 대분류는 ① 인구 및 가족, ② 교육 및 역량, ③ 건강 및 심리, ④ 보호 및 안전, ⑤ 활동 및 문화, ⑥ 복지 및 권리, ⑦ 비행 및 범죄, ⑧ 진로 및 직업, ⑨ 정책 및 인프라 등임.

- 이 연구에서 개발한 아동·청소년 핵심지표 영역체계(안) 및 핵심지표는 이번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구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통계시스템에 적용될 예정이며 수집 가능한 수준에서 해당 정보를 온라인 상에 제공하고자 하며 동시에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상시적으로 데이터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임.
- 아동·청소년 핵심지표와 관련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는 정책 대상에 관한 정확한 규모 추정을 하는 것임. 아동·청소년 인구 규모나 학생 인구 등은 통계청의 인구센서스에 기초한 추계인구 자료나 주민등록인구,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 자료의 학생 인구 자료 등을 통해 규모 추정이 가능한 상황이지만 구체적인 정책 대상으로 학교 밖 청소년이나 위기청소년 등에 관한 규모 추정은 뚜렷한 통계적 추정치가 제공되고 있지 않은 상황임. 이와 관련 이 연구는 아동·청소년 분야에서 핵심지표 중 하나인 학교밖 청소년, 방과후 나홀로 청소년, 빈곤청소년 및 니트(NEET)에 관한 논의를 검토해 보았음.

3) 아동·청소년 종합통계(관리·활용)시스템 구축

- 현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NYPI)에서 제공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데이터 아카이브」 홈페이지(<http://archive.nypi.re.kr>)는 2009년부터 NYPI에서 생산하고 있는 통합조사 원자료와 기초분석보고서, 코드북, 설문지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의 승인통계 자료 중 아동·청소년종합실태조사와 가치관조사, 유해환경접촉종합실태조사 등에 대해서도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이번 연구를 통해 추진되는 사업은 기 구축된 시스템의 유지보수 및 신규 데이터 구축 및 상호연동을 통하여 통계데이터의 관리 시스템을 보다 체계화하고 구축된 DB에 대해 다차원 통계 및 분석 기능을 추가하여 사용자 목적과 편의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음. 특히 관련 데이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DB 구축은 물론 통계청의 KOSIS를 비롯해 정부 부처에서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는 OLAP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용자가 손쉽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음.
- 아동·청소년 종합통계시스템 구축 사업의 내용은 먼저 아동·청소년 관련 통계데이터 DB를 체계화하는 것임. 이번 연구에서 제안한 아동·청소년 핵심지표 영역체계(안)에 따라서 관련 통계데이터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중에 있으며 현재 1979년 이후 매년 발간되고 있는 청소년백서에 수록된 통계 정보를 지표화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는 작업을 진행 중임. 청소년백서 외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통합조사 자료와 아동·청소년종합실태조사, 청소년 가치관 조사

등 부처에서 생산한 통계청 승인통계자료에서 핵심지표와 관련된 통계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동시에 여성가족부와 통계청 간에 아동·청소년 관련 국가승인 통계 DB를 연계하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음.

- 아동·청소년데이터 아카이브 통계시스템은 아동·청소년 관련 DB와 연동하여 ① 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에 관한 통계자료 제공, ② 청소년통계 Portal이라는 단일창구를 통하여 통합된 정보를 One-Stop 서비스로 제공, ③ 통계생산자와 수요자간 교류 확대의 창구로서의 역할, ④ 개인맞춤 서비스를 통해 통계이용자의 저변 확대 등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특별히 이번 아동·청소년통계시스템 구축은 OLAP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구성하여 통계정보이용자들이 웹상에서 통계표 분석기능을 이용하여 원하는 형태대로 정보를 가공할 수 있는 정보 분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임.

정책제안 1

❖ 제안 내용

- 보고통계의 보완·신규 생산과 관련하여 장기적으로 아동·청소년시설의 기본현황과 종사자, 재정, 시설 이용자의 실시간 변동사항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교육통계시스템과 유사하게 입력 프로그램을 제작해 배포하고 각 시설은 이 입력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각 시설의 통계 정보를 입력한 후 온라인 상에서 DB로 실시간 전송될 수 있도록 통계입력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단기적으로 지난 몇 년간 이루어진 각종 시설 평가 관련 정보를 통해 각 아동·청소년시설의 기본현황과 종사자, 재정, 시설 이용자 현황을 수집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함.

❖ 기대 효과

- 보고통계 체계화를 통해 과학적 증거기반 정책 수립 기초 자료 제공.

정책제안 2

❖ 제안 내용

- 추가적으로 수집되고 관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보고통계로 이 연구는 청소년 활동과 관련하여 수련시설 현황 및 종사자, 이용자 통계, 청소년활동지원센터 현황 및 종사자, 이용자 통계, 청소년 쉼터 현황 및 종사자, 이용자 통계,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현황 및 종사자,

이용자 통계 등을 제안함. 그리고 청소년(상담)지원센터 현황 및 이용자 통계는 현재 청소년 상담 지원 현황 및 청소년전화(1388)운영만이 통계청 승인통계로 되어 있는데 각 시도 및 시군구의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시설 및 종사자 현황 정보 역시 수집되고 관리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음.

❖ 기대 효과

- 청소년시설 및 기관 현황 및 정책 수요 파악에 기여.

정책제안 3

❖ 제안 내용

- 장기적으로 조사통계와 관련하여 추가 생산이 필요한 조사는 청소년 활동·문화 실태조사와 진로아르바이트 실태조사, 위기청소년 규모 추정과 관련된 조사 등이며 특별히 청소년 활동·문화 실태조사는 청소년 활동참여 실태, 문화예술체험 참여 실태, 자원봉사활동 참여 실태, 동아리활동 참여 실태, 정보문화활용 실태 등이 포함될 필요가 있음. 단기적으로 현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과 한국청소년상담원에서 실시하거나 실시했던 청소년활동실태조사나 위기청소년실태조사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국가승인통계로 실시하는 문제를 검토해야 하며 반드시 정기실태조사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안할 필요가 있음. 동시에 각종 분야별 실태조사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면 아동종합실태조사와 청소년종합실태조사의 위상을 강화하고 시의성과 관련하여 조사 주기를 5년이나 3년이 아닌 1년 단위로 진행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기대 효과

- 조사통계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통해 정책 기여도 제고.

정책제안 4

❖ 제안 내용

- 대표적인 국가승인통계에 대한 대표성, 정확성, 일관성 등을 분석해 본 결과, 표본가중치를 산출하지 않은 조사가 발견되었으며 무응답률이 상식 이상으로 매우 높은 조사도 발견되었고 시계열 유지와 관련된 일관성 문제 역시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었음. 장기적으로 조사통계의 품질 제고를 위해서는 조사 예산의 충분한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며 증거기반 정책 추진의

중요성에 관한 인식 제고와 더불어 통계 전담 조직 및 인력의 배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단기적으로 통계청의 품질 진단과는 별도로 현재 생산되고 있는 아동·청소년 분야 조사통계 전반에 걸친 통계품질 진단에 관한 연구 용역 등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특별히 청소년유해 환경접촉 종합실태조사는 2012년 조사 추진 전에 자료 생산, 관리, 활용 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기대 효과

- 조사통계의 효율적인 운영과 안정적인 생산을 통해 청소년정책의 증거기반 추진 기틀 마련.

정책제안 5

❖ 제안 내용

- 아동·청소년 분야와 관련하여 각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에서 생산된 정기실태조사뿐만 아니라 비정기실태조사와 비승인국가통계 자료들을 수집하고 담당 공무원이 개별적으로 보관관리하는 수준에서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여 관리하도록 광범위한 점검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임. 이를 위해서 장기적으로 청소년정책 주관부처인 여성가족부에 통계전담조직을 두고 겸임인력이 아닌 통계전담인력을 배치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

❖ 기대 효과

- 내실있는 청소년 통계 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청소년 통계 활용도 제고.

정책제안 6

❖ 제안 내용

- 현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아동·청소년 데이터 아카이브를 자체 출연금으로 구축 중이며 여성가족부의 위탁사업으로 추진 중인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에서도 각종 정책 자료의 수집과 관리,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음. 이는 주로 조사통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향후 교육통계와 마찬가지로 보고통계의 체계 정비와 DB 구축, 관련 시설의 입력 프로그램 배부 등을 통해 통계 전반에 관한 시스템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 법이나 훈령 등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함. 단기적으로 관련 부처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상

담원 등 관련 기관과의 연석회의 등을 마련하여 현 실태에 관한 점검과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음. 이러한 연계협력을 통해 조사통계는 물론 보고통계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며 중앙 단위의 재정비 이후 지자체 단위로 확산해 나가는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임.

❖ 기대 효과

- 조사통계 및 보고통계 활용도 제고를 통해 청소년정책 추진 과학화 실현.

청소년 국제교류정책 현황 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연구 요약

- ❖ 책임연구원 : 윤철경(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 ISBN : 978-89-7816-971-4(93330), 자체 보고서 번호 : 11-R12
- ❖ 발행처(연도)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1)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청소년 국제교류정책의 현황과 성과를 분석하고 미래지향적 청소년 국제교류의 발전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음.

❖ 주요결과

1) 청소년 국제교류정책 현황

- 청소년교류정책의 추진체계는 지난 20년간 청소년교류정책 주무부서의 잦은 통폐합, 청소년교류센터,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로의 분산 등 안정되어 있지 못함.
- 청소년교류 주무부서로서 교류추진을 위한 산하기관을 가지고 있으나 인원과 예산이 빈약하여 허브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이 불가능함.

2) 청소년 국제교류사업 현황 및 평가

- 정부는 국제교류 목적을 ‘글로벌 시민역량 증진’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이를 성취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 국제교류사업 참가자 선발에 있어 선발경쟁이 저조한 사업이 있으며 참가자가 대학생과 고등학생, 대도시 거주 학생에 편중되어 있음.
- 사회적 배려대상자 비율이 아직 저조한 상태에 있음. 사업별 예산과 참가자 부담률이 1.6%에서 60.9%로 편차가 큼.
- 사업별 추진체계가 국제교류사업 수행능력이 있는 소수 단체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사회 일반과

청소년시설·단체에 국제교류기회를 확산시키는 데 제한적임.

- 국가 청소년 국제교류사업의 청소년교류활동 성과가 한 곳에 모이지 못하고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으며 적극적으로 공개되어 활용되고 있지 못함.

3) 청소년의 국제교류활동 참여효과

- 2010년 국제교류사업 참여자의 사업별 국제교류이해증진도(정보획득, 교류소통)와 글로벌역량증진도를 살펴보았을 때 해외자원봉사와 국가간 청소년교류사업의 성과가 높게 나타남.
- 2010년 국제교류사업 참여자들은 국제교류 참여효과를 ‘문화에 대한 폭 넓은 시각’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소통과 네트워크의 기회’, ‘삶에 대한 진지한 성찰의 기회’라고 인식하였음.

4) 청소년 국제교류정책에 대한 델파이조사 결과

- 청소년 국제교류정책의 중점적 대상은 현실적으로 대학생과 고등학생이 될 수밖에 없으나 초·중학생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연령별·수준별 프로그램을 개발함.
- 취약계층 청소년에 대한 국제교류기회 제공을 확대하기 위해 현재와 같은 쿼터제를 유지함.
- 지방자치단체 국제행사 지원 사업을 축소하고 해외자원봉사와 같은 개발협력형 사업을 확대함.
- 청소년 국제교류 전문가 양성을 위해 교과목과 실습을 포함한 국제교류지도자 양성과정을 개설·운영함.
- 국제교류 추진체계로서 국제교류사업을 조율, 조정, 평가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함.
- 청소년 국제교류사업의 홍보를 위해 청소년교류사업을 통합브랜드로 개발하여 홍보할 필요가 있음.

5) 청소년 국제교류 해외정책 동향

- 유럽연합은 청소년의 시민성 함양, 사회통합과 결속을 위하여 13-30세 해당 청소년과 청소년지도자를 지원하는 Youth in Action 프로그램을 지원함. Youth In Action은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에 따라 해당자를 지원함. Youth In Action의 사업영역에는 청소년문화교류, 자원봉사활동, 인접국가와의 문화교류, 청소년단체 등의 지원 등이 포함되고 있음.
- 독일은 국제교류 추진체계로서 공익법인인 청소년 국제교류사업협회(IJAB)를 청소년 국제교류의 총괄기관으로 두고 있음. 독일의 국제교류사업 목표는 취약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통해

사회적 통합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음. 더불어 국제교류사업의 질 관리, 기관 및 지도자들의 역량 강화 등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미국은 청소년 국제교류를 발전시키기 위해 교육문화상호교류법을 제정·실시하고 있으며, 교육과 문화교류에 강조점을 두고 있음. 9.11 사태이후 이슬람 국가와의 교류를 강화해 나가고 있음. 미국의 대표적인 국제교류프로그램으로는 교환학생제도, 이슬람권에 미국식 영어수업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등이 있음.

정책제안 1

청소년 국제교류사업에 대한 홍보 강화

❖ 제안 내용

- 국제교류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성과 관리를 통해 경험담/사례 등을 활용한 테마가 있는 스토리 제작, 국제교류의 성과 측정 결과 등을 발표
- 청소년 국제교류사업의 브랜드화: 청소년이 참여하는 국가의 국제교류사업명을 하나로 통일 (Young Korean Partners)하여 다양한 형식으로 홍보
- 청소년 국제교류 온라인 허브 구축, SNS, 학교 학부모 교육자료 등 다각적 홍보 수단 확보
- 청소년 국제교류지지 세력을 조직화 : 청소년단체·시설 외 해외원조단체 등 일반시민단체,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시설, 대안교육시설, 지역아동센터 등 다양한 그룹이 참여할 수 있게 함.

❖ 기대 효과

- 청소년 분야 뿐 아니라 글로벌 역량 함양에 관심이 있는 학부모, 일반사회시민단체 등의 관심을 조직화하여 청소년 국제교류사업에 대한 지지도를 확대
- 청소년 국제교류정책의 안정적 기반 확보

정책제안 2

체계적인 사업 평가시스템 구축

❖ 제안 내용

- 청소년 국제교류사업의 질 관리를 위해 청소년 국제교류사업 가이드라인을 마련

- 청소년 국제교류사업별 담당자를 두어 단계별 모니터링과 컨설팅 실시
-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 및 환류를 통해 프로그램 질 관리
- 국제교류추진위원회 구성 : 국제교류 전문가 그룹으로 위원회 구성
- 사업 운영 가이드라인 및 평가 매뉴얼 작성
- 사업별 평가위원 배치 : 사업계획단계, 사업진행단계, 사업성과평가단계 등 3차레에 걸쳐 모니터링 및 컨설팅 실시
- 국제교류사업 워크숍 개최 : 사업성과 발표 및 공유

❖ 기대 효과

- 국제교류사업의 성과를 증대하기 위한 프로그램 요소를 인식시킴으로서 프로그램 질 개선, 사업성과평가결과에 기초한 사업개선 및 개편 추진

정책제안 3

청소년교류센터 조직 및 기능 확대

❖ 제안 내용

- 국가 청소년교류사업의 리모델링 및 신규 사업(Young Korean Partners) 실행
- 청소년 국제교류 총괄·조정·운영지원·평가 등 청소년 국제교류 허브 기능 수행
- 대표적 국제교류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국제교류센터의 기능 확대
- 청소년 국제교류사업 허브 기능 탑재
- 센터의 조직 구성
 - (1) 기획부: 신규사업 개발 및 사업 총괄 조정, 사업 홍보
 - (2) 사업부 : 국가간 교류사업, 대표사업 실행
 - (3) 대외지원부 : 시설, 단체 등의 국제교류 지원, 전문가 양성과정 운영, 국제교류 정보망 운영
 - (4) 평가부 : 국제교류 평가 매뉴얼 제작 및 평가위원회 운영, 평가 실시

❖ 기대 효과

- 청소년 국제교류 전담기관의 기능 안정으로 추진체계의 집중 및 효율화 실현

정책제안 4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의 역할과 기능 분담

❖ 제안 내용

- 청소년 국제교류를 발전시키기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의 기능과 역할을 명시적으로 제시하여 그 기능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사업주체간 협력을 강화
- 중앙정부 : 국제교류사업 홍보 및 대국민 인지도 제고 / 국제교류 전문가 양성 / 국제교류정책 수립 예산확보 및 배분
- 지자체 : 지역특성을 살린 국제교류사업 개발 및 실시 / 지역 내 청소년단체,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 지역 국제교류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예산확보
- 민간단체 : 전문가 육성 등 단체의 국제교류 역량 강화 / 청소년 맞춤형 사업 개발 / 단체별 특화·전문화된 사업 개발

❖ 기대 효과

- 청소년 국제교류활동의 체계적 촉진

정책제안 5

청소년 국제교류 전담부서 설치

❖ 제안 내용

-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10년간 국제교류 전담부서를 확대하고 외교정책의 변화에 맞게 Campus Asia 등 학생교류사업 및 교육원조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왔음.
- 동북아협력기구 등의 설치로 향후 유럽연합과 같은 동북아 청소년교류사업이 강화되어야 함. 청소년교류정책 주무부서로서 국제교류정책을 입안·추진할 전담부서가 없어 선도적인 국제교류정책을 개발하여 추진하고 있지 못함. 정책적·사회적 수요에 부응한 정책개발·추진을 위해 전담부서 설치가 필요함.
- 청소년 국제교류는 청소년에 대한 전문성 외에 국제적 감각, 외국어능력, 외국청소년 및 외국문화에 대한 이해, 국제업무 추진능력 등 별도의 전문성이 요청되므로 일반 청소년활동을 다루는 청소년활동진흥과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부서로 조직

❖ 기대 효과

- 국제교류를 청소년활동의 일부가 아닌 독립된 활동으로 영역 설정(활동, 교류, 상담 등)

정책제안 6

관련 법안의 정비

❖ 제안 내용

- 청소년교류활동의 개념에 대한 법 개정

청소년교류활동의 개념을 ‘지역 간 · 남북 간 · 국가 간의 다양한 교류를 통하여 공동체의식 등을 함양하는 체험활동’에서 다음과 같이 변경

(청소년활동진흥법 제 2조 제4항)개정안: 제2조 ④ “청소년교류활동”(이하 “교류활동”이라 한다)이라 함은 글로벌 다문화시대 문화적 다양성을 체험하고 범지구적 문제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통해 글로벌역량과 글로벌 시민성을 함양하는 활동을 말한다

- 청소년교류정책의 목표에 대한 법 개정

청소년교류활동의 정책목표를 ‘청소년교류활동을 진흥시키는 것과 청소년교류활동의 사후지원을 통해 교류활동의 성과를 지속시키고 발전시키는 것’에서 다음과 같이 변경.

(청소년활동진흥법 제 57조) 개정안: 제 57조(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청소년들이 국내외에서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유목적적 활동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청소년 교류정책 대상에 대한 법 개정

현재 청소년 교류정책 대상에는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단체, 국제기구와 민간단체가 포함되어 있다. 국제기구를 대상에서 제외한다.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보호 · 복지시설, 대안교육시설 등을 추가하여 취약계층, 위기청소년의 국제교류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청소년을 직접적인 정책대상으로 명시하여 청소년이 주체적, 자발적으로 기획하는 교류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청소년에는 학생, 근로청소년, 무업청소년을 등을 명시하게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제53조(청소년교류활동의 진흥) 개정안: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교류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통해 청소년교류전문가를 양성하여 청소년시설 등에 배치, 학교와 지역사회에서의 청소년교류활동을 촉진한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또는 청소년시설·단체가 국내 외 교류전문 단체, 또는 교류활동 등 필요한 정보를 얻고 해당 기관과 협력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54조 3항) 개정안: 제54조(국제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기구가 국제 청소년교류활동을 시행할 때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청소년들이 함께 하는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후).

(청소년활동진흥법 제 53조 2항) 개정안: 제53조(청소년교류활동의 진흥)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활동시설과 청소년단체,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보호·복지시설, 대안교육시설 등에 대하여 교류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교류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 54조 1항) 개정안: 제54조(국제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지방자치단체·국제기구 또는 민간 등이 주관하는 뿐 아니라 학생, 근로청소년, 무업 청소년등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실행하는 교류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 청소년 교류정책수단으로 ‘국제기구와 민간기구의 국제교류활동을 지원(동법 제54조 3항)’을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청소년들의 공동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으로 변경한다. 또한 청소년교류활동의 진흥을 위해 ‘· 청소년교류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통해 청소년교류전문가를 양성하여 청소년시설 등에 배치, 학교와 지역사회에서의 청소년교류활동을 촉진한다. · 청소년, 또는 청소년시설·단체가 국내 외 교류전문단체, 또는 교류활동 등 필요한 정보를 얻고 해당 기관과 협력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조항을 추가한다.

제54조(국제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기구가 국제청소년교류활동을 시행할 때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청소년들이 함께 하는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후).

- 청소년활동진흥법 상 청소년교류 전담기관으로 규정되어 있는 청소년교류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능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58조 1항) 개정안: 제58조(청소년교류센터의 설치·운영) ① 국가는 제53조 내지 제57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교류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가. 국가 청소년교류사업 개발 및 추진
- 나. 국가 청소년 교류사업 성과관리와 홍보
- 다. 청소년교류사업 평가 및 컨설팅
- 라. 동북아협력기구의 청소년교류사업 추진 및 담당
- 마. 청소년 국제교류 정보망 구축·운영
- 바. 청소년 국제교류 전문인력 양성 및 배치

(청소년활동진흥법 제 〇〇조) 신규 법안 추가:

제5〇조(청소년교류추진위원회 설치·운영) ① 국가는 청소년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여성가족부 장관을 장으로 하는 청소년교류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게 한다.

- 가. 청소년교류사업 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 나. 청소년교류사업 평가 및 컨설팅에 관한 사항
- 다. 청소년교류센터 등 교류전담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 라. 청소년교류사업의 성과관리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기대 효과

—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 I : 총괄보고서

연구 요약

- ❖ 책임연구원 : 최창욱(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 ISBN : 978-89-7816-974-5, 자체 보고서 번호 : 11-R13
- ❖ 발행처(연도)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1)

-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수행되는 다년연구이며, 표준화된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를 개발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임.
 - 올해는 제1차년도 연구로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안)를 개발하는 것이 주목적임. 이를 위하여 청소년 도덕성 하위영역 설정, 하위영역별 구성요소 추출,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 초안 개발, 제1차 예비검사를 통한 수정·보완, 2차년도 연구추진계획 제시 등을 추진함.

- ❖ 주요결과
 - 1) 청소년 도덕성 하위영역 설정 및 하위영역별 구성요소 추출
 - 기존 선행연구에서 다루었던 다양한 도덕성 관련 논의들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도덕성 관련 이론들 중 Rest의 4구성모형을 기본모델로 연구를 수행
 - 도덕적 감수성은 Volker(1984)의 논의를 바탕으로 상황지각 감수성, 결과지각 감수성, 책임지각 감수성을 구성요소로 선정
 - 도덕적 판단력은 대표적인 구성요소로 정의(Justice)를 들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6가지 발달단계를 제시
 - 도덕적 동기화는 선행연구 분석을 통하여 도덕적 중심성, 도덕적 통합성, 긍정성을 구성요소로 선정
 - 도덕적 품성화는 Rest가 핵심요소로 지목한 인내, 자아강도, 수행기술을 구성요소로 선정

2)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 개발을 위한 연구를 설정

- Rest의 4구성요소를 중심으로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안)를 개발하기 위한 개발틀을 설정
- 도덕적 판단력은 한국적 상황에 보다 부합하게 기존도구(DIT)를 활용하여 검증을 하고, 도덕적 감수성, 도덕적 동기화, 도덕적 품성화 검사도구는 신규로 제작

3)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안) 개발

- 도덕성 하위영역별 검사도구의 개발방향과 초안을 제시하였고, 연구진협의회, 전문가검토 등의 과정을 거쳐 초안을 수정·보완
- 도덕적 판단력은 문용린(2011)이 개발한 기존 KDIT를 원용했고, 도덕적 감수성은 친구의 심부름, 절박한 수행평가, 점심시간 등 3가지 딜레마, 도덕적 동기화는 상재의 결정, 부서진 작품, 버스 안에서 생긴 일 등 3가지 딜레마, 도덕적 품성화는 콘서트를 가다, 어머니의 심부름, PC방에서 등 3가지 딜레마를 선정하였고, 각 딜레마는 하위구성요소 3개당 2문항씩 구성. 각 딜레마마다 응답자의 허위반응 체크를 위한 허구문항 구성

4) 제1차 예비검사(pilot test) 실시

- 도덕적 감수성의 경우 신뢰도가 .80을 넘어서는 비교적 양호한 수치로 나타났지만, 세 가지 딜레마 중 친구의 심부름 딜레마와 관련된 문항들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연구에서 이 딜레마 자체의 교체 필요성 제기
- 도덕적 판단력의 경우 신뢰도가 .62로 나타나 문용린 교수가 실시한 1994년도 KDIT .52 보다는 높았고, 2011년도 KDIT .61과는 비슷한 양상을 보임. 장기적으로는 Lind 교수가 개발한 MJT(Moral Judgement Test)의 장점들을 접목한 새로운 조사도구의 개발 모색 필요
- 도덕적 동기화의 경우 신뢰가 .858으로 양호한 수치를 나타냄. 하지만 요인분석 결과 도덕적 동기화의 3구성요소 모형의 적합도는 지지되지 않음. Rest 제자 그룹들이 1요인모형으로 도덕적 동기화를 측정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향후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 도덕적 품성화의 경우 대체로 .70이상으로 나타남. 요인분석 결과 어머니 심부름과 관련된 문항들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연구에서 이 딜레마를 교체할 필요성 있음.
- 예비조사를 통해 수정·보완된 1차년도 최종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안)는 도덕적 판단력 3개 딜레마와 도덕적 감수성, 도덕적 동기화, 도덕적 품성화 각 2개 딜레마로 구성함.

5)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의 차년도 연구방향과 과제 제시

- 세계윤리학회의 발표내용 등 최근의 연구동향 추가
- 검사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강화방안 제시
- 검사도구의 딜레마 정교화, 문항수 조정 및 Rest 4구성요소간의 상관성 검증 방안 제시

정책제안 1

중앙부처 차원

❖ 제안 내용

- 청소년 도덕적 역량측정 도구의 표준화와 실용화

❖ 기대 효과

- 청소년 도덕성 향상을 위한 국가정책 및 프로그램 모니터링 및 평가의 기초자료, 청소년 도덕성 개발을 위한 정부 정책 방향과 과제의 우선순위 설정의 기초자료, 선진국 대비 우리나라의 청소년 도덕성 실태와 취약분야 파악의 기초자료, 중단연구 추진의 필요성 제시, 청소년 도덕성 향상을 위한 정책적 투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입증하는 기초자료로 활용

정책제안 2

학계 및 관련 학회 차원

❖ 제안 내용

- 2차년도 공동연구 등 다양한 형태로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의 표준화를 위한 후속연구 참여, 개발된 검사도구를 바탕으로 청소년 도덕성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의 개발 및 개선, 정책과제 설정 등 정책적 뒷받침 필요

❖ 기대 효과

- 도덕성 교육목표 및 성취도 평가틀 제시를 통해 한국 교육체계에서 도덕성 교육의 비중 강화를 유도

정책제안 3

학교, 청소년 기관, 청소년시설 및 단체 차원

❖ 제안 내용

- 학교교육과정의 개선 및 도덕교육의 성과에 대한 평가 및 진단의 기초자료, 창의적 체험활동 등 청소년 체험활동의 성과 진단, 청소년기관, 시설 및 단체의 청소년 인성 프로그램의 성과 진단 및 프로그램의 지속성 여부 판단의 기초자료, 청소년기관, 시설 및 단체의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적 지원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입증하는 기초자료, 도덕성 검사도구에 포함된 덕목을 중심으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활용

❖ 기대 효과

-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지적정서적 효과성 측정을 통해 활동프로그램의 질적 향상 및 활동프로그램의 가치와 의미에 대한 정책적 근거자료 제시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 II : 총괄보고서

연구 요약

- ❖ 책임연구원 : 안선영(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 ISBN : 978-89-7816-980-6(93330), 자체 보고서 번호 : 11-R21
- ❖ 발행처(연도)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1)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2년에 걸쳐 이루어지는 연구로서, 2010년에 수행된 1차년도 연구에서는 취업, 부모로부터 분가, 결혼과 출산을 통한 가족형성 여부를 성인기 이행 기준으로 가정하고, 센서스테이터와 패널데이터를 비롯한 다양한 통계자료를 사용하여 국내외 청년들의 성인기 이행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살펴봄.
- 2011년에 수행한 2차년도 연구에서는 한국사회의 청년들이 “성인됨”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는지를 고찰함. 기존 관점에 따르면 현재 청년들은 성인의 역할을 수행하는 시기를 연기하면서 의존적인 존재로 생애전략을 구성한다고 할 수 있음. 그러나 새로운 성인됨의 유형, 성인됨의 재구성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함. 본 연구를 통해 현재 한국사회의 청년들이 성인이 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며,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함.
- 본 연구의 세부과제의 하나인 ‘성인기 이행의 성별차이 연구’에서는 성인기 이행에 있어 성별 간 차이를 고찰하고, 성별화된 성인기 이행과정과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젠더 불균등한 문제를 드러냄으로써 한국사회 청년들의 성인기 이행이 양성평등적이고 균형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점과 이를 위해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였음.
- 본 연구의 두 번째 세부과제인 ‘취약위기계층 청년의 성인기 이행에 관한 연구’는 경제적, 사회적으로 구조적 소외를 경험해 온 취약위기계층 청년의 성인기 이행 경험을 그들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이들의 원활한 성인기 이행을 위해 필요한 정책적 지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하였음.

- 본 연구의 궁극적 목적은 한국사회의 성인기 이행에 대한 다면적 이해를 통해 한국사회 청년세대가 원활한 성인기 이행을 하기 위해 어떠한 요구를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에 근거한 정책제언을 하는데 있음.

❖ 주요결과

1) 현재 시기에 대한 인식

- 청년들은 현재 자신이 처한 시기를 많은 가능성이 있는 시기,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시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기, 자신의 모습을 만들어 가는 시기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경제적 배경에 따라 청년들이 현재 시기를 인식하는 방식에서 차이를 보임. 경제적 수준이 높은 청년들은 현재 자신이 처한 시기를 자유를 누리는 시기라거나 스스로 생각하는 법을 배우는 시기라고 여기는 등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았으나, 경제적 수준이 낮은 청년들은 불안정한 시기 또는 걱정이 많은 시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더 높게 나타났음.

2) 성인의 기준

- 청년세대와 부모세대 모두 성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으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가족을 안전하게 지키고, 부양하며, 자녀를 양육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을 성인의 기준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흡연이나 음주가 허용되는 것(허용행동), 과음을 하지 않는 것(규범준수), 부모로부터의 분가(부모님과 함께 살지 않는 것)는 성인의 기준으로 중요도가 매우 낮았음. 세대 간 인식 비교에서 주목할 만한 차이를 보인 항목은 ‘최소한 한명의 자녀를 두는 것’으로, 부모세대에 비해 청년세대는 자녀 출산을 성인의 기준으로 중요시 하는 정도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동일한 조사도구를 활용한 외국의 조사결과와 비교한 결과, 한국사회에서는 성인의 기준으로 가족형성 및 가족부양, 자녀양육 능력에 대해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개인의 행동(과음이나 피임 등)과 정서(감정조절), 부모로부터의 경제적, 물리적 독립에 대해서는 중요시 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았음.

3) 성인으로 인식하는 상황과 성인기 과업 수행시기

- 조사대상 청년들은 직장에 있을 때 자신을 성인으로 인식하는 정도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자녀와 있을 때와 지역사회일원으로 참여할 때 순으로 자신을 성인으로 인식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자신을 성인으로 인식하는 정도는 경제활동 여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음.
- 전통적으로 주요 성인기 과업으로 간주되어 온 학교교육 종료, 취업, 결혼, 첫아이 출산, 부모로부터의 독립을 하기에 바람직한 시기를 조사한 결과, 각 성인기 과업에 대한 연령규범이 우리사회에서 뚜렷하게 존재하며, 이러한 연령규범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 남자의 학교교육 종료시기로 청년세대와 부모세대 성인 모두 만 25세~29세를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으며, 여자의 경우에는 더 이른 연령인 만19세~24세에 대한 응답이 많아, 성별에 따른 바람직한 학교교육 종료시기를 다르게 보고 있음을 알 수 있었음. 또한 첫 취업 시기에 대해서는 청년세대와 부모세대 모두 만25세~29세를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첫 취업 시기에 대한 연령 규범은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 결혼과 첫 아이를 가져야 할 시기에 대해서는 청년세대와 부모세대 모두 남자의 결혼과 첫 아이를 갖는 시기를 대체로 만30~34세로 보고 있는 반면, 여자의 결혼과 첫아이를 갖는 시기는 만25세~29세로 보는 인식이 강하게 나타났음.
- 남자와 여자가 부모로부터 분가하여 독립하는 바람직한 시기로 청년세대와 부모세대 모두, 남자는 만30~34세, 여자는 만25~29세로 보는 응답이 많았음.
- 조사대상 여자청년보다 남자청년들이 여성들의 결혼과 첫 출산에 대해 더 이른 연령대를 바람직하게 보는 반면, 여자청년들은 여자들의 결혼과 출산, 그리고 부모로부터의 분가·독립에 대해 남자청년이나 부모세대보다 더 늦은 연령대를 선택한 비율이 높았음.
- 청년들은 부모세대보다 각 성인기과업을 위한 시기를 대체로 늦게 보고 있었고, 여자청년들은 남자청년들보다도 더 늦은 시기를 선택한 경우가 있어 성인기 과업 시기에 대한 세대 간, 성별 차이가 확인됨. 특히 경제수준이 낮은 청년들보다 경제수준이 높은 청년들에게서 성인기 과업을 좀 더 늦은 시기에 수행하는 것을 바람직하게 보는 것으로 나타났음.

4) 성인기 이행과 관련된 과업들

- 청년들보다 부모세대 성인들이 그리고 남자청년보다 여자청년들이, 또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우리사회에서 성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4년제 대학 졸업’ 수준의 교육을 받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자녀 교육의 기대수준과 관련하여, 낮은 경제수준과 낮은 부모학력 및 직업을 가진 부모들은 자녀의 교육수준에 대한 기대도 낮게 나타났다.
- 청년들이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이유는 실질적인 취업과 진로 준비, 낮은 학업성적, 경제적인 어려움 순으로 나타났다.
- 청년들 중 약 38%는 경제활동을 통한 소득이 있었는데, 그중 과반수가 100만원 미만이었으며, 75~80%의 청년들이 부모님께 생활비와 교육비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었음.
- 청년세대와 부모세대 모두 자녀의 성인기 이행에 있어 대학교육비용, 결혼지원 및 주택구입과 같은 일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바람직하게 보는 경향이 강했는데, 특히 성인의 응답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이러한 부모의 경제적 도움에 대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학교재학 중 아르바이트 경험 이유로서 경제수준이 낮은 청년은 생활비와 학비를 벌기 위해서, 그리고 경제수준이 높은 청년은 사회경험을 쌓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 청년들이 구직 시 겪는 어려움으로는 경험부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학력과 기술, 자격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많았고, 여자청년의 경우 외모 또는 신체적 결함으로 인해 구직 시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청소년기 시절 교육과 진로, 생활에서의 부모의 개입정도를 보면, 특히 학교성적에 대한 개입 정도가 높았고, 이러한 교육적 개입에 있어서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직업이 전문/경영/관리직일 경우 부모의 교육적 개입수준은 더 높았음.
- 고등학교 재학시절의 학업성적과 경제수준에 따라 자아존중감 수준이 차이가 있었으며, 또 남자보다는 여자청년이 그리고 학업성적과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자아통제감이 낮게 나타났다.

5) 발현성인기와 성인기 기준 설문문항에 대한 요인분석

- 발현성인기 설문문항의 요인분석 결과 6개 요인이 추출되었는데, 첫째, 자신에 대한 집중, 둘째, 불안정성, 셋째, 자유와 가능성, 넷째, 독립, 다섯째, 타인에 대한 책임, 여섯째, 불명확한 (어중간한) 정체감임.
- 성인의 기준에 대한 설문문항의 요인분석 결과 청년세대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6개 요인이 추출되었고 부모세대에 대해서는 8개 요인이 추출되었음. 두 집단 간에 공통으로 도출된

요인은 첫째, 가족부양 및 자녀양육 능력, 둘째, 규범준수, 셋째, 허용행동, 넷째, 연령이행임. ‘가족부양 및 자녀양육 능력’에 포함된 문항은 두 집단 간 다소 차이가 있지만 ‘규범준수’, ‘허용되는 행동’, ‘연령이행’ 요인에 해당되는 문항은 청년조사와 부모세대조사에서 동일하게 나타났음.

정책제안 1

건강한 성인기 이행지원을 위한 사회문화 구축

❖ 제안 내용

- 청년들이 원활한 성인기 이행을 할 수 있도록 개인적인 역량을 개발하고, 필요한 제도적인 지원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제도화하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의 문화를 청년들의 성인기 이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성하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함. 이를 위해 나눔의 사회 문화 창출과 가족친화적 가치교육 강화를 제안함.
- 나눔의 사회 문화 창출을 위한 기부 및 자원봉사 활성화
-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교육 강화

❖ 기대 효과

- 가족이기주의 타파와 부의 세습을 당연시 하는 사회인식의 개선을 통해 건전한 자본주의 문화 구축
- 나눔을 경험을 통해 건강한 자기정체성, 자립심, 책임감 형성
- 결혼과 출산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비혼과 결혼 지연으로 인한 출산률 저하 방지

정책제안 2

청소년기 사회 참여 활성화

❖ 제안 내용

- 청소년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 기대 효과

- 사회구성원으로서 공동체에 갖는 책임의식이 강화되고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유능감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정책제안 3

청소년 진로교육의 강화 및 범위 확대

❖ 제안 내용

- 진로교육의 강화 및 범위 확대

❖ 기대 효과

- 장기적인 인생의 경로에서 수행해야 할 다양한 성인의 역할들에 대해 생각해보고 현실적인 계획을 수립해볼 수 있는 기회 제공

정책제안 4

취약위גיע층 가정 지원 정책

❖ 제안 내용

- 기존 정책의 확장 및 장기적인 차원에서의 가족지원 정책이 요구됨
- 취약위גיע층 청년 지원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야 함
- 지원 정책을 수도권외 지역으로 확대·홍보해야 함

❖ 기대 효과

- 취약위גיע층 청년자녀의 성인기 이행을 도울 수 있는 부모의 역량 강화
- 가정불화 및 폭력을 경험한 취약위גיע층 청년의 심리·정서적 건강 회복
- 가정지원 서비스의 지역간 격차 해소

정책제안 5

취약위기계층 교육지원 정책

❖ 제안 내용

- 전문계 고등학교의 진로 지도 강화
- 학교의 정서 지원 프로그램 강화
- 전문대 교육 내실화
- 취약계층 청년들에 대한 대학등록금 지원의 확대와 지원 방식의 개선 필요

❖ 기대 효과

- 약화된 가정의 보호·양육 기능 보완
- 전문대학에 진학한 취약위기계층 청년의 노동시장 경쟁력 강화
- 취약계층 청년들의 대학교육 및 계층이동 기회 확대

정책제안 6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보호정책

❖ 제안 내용

- 청소년 노동 전담업무부서 설치 필요
- 일상적인 노동현장의 지도점검과 청소년 근로 보호에 대한 교육 강화

❖ 기대 효과

- 노동현장에서의 청소년의 권리증대 및 처우 개선
- 특히 생계나 용돈을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취약위기계층 청소년들의 노동권과 건강권 보장

정책제안 7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현실화 및 선정 기준 개선

❖ 제안 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준을 현실화함으로써 취약계층 가정의 청소년들이 불가피하게 노동현장에 내몰리는 것을 막아야 함. 또한 가구가 아니라 개인단위로 수급자를 선정하고, 추정소득부과 지침을 완화 또는 폐지하여 실제로 일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인정대상자로 추정 받는 상황, 혹은 성인기로 이행하기 전 충분히 유예기를 거치고, 준비기간을 거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동현장으로 내몰리면서 이중의 역할을 지속해야 하는 상황을 막을 필요가 있음.

❖ 기대 효과

- 취약위גיע층 청년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학업에 집중함으로써 성인기 이행 준비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제안 8

성별화된 돌봄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 제안 내용

- 20대 여성의 결혼 지연이나 비혼 전략은 단순히 개인적 취향이나 선택의 문제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저출산이라는 국가·사회적 문제와 맞물려있는 것으로 이에 대한 적절한 정책적 개입이 요구됨. 자녀양육을 비롯한 돌봄 노동은 여성의 역할이라는 인식 개선이 시급함.
- 남성의 자녀양육 참여의 제도화 필요. 육아휴직기간 중 일정기간을 남성이 반드시 사용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함.
- 성 평등한 가족관련 태도 형성을 위한 학교교육 강화 필요

❖ 기대 효과

- 가정에서의 성별 역할 분업 관행 개선

- 여자청년이 결혼 후 가족생활 유지의 책임에 따른 부담감을 회피하기 위해 결혼을 최대한 미루거나 결혼을 하지 않는 현상 해소

정책제안 9

대학등록금 완화 정책

❖ 제안 내용

- 경제적 독립을 이루기 전 즉, 학업과 구직 과정에 있는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부모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제도가 필요함
- 우선 근본적으로 학생 등록금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대학재정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기존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나 그 가구에 속하는 학생에게 지급되던 국가장학금(연간 450만원)의 지급대상을 소득분위 3분위까지의 학생으로 확대하여 소득분위에 따라 차등적으로 장학금을 지원해야 함. 여기에 속하지 못하더라도 학생들의 경제적 여건, 기존 장학금 수혜 현황, 급격한 생활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함.

❖ 기대 효과

- 대학 등록금이 인하되면 교육비에 대한 부모 의존도가 낮아지며, 학업과 등록금 마련을 위한 아르바이트 병행이 가능해지게 되어 학업중단율도 낮출 수 있음.

정책제안 10

국가근로장학금 수혜 기회 확대 및 비과세소득화

❖ 제안 내용

- 근로장학금을 가계소득에 포함시키지 않는 정책의 추진과 함께 근로장학금 형식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적정 수준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재정지원이 필요함.

❖ 기대 효과

- 수급자 자격 박탈에 대한 우려 없이 근로장학금을 통해 적정수준의 소득 확보 가능

정책제안 11

최저임금 준수를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 및 현실화

❖ 제안 내용

- 최저 임금 준수여부를 철저히 관리·감독하는 한편 최저임금수준을 현실화하기 위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함.

❖ 기대 효과

- 근로청소년의 최저임금보장 및 처우 개선
- 아르바이트를 통해 청년들이 일정 정도의 경제적 자립 발판 마련

정책제안 12

청년주거 정책

❖ 제안 내용

- 청년층이 배제되고 있는 현 주택공급 정책 방향에 대한 수정이 필요함.

❖ 기대 효과

- 주거불안정이 결혼과 출산의 연기나 기피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태 개선

정책제안 13

청년고용 정책

❖ 제안 내용

- 단기적인 실업대책에서 벗어나 대학과 기업 그리고 정부가 연계하여 실질적으로 고용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제도적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정부 등 공공부문이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에 적극 나서는 등의 적극적인 정책 개입이 요구됨.

❖ 기대 효과

- 청년의 고용기회와 일자리의 질을 높임으로써 성인기 이행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경제적 자립이 가능한 환경 마련

정책제안 14

취업에 대한 대학교육의 책무성 강화 정책

❖ 제안 내용

- 정부는 대학의 취업률을 산정하는 방식을 더욱 공정하고 정확하게 다듬어 나가는 노력과 더불어 대학의 책무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다양하게 강구해야 나가야 함.

❖ 기대 효과

- 취업시장에서의 청년들의 경쟁력 강화

아동·청소년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방안 연구 I

연구 요약

- ❖ 책임연구원 : 장근영(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 ISBN : 978-89-7816-960-8(93330), 자체 보고서 번호 : 11-R-23-1
- ❖ 발행처(연도)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1)

❖ 연구목적

- 이 연구의 목적은 2009년에 IEA(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valuation of Educational Achievement)에서 실시한 『국제 시민의식과 시민성 교육 연구(ICCS: International Civic and Citizenship Education Study)』의 설문지를 바탕으로 2011년 현재 우리나라 아동과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는 것임.
- 조사대상을 만 14세(중학교 2학년)로 제한하였던 ICCS와는 달리, 대상의 폭을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로 확대하여, 각 학년별 데이터에 대한 비교 분석을 실시함.
- 학년별 횡단자료를 바탕으로 민주시민역량의 종단적 변화 가능성을 보여줌으로써, 아동과 청소년의 시민역량 강화와 관련된 정책 수립을 위한 실증적 근거를 제시함.

❖ 주요결과

1) 아동·청소년의 가치신념과 태도

-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적인 기본가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수준은 대부분 높았으며, 거의 모든 하위문항에 대한 응답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인식 수준을 보여줌.
- 소득격차의 해소를 중요한 민주주의적 가치로 생각하는 응답자의 비율에서 상위계층과 하위계층 사이에 다소 차이가 존재함. 대부분의 하위계층 청소년은 소득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위한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지만, 동일한 응답을 한 상위계층 청소년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좋은 시민이 갖추어야 할 시민성(citizenship)을 고전적 시민성(conventional citizenship)과 사회운동관련 시민성(social-movement-related citizenship) 나누어 살펴보았을 때, 전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매우 높았으나, 후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았음. 이런 결과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투표 참여와 같은 고전적 의미의 시민의식은 높지만 시민단체 활동과 같은 현실 참여적 성격의 시민의식은 다소 낮음을 의미함.
- 고전적 시민성은 학교급이 올라가면서 낮아지는 경향이 있음.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의 기본적인 시민성 및 시민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한 시민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사회적 평등(성평등, 인종평등, 이민자평등)에 대한 인식에서 뚜렷한 성차가 존재함.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높은 성평등 의식을 가지고 있었음. 평등 의식은 부모의 학력이나 개인의 학업 성적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남.
- 국가에 대한 애착 정도는 학년 혹은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감소하는 경향이 두드러짐.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의 83%는 우리나라의 정치 체제가 잘 되어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은 17%만이 같은 대답을 하였음. 반대로 우리나라를 떠나서 다른 나라에 가서 살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은 초등학생이 27%, 중학생이 44%, 고등학생이 55%였음.
- 초등학생의 60~70%정도는 3대 헌법기관(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에 대해 매우 혹은 대체로 신뢰한다고 응답했으나 그 비율이 중학생은 40~60%, 고등학생은 20~50%로 감소함. 특히 입법부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4학년의 63%가 비교적 신뢰한다고 응답했으나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 17%만이 같은 응답을 함. 이것은 긍정적이었던 국가기관에 대한 인식이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부정적인 태도로 변화하고 있음을 암시함.
- 대부분의 초등학생은 자신이 다니는 학교에 대해 대체로 신뢰한다고 응답했으나 중학생의 학교에 대한 신뢰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절반정도가 학교를 믿지 않는다고 응답함. 검찰과 경찰에 대한 신뢰도는 학년이 올라가면서 꾸준히 낮아지는 수치를 보임. 미디어에 대한 신뢰 수준은 초등학생조차도 높지 않게 나타남.

2) 아동·청소년의 시민참여

- 학생들의 정치 혹은 사회적 문제에 대한 관심 정도는 학년이 올라가면서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이 강한 반면, 정치 체제에 대한 신뢰도는 감소하는 경향이 강함. 정치적 관심이 많을수록 정치 체제에 대한 불신 정도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줌.

- ‘정치 참여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개인적인 믿음’을 의미하는 내적인 정치적 효능감(internal political efficacy)은 학업성적에 따라 뚜렷하게 차이가 나타남. 또한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 사이에 뚜렷한 성차가 존재하며, 이 시기에 여학생들의 정치적 효능감은 남학생들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시민적 참여가 가능한 영역에서 구체적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자기 확신(self-confidence)’을 의미하는 시민적 자아효능감(citizenship self-efficacy)은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남. 정치적 효능감과 다르게 자아효능감은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에 비해 평균적으로 높았음.
- 국내외 정치사회적 문제를 친구들과 토론하는 비율은 20%정도이지만, 부모와 토론한다는 비율은 40%정도임.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이 정치사회적 문제에 대한 대화는 또래들보다는 부모들과 하는 경향이 높음을 암시함. 국내외 소식이나 이슈를 접하는 매체로 대부분은 TV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터넷을 이용하는 비율도 50%에 가까움. 반면 신문을 이용하는 비율은 26%에 불과함.
- 학교 바깥에서 시민단체 혹은 조직에 참여해본 경험을 가진 학생의 비율은 낮은 편이었음. 특히 환경단체나 인권단체와 같이 시민 권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단체의 참여율이 현저하게 낮았음.
- 우리나라 청소년의 학내 학생활동 참여율은 다른 나라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 학내활동 참여율은 학업성적에 따른 차이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이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수록 학내 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줌.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학생회와 같은 학생활동에 참석할 자격이 주어지는 임원 선출 과정이 학교성적에 기반하는 경우가 많고, 학교운영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참여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일 것으로 추론할 수 있음.
- 미래에 시민 참여활동에 대한 의지를 합법과 비합법적 항의 행위로 나누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투표 행위나 평화적 집회 참석과 같은 합법적 항의 행위에 대해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가지고 있었음. 그러나 비합법적인 항의 행위에 대해서는 대부분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음.

3) 시민적 태도와 시민참여

- 시민성(citizenship)에 대한 인식이 높은 학생일수록 교내 학생활동 참여율이 높고, 학교 바깥에 시민단체 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남. 합법적인 시민 참여 활동에

대한 의지에서는 시민성 수준에 따른 집단 간 차이가 최대 두 배정도까지 낮음. 그러나 비합법적인 항의 행위에 참여 의지는 시민성 수준과 거의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개인의 정치적 효능감(political efficacy)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간에 교내 학생활동 참여율은 두 배 이상 차이가 있었음. 학교밖 시민단체에 참여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의 비율에서도 집단 간 차이는 거의 비슷하게 나타남. 시민적 자아효능감(citizenship self-efficacy)에 따른 집단 간 차이는 정치적 효능감에 따른 차이보다는 다소 작지만, 교내외 시민적 참여 활동 경험에서 상위와 하위 집단 간 차이는 실제로도 큰 것으로 나타남.
- 정치적/시민적 효능감은 정치적 활동에 참여할 의지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 특히 시민적 자아효능감이 낮은 집단(하위 25%)에서는 성인이 되었을 때 투표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는 응답이 50%정도로 나타남. 합법적인 저항 행위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의지가 있다는 응답비율에서도 상위와 하위 집단 간 차이는 두 배 이상 나타남.

4) 고등학교 유형에 따른 민주시민역량 비교

- 특성화고 학생은 일반고 학생보다 낮은 성 평등 의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인종이나 이민자 평등 의식의 차이는 더욱 큰 것으로 조사됨. 반면, 국가나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나 국가에 대한 애착은 일반고 학생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정치사회적 관심도, 정치 효능감, 시민적 자아효능감에서도 특성화고 학생은 일반고 학생에 비해 낮았을 뿐만 아니라 중학생들과 비교해도 낮게 나타남. 또한 정치사회적인 문제에 대해 부모 혹은 친구와 토론한 경험에 있어서도 특성화고와 일반고의 차이는 줄어들지 않음.
- 특성화고 학생의 학내 학생활동 참여율은 일반고 학생에 비해 낮았고, 보다 적극적인 시민 참여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학교밖 시민단체의 참여 경험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참여율을 보였음. 투표 참여 의지에서도 학교유형간 차이는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합법적인 항의 행위에 대해서도 특성화고 학생들의 참여 의지는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청소년들이 학내활동 및 시민 사회의 참여 의지가 다니는 학교유형에 따라 차이가 난다는 것은, 그들이 미래에 경험할 수 있는 시민 참여 활동에서 지속적인 차이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함.

정책제안 1

사회적 평등의 가치 교육 강화

❖ 제안 내용

- 학교의 교육과정에서 ‘사회적 평등’(성평등, 인종평등, 이민자평등, 계층간 평등)을 가장 우선적인 가치로 청소년들에게 전달하여야 함. 이러한 교육 목표는 남녀청소년 모두에게 동등하게 중요하지만, 특히 남자청소년들에게 보다 적절한 교육방안을 모색해야 함.

❖ 기대 효과

- 여학생은 조사된 모든 영역에서 남학생에 비해 높은 수준의 민주적인 시민역량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여학생의 사회적 평등 의식은 남학생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음. 특히 성 평등의식에서의 성차를 극복하기 위해서, 남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성평등 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사회적 평등은 공동체적 가치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사회적 통합은 민주시민 사회의 중요한 가치이므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관심, 계층 간 소득격차의 문제는 학교교육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교내 학생활동 지도과정에서도 강조되어야 함.
- 차별과 배척보다는 통합과 평등의 원칙을 우선적인 가치관으로 제시함으로써 학교와 공동체에서 발생하는 청소년들간의 집단갈등을 완화시킬 것으로 기대됨. 장기적으로 청소년들에게 사회적 평등의 원칙이 자본주의적 논리에 우선한다는 사실을 공유시키는 것은 향후 이들이 성인으로 참여할 미래 사회에서 심화될 사회적/경제적 양극화 상황에서 합의와 설득의 기반이 될 수 있음.

정책제안 2

교내의사결정에 있어 학생들의 참여기회 및 통로 강화

❖ 제안 내용

- 청소년들의 국가 및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향상시키기 위해 학교내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청소년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각급 학교의 의사결정과정에 학생의 참여기회와 권한을 확대함으로써 청소년들로 하여금 일상생활에서 정치적·사회적 참여의

기회를 자주 접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함.

❖ 기대 효과

- 국가에 대한 애착이나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학년이 올라가면서 감소하는 경향이 뚜렷함. 아동기에는 높았던 애착심이나 신뢰도가 청소년기로 접어들면서 급격하게 하락하는 원인은 청소년시기의 심리적 변화의 일부로 볼 수도 있지만, 더욱 큰 원인은 현실 정치에 대한 성인들의 피로와 불신이 청소년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추론할 수 있음. 공공기관과 법, 그리고 국가에 대한 신뢰는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의 주요 구성요인으로서 우리 사회의 선진화를 이룩하는 기반이 됨. 학교에 대한 신뢰를 향상시킴으로써 관련된 다른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향상시키는 효과가 기대됨. 학교내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은 공공에 대한 신뢰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참여경험을 증대시킴으로써 정치적인 자기효능감과 미래에 건강한 정치참여의사를 강화하는 효과가 기대됨.

정책제안 3

〈청소년특별회의〉의 실효성 및 대표성 강화

❖ 제안 내용

- 현재 운영 중인 〈청소년특별회의〉를 현재와 같은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상시적인 청소년참여제도로 강화하고, 참여청소년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등 보다 실효적인 제도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기대 효과

- 정치적 행위 능력에 대한 스스로의 믿음, 참여 활동에 대한 자기 확신은 실제 참여 행위와 성인이 되었을 때 참여할 의지에 결정적인 요인임. 따라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시민교육은 지식이나 이론 중심보다는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신념이나 확신을 길러주는 보다 현실참여적인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정책제안 4

특성화 고교대상 민주시민역량 교육 강화

❖ 제안 내용

- 일반계 고등학교와 특성화 고등학교간의 민주시민역량 수준의 격차가 뚜렷함에 따라 특성화고 (실업계 및 전문계 고등학교) 재학 청소년에 대한 시민역량 교육 강화가 시급함.

❖ 기대 효과

- 시민역량 수준과 학업성적과의 밀접한 상관관계를 고려하면, 일반고에 비해 특성화고 학생들은 고등학교 진학이전부터 상대적으로 낮은 시민성과 시민의식 수준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음. 그러나 고등학교 과정을 거치면서 학교유형에 따른 차이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은 특성화고 재학생들의 시민역량을 제고할 정책적 방안이 필요함을 보여줌. 특히 특성화고 학생들은 입학이전에 학내 학생활동 경험이 적을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학내 학생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학내 분위기 조성과 정책적 시도가 필요함.

부 록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최근 5년간 발간물 목록 | 117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직 명단 및 연락처 | 144

2011년 간행물

기관고유과제

- 11-R01 청소년활동시설 평가모형 개발 연구Ⅱ : 청소년수련관을 중심으로 / 김형주·임지연·한도희·김영애·김혁진·김인규
- 11-R01-1 청소년활동시설 평가모형 개발 연구Ⅱ : 청소년수련관 평가편람 / 김형주·임지연·한도희·김영애·김혁진·김인규
- 11-R02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형 개발 연구Ⅰ / 이기봉·김현철·윤혜순·송민경
- 11-R03 청소년수련시설 인증방안 연구 : 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집을 중심으로 / 맹영임·조혜영·김민·김영호
- 11-R04 지역사회중심 청소년공부방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 / 이유진·김영지·김진호·이용교·조아미
- 11-R04-1 지역사회중심 청소년공부방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 : 청소년공부방 현황보고서/ 이유진·김영지
- 11-R05 가족유형에 따른 아동·청소년 생활실태 분석 및 대책연구Ⅰ / 성윤숙·김영한
- 11-R05-1 가족유형에 따른 아동·청소년 생활실태 분석 및 대책연구Ⅱ : 한부모·조손가정을 중심으로 / 성윤숙·김영한
- 11-R06 한국 아동·청소년 종합통계체계 구축 연구 / 김기현·김창환
- 11-R07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중단연구Ⅱ / 양계민·김승경·박주희
- 11-R08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중단조사Ⅱ :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양육시설 이용 아동·청소년을 중심으로 / 황진구·이혜연·유성렬·박은미
- 11-R09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 가정 아동 지원방안Ⅱ / 김경준·오해섭
- 11-R09-1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 가정 아동 지원방안Ⅱ : 청소년의 지역사회참여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멘토링 활성화 정책 방안 / 김경준·오해섭
- 11-R09-2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 가정 아동 지원방안Ⅱ : 청소년멘토링 시범사업 운영 및 효과측정 / 김경준·오해섭·정익중
- 11-R09-3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 가정 아동 지원방안Ⅱ : 청소년 멘토링 운영 매뉴얼 / 김경준·오해섭
- 11-R09-4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 가정 아동 지원방안Ⅱ : 청소년멘토 훈련프로그램 개발 / 김경준·오해섭
- 11-R10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Ⅱ 사업보고서 / 이경상·백혜정·이종원·김지영
- 11-R10-1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Ⅱ 기초분석보고서 : 청소년의 활동참여 실태 / 이경상·백혜정·이종원·김지영·서우석
- 11-R11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Ⅰ / 임희진·김현신
- 11-R11-1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Ⅰ : 2011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통계 / 임희진·김현신·강현철
- 11-R12 청소년 국제교류정책 현황 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 윤철경·이민희·박선영·박숙경·신인순
- 11-R12-1 청소년의 국제교류활동 참여효과에 대한 인식 연구 / 박숙경·김소희·오세정

- 11-R13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Ⅰ : 총괄보고서 / 최창욱·임영식·이인재·박균열·박병기
- 11-R13-1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Ⅰ : 도덕적 감수성 / 박균열·홍성훈·서규선·한혜민
- 11-R13-2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Ⅰ : 도덕적 판단력 / 이인재·김남준·김항인·류숙희·윤영돈
- 11-R13-3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Ⅰ : 도덕적 동기화 / 박병기·변순용·김국현·손경원
- 11-R13-4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Ⅰ : 도덕적 품성화 / 이인재·김남준·김항인·류숙희·윤영돈

협동연구과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1-01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Ⅱ : 총괄보고서 / 안선영·김희진·박현준 (자체번호 11-R2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1-02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Ⅱ : 성인기 이행의 성별차이 연구 / 장미혜·정해숙·마경희·김여진 (자체번호 11-R21-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1-03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Ⅱ : 취약위계층 청년의 성인기 이행에 관한 연구 / 은기수·박건·권영인·정수남 (자체번호 11-R21-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2-01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Ⅰ : 총괄보고서 / 최인재·모상현·강지현 (자체번호 11-R2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2-02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Ⅰ : 조사 결과 자료집 / 최인재·모상현·강지현 (자체번호 11-R22-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2-03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Ⅰ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 최은진·김미숙·김지은·박정연 (자체번호 11-R22-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2-04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Ⅰ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관련 법·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 이호근·김영문·정혜주 (자체번호 11-R22-3)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3-01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Ⅰ : 총괄보고서 / 장근영·박수익 (자체번호 11-R23)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3-02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Ⅰ : 2011 민주시민 역량실태 조사 / 장근영·박수익 (자체번호 11-R23-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3-03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Ⅰ : 민주시민역량 교육환경 및 효과 / 김태준·이영민 (자체번호 11-R23-2)

수 시 과 제

- 11-R14 창업,기업가정신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 : 한국-핀란드 비교연구 / 안선영·김희진
- 11-R15 한·중·일·미 교교생 진로 및 유학의식에 관한 국제 비교조사 / 이경상·임희진·김진숙
- 11-R16 청소년활동 개념 재정립에 관한 연구 / 권일남·최창욱
- 11-R17 청소년 친화마을 조성방안 연구 / 황옥경·김영지

- 11-R18 소년원생의 출원 후 생활실태 및 욕구조사 / 이유진 · 조윤오
- 11-R19 저소득층 아동 · 청소년의 체육활동 참여 실태 연구 / 이기봉 · 권순용 · 박일혁
- 11-R20 지역사회 청소년 진로체험 활성화 및 연계협력방안 연구 / 김기현 · 맹영임

수 탁 과 제

- 11-R25 청소년정책평가분석센터 / 김기현 · 최창욱 · 김형주
- 11-R26 중국인과 한국인의 상대국에 대한 인식과 태도 연구 : 청소년을 중심으로 / 윤철경 · 오해섭
- 11-R27 청소년 동아리활동 인증방안 연구 / 맹영임 · 조남익 · 손익숙
- 11-R28 2011 학교문화선도학교 운영 보고서 / 김영지 · 김경준 · 성윤숙 · 이창호
- 11-R29 2011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결과보고서 :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 황진구 · 김기현 · 모상현
- 11-R29-1 2011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시설별 개별 보고서 :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 황진구 · 김기현 · 모상현
- 11-R30 2011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 · 만족도 조사연구 / 양계민 · 김승경
- 11-R31 장애청소년 대상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모델 개발 연구 / 황진구 · 유명화
- 11-R32 중도입국 청소년 실태조사 / 양계민 · 조혜영
- 11-R32-1 중도입국 청소년 지원정책개발 연구 / 양계민 · 조혜영
- 11-R33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모델 개발 시범사업 운영매뉴얼 / 이기봉 · 김현철 · 안선영 · 최창욱 · 전명기 · 이진원 · 김주희
- 11-R33-1 2011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모델 개발 사례집 / 이기봉 · 김현철 · 안선영 · 최창욱 · 전명기 · 이진원 · 김주희
- 11-R34 학교부적응(중도탈락) 학생을 위한 교육지원 방안 / 윤철경 · 최인재 · 김윤나
- 11-R35 창의적체험활동 연계 지역 코디네이터 양성 연수교육과정 및 운영매뉴얼 개발 / 안선영 · 최창욱
- 11-R36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모형 개발 / 이유진 · 김영한 · 김형모
- 11-R37 다문화 이해 제고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연구 / 조혜영 · 양계민 · 김승경
- 11-R38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보호 정책방향과 과제 / 이경상 · 김기현 · 김가람
- 11-R39 미래세대 가치관 분석 및 대응방안 / 임희진 · 백혜정
- 11-R40 '공정사회 실현' 고교생 논술대회 / 오해섭
- 11-R41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 김기현 · 임희진 · 장근영 · 김혜영 · 황옥경
- 11-R42 제7회 청소년특별회의 정책의제 / 최창욱 · 김영지
- 11-R43 2011 청소년 매체 이용 실태조사 / 박수익 · 장근영 · 김형주
- 11-R44 수요자 중심의 지역아동센터 운영 방안 연구 / 김희진 · 이해연 · 황옥경 · 이용교
- 11-R45 멘토링 활성화를 위한 운영매뉴얼 및 교재개발 연구 / 오해섭 · 김경준 · 모상현
- 11-R45-1 멘토링 운영 매뉴얼 / 김경준 · 오해섭 · 모상현 · 천정웅 · 김지혜 · 김명화 · 오정아 · 박경현 · 방진희
- 11-R45-2 멘토링 교육프로그램 / 오해섭 · 김경준 · 모상현 · 김세광 · 박선영 · 유가예
- 11-R45-3 멘토링 효과성 측정도구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 모상현 · 김경준 · 오해섭 · 박정배 · 진은설
- 11-R46 성인 · 청소년 세대 간 가치관 및 의식수준 조사 / 최인재

- 11-R46-1 청소년 가치관 및 의식수준 조사 / 최인재
- 11-R47 소년보호시설 인권상황 관련 의식조사 / 이유진
- 11-R48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장기종단 효과성연구 II / 장근영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11-S01 Becoming an Adult in South Korea(3/7)
- 11-S02 청소년 국제교류 발전방안 워크숍(3/18)
- 11-S03 동기이론의 최근 경향(4/6)
- 11-S04 통계조사에서 무응답 문제와 가중치 작성(4/14)
- 11-S05 청소년 동아리활동 실태 및 활성화 방안(4/22)
- 11-S06 청소년수련시설 인증제 도입의 의의와 방안 탐색(4/25)
- 11-S07 학교문화선도학교 워크숍(4/28)
- 11-S08 2010 고유과제 연구 성과 발표 자료집(5/13)
- 11-S09 Youth's Perception on Entrepreneurship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5/12)
- 11-S10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관련 논의의 초점들(5/19)
- 11-S11 아동·청소년 패널 제1차 콜로키움 자료집 : 서울교육종단연구 2010(5/25)
- 11-S12 아동·청소년 패널 제2차 콜로키움 자료집 : 서울시 복지패널조사(6/2)
- 11-S13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의 개념 및 지표체계 정립(5/25)
- 11-S14 사회복지시설인증제 도입방향 및 경과 : 청소년시설인증제 도입방안을 위한 시사점 모색(5/27)
- 11-S15 방과후 서비스 현황과 종단조사(5/25)
- 11-S16 다문화 종단 연구 패널 연구 방법론 I (6/15)
- 11-S17 해외 평가 동향(6/20)
- 11-S18 청소년공무방 현장실사위원 워크숍(6/20)
- 11-S19 청소년 국제교류 발전 방안 워크숍 II (6/24)
- 11-S20 학교문화선도학교 컨설팅위원 워크숍(6/24)
- 11-S21 다문화 종단연구 패널연구 방법론 II (6/29)
- 11-S22 다문화 종단연구 패널연구 방법론 III (7/11)
- 11-S23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형 개발연구 콜로키움 자료집 II :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한 학교-지역사회 연계방안(7/28)
- 11-S24 보육시설 평가인증 전개과정과 현황 : 청소년시설인증제 도입을 위한 시사점 모색(8/9)
- 11-S25 2011년 한국 아동 청소년 패널 2010 데이터분석 방법론 세미나 자료집(8/30)
- 11-S26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형 개발연구 워크숍 자료집 : 시범사업 중간발표 및 워크숍(8/18, 19)
- 11-S27 청소년수련관 인증제 도입 방안(9/1)

- 11-S28 청소년문화의 집 인증제 도입 방안(9/2)
- 11-S29 청소년멘토링 활성화 정책 대안 관련 워크숍(9/19,20)
- 11-S30 국내외 청소년 도덕성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현황과 사례(9/9)
- 11-S31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정책과제 발굴(9/28,29)
- 11-S32 한중 관계의 미래: 한국과 중국 청년의 한중 관계에 대한 인식과 역할 강화방안 한·중 국제 세미나(9/22)
- 11-S33 학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모형개발을 위한 워크숍(9/30)
- 11-S34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보호 정책 방향과 과제 토론회(10/12)
- 11-S35 중도입국청소년 지원 정책 개발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10/17)
- 11-S36 학교문화선도학교 워크숍(11/1,2)
- 11-S37 청소년 활동개념 재정립에 관한 정책 세미나(10/26)
- 11-S38 2011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전북발전연구원 공동세미나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변화와 정책방향(10/27)
- 11-S39 제1회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학술대회(11/4)
- 11-S40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11/4)
- 11-S41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의 체육활동 참여 실태 연구 콜로키움 자료집(11/2)
- 11-S42 미래세대 가치관 대응 방안(12/1)
- 11-S43 2011 한·중 청소년 정책 세미나
청소년 우대제도의 현황과 과제 : 청소년 우선개발의 이념과 행동 (12/6)
- 11-S44 청소년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델 개발 성과보고회 및 '12년 시범사업 설명회(12/9)
- 11-S45 멘토링 운영 매뉴얼 및 교재 개발 연구 세미나(12/9)

학 슬 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22권 제1호(통권 제60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3권 제2호(통권 제61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4권 제3호(통권 제62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5권 제4호(통권 제63호)

청소년지도총서

- 청소년지도총서① 「청소년정책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② 「청소년수련활동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③ 「청소년지도방법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④ 「청소년문제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⑤ 「청소년교류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⑥ 「청소년환경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⑦ 「청소년심리학」,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⑨ 「청소년상담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⑩ 「청소년복지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⑪ 「청소년문화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⑫ 「청소년 프로그램개발 및 평가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⑬ 「청소년 자원봉사 및 동아리활동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⑭ 「청소년기관운영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⑮ 「청소년육성제도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연구방법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개론」,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1 「좋은교사와 제자의 만남」,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2 「행복한 십대 만들기 10가지」,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3 「집나간 아이들 - 독일 청소년 중심」,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4 「청소년학 용어집」, 교육과학사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I : 외국의 창의적 체험활동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II : 1부 일본의 「종합적학습」 가이드 “요코하마의 시간”
 2부 일본의 「청소년체험활동전국포럼」 보고서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III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스포츠활동」 지도 매뉴얼(중·고등학생용)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IV : 청소년지도자 전문성 교육 매뉴얼 : 생활권수련시설 지도자용 / 한상철 · 길은배 · 김 민 · 김진호 · 김혜원 · 문성호 · 박선영 · 설인자 · 오승근 · 윤은중 · 이명옥 · 이은경 · 최순종 · 김영지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V : 청소년민주시민 교육 매뉴얼(중 · 고등학생용)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VI : 학교기반 지도매뉴얼 I : 핵심역량-창의적체험활동 연계 / 김기현 · 장근영 · 권해수 · 김민성 · 강영신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VII : 학교기반 지도매뉴얼 II : 핵심역량-교과(지리)수업연계 / 김기현 · 장근영 · 권해수 · 김민성 · 강영신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VIII : 청소년 수련관 기반 지도매뉴얼 I : 핵심역량-사고력 / 김기현 · 장근영 · 임영식 · 정경은 · 조아미 · 정재천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IX : 청소년 수련관 기반 지도매뉴얼 II : 핵심역량-사회성 / 김기현 · 장근영 · 권일남 · 김태균 · 김정율 · 김지수 · 김영희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X : 청소년 수련관 기반 지도매뉴얼 III : 핵심역량-자율적행동 / 김기현 · 장근영 · 권일남 · 김태균 · 김정율 · 김지수 · 김영희

기타 발간물

- NYPI YOUTH REPORT 12호 : 창의적 체험 활동(2010년12월)
- NYPI YOUTH REPORT 13호 : 소년원 교육 효과성 개선 방안(8월)
- NYPI YOUTH REPORT 14호 : 청소년 활동 지역네트워크 구축(8월)
- NYPI YOUTH REPORT 15호 : 청소년 인터넷 성매매 실태와 대응방안(9월)
- NYPI YOUTH REPORT 16호 : 위기가동 · 청소년 긴급구호 체계 개선방안 (9월)
- NYPI YOUTH REPORT 17호 : 초 · 중 · 고 창의적 체험활동 실태 조사(10월)
- NYPI YOUTH REPORT 18호 : 방화후돌봄서비스 실태와 개선방안(10월)
- NYPI YOUTH REPORT 19호 : 한국 청소년 핵심역량진단 조사(10월)
- NYPI YOUTH REPORT 20호 : 한국 청소년 건강실태 조사(10월)
- NYPI YOUTH REPORT 21호 : 한국 청소년 안전(보호)실태 조사(11월)
- NYPI YOUTH REPORT 22호 :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발전방안(11월)
- NYPI YOUTH REPORT 23호 :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조사 : 발달권, 참여권(11월)
- NYPI YOUTH REPORT 24호 : 청소년의 가족의식 · 가정생활 실태조사(11월)
- NYPI YOUTH REPORT 25호 : 해외 청소년시설 평가사례의 정책적 시사점(12월)
- NYPI YOUTH REPORT 26호 : G20 이후 청소년의 글로벌 시티즌십 강화 방안(12월)
- NYPI YOUTH REPORT 27호 : 위기가정 아동 · 청소년 복지지원방안(12월)
- NYPI YOUTH REPORT 28호 : 청소년 온라인게임중독 실태와 대응방안(12월)

2010년 간행물

기관고유과제

- 10-R01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 I / 김지경·백혜정·임희진·이계오
- 10-R02 지역사회중심 아동·가족 맞춤형 지원서비스 개선 방안 연구 / 서정아·조흥식
- 10-R02-1 아동·가족 공공지원서비스 편람 / 서정아·조흥식
- 10-R03 위기아동·청소년 긴급구호 체계개편 및 안전모니터링시스템 구축방안 연구 / 이춘화·윤옥경·진혜전·황의갑
- 10-R04 청소년활동시설 평가모형 개발연구 I / 임지연·송병국·이교봉·김영석
- 10-R05 세대간 의식구조 비교를 통한 미래사회 변동 전망 III / 이종원·오승근·김은정
- 10-R06 디지털 유해매체환경에 대한 청소년수용자중심 대응방안 연구 / 성윤숙·유홍식
- 10-R07 청소년시설 지도인력의 역량 강화 및 복지 개선 방안 연구 / 맹영임·길은배·전명기
- 10-R08 초·중·고 창의적 체험활동과 청소년활동정책의 연계방안 연구 / 김현철·최창욱·민경석
- 10-R09 청소년의 글로벌 시티즌십 강화 방안 연구 : 관련프로그램을 중심으로 / 윤철경·송민경·박선영
- 10-R10 한국 청소년 지표 조사V : 건강 및 안전(보호)지표 -총괄보고서- / 최인재·이기봉·김현주·이명선·이은경·박경옥
- 10-R10-1 한국 청소년 지표 조사V : 2010 한국 청소년 건강·안전(보호)지표 조사 자료집 / 최인재·이기봉
- 10-R10-2 한국 청소년 지표 조사V : 2010 한국 청소년 건강·안전(보호)지표 활용 분석 보고서 / 최인재·이기봉·김청송·김진호
- 10-R10-3 한국 청소년 지표 조사V : 청소년 건강실태 국제비교 조사 -한·미·일·중 4개국 비교- / 최인재·이기봉
- 10-R11 국제기준 대비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 수준 연구V : 발달권·참여권 기본보고서 / 모상현·김영지·김영인·이민희·황옥경
- 10-R11-1 국제기준 대비 한국아동·청소년의 인권수준 연구V : 2010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자료집 -발달권·참여권- / 모상현·김영지
- 10-R11-2 국제기준 대비 한국아동·청소년의 인권수준 연구V : 발달권·참여권 정량지표 / 모상현·김영지·김윤나·이중섭
- 10-R12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종단연구 I / 양계민·김승경
- 10-R13 조기유학청소년의 적응 연구II : 귀국청소년을 중심으로 / 문경숙·이현숙
- 10-R13-1 조기유학청소년의 적응 연구II : 미국사례를 중심으로 / 임재훈·최윤정·안소연·윤소윤
- 10-R14 취약가정·시설의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종단연구 I / 이혜연·황진구·유성렬·이상균·정윤경
- 10-R15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가정 아동 지원 방안 연구 I : 청소년 멘토링활동을 중심으로 / 김경준·오해섭·김지연·정익중·정소연
- 10-R15-1 청소년 멘토링활동 운영 매뉴얼 / 김지연
- 10-R15-2 청소년 멘토링활동 효과 측정 / 김지연·정소연

협동연구과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2-01 장애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Ⅱ / 박영균·이상훈·양숙미 (자체번호 10-R16)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2-02 장애아동·청소년의 성문제 실태 및 대책연구 / 전영실·이승현·권수진·이현혜 (자체번호 10-R16-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2-03 장애아동·청소년의 가족지원 서비스 개선방안 연구 / 백은령·유영준·이명희·최복천 (자체번호 10-R16-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3-01 청소년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Ⅲ : 총괄보고서 / 김기현·장근영·조광수·박현준 (자체번호 10-R17)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3-02 청소년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Ⅲ : 지적도구활용 영역 / 최동선·최수정·이건남 (자체번호 10-R17-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3-03 청소년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Ⅲ : 사회적 상호작용 영역 / 김태준·이영민 (자체번호 10-R17-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3-04 청소년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Ⅲ : 자율적 행동 영역 / 김기현·장근영·조광수 (자체번호 10-R17-3)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3-05 청소년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Ⅲ : 학교연계 프로그램 시범사업 / 권해수·김민성·강영신 (자체번호 10-R17-4)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3-06 청소년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Ⅲ : 수련시설기반 프로그램 시범사업-사고력 / 임영식·조아미·정경은·정재천 (자체번호 10-R17-5)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3-07 청소년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Ⅲ : 수련시설기반 프로그램 시범사업-사회적 상호작용, 자율적 행동 / 권일남·김태균·김정율·김지수·김영희 (자체번호 10-R17-6)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1-01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Ⅰ : 총괄보고서 / 안선영·Hernan Cuervo·Johanna Wyn(자체번호 10-R18)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1-02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Ⅰ : 우리나라의 성인기 이행 실태 / 이병희·장지연·윤자영·성재민·안선영 (자체번호 10-R18-1)

수 시 과 제

- 10-R19 학교폭력 가해 청소년 선도를 위한 스포츠활동 적용 연구 : 총괄보고서 / 김남수·이기봉·박일혁
- 10-R19-1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스포츠활동」 지도 매뉴얼(중·고등학생용) / 김남수·이기봉·박일혁
- 10-R20 청소년지도자의 현장지도력 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연구 : 창의적 체험활동을 중심으로 / 한상철·길은배·김민·김진호·김혜원·문성호·박선영·설인자·오승근·윤은종·이명옥·이은경·최순종·김영지
- 10-R21 청소년쉼터 서비스 표준화를 위한 평가체계 연구 / 황진구·김성경·남미애·정경은
- 10-R22 학생 상담 및 생활지도 매뉴얼(교사용) / 구본용·박제일·이은경·문경숙
- 10-R23 취약계층 청소년의 실질적인 자립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학교중단 청소년의 취업 자립을 중심으로 / 서정아·권해수

수탁과제

- 10-R24 소년범죄자에 대한 전자감독 확대방안 / 이춘화·김정환·조운오
- 10-R25 2010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모델 개발 연구 / 양계민·김승경·조영희
- 10-R26 7~13세 아동·청소년을 위한 한국형 성취포상제 운영모형 개발 / 백혜정·장근영
- 10-R26-1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효과성 연구 : 패널조사계획 / 장근영·백혜정
- 10-R27 소년원생 재범방지를 위한 소년원 교육 효과성 및 개선방안 연구 / 안선영
- 10-R28 방과후 돌봄 서비스 실태조사 / 양계민·김지경·김승경
- 10-R29 비행청소년 자립능력개발을 위한 공공-민간협력 시범사업 / 김지연(2011년 발간)
- 10-R30 졸업식 유형별 사례집 : 졸업식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 맹영임
- 10-R31 보편적·통합적 청소년정책 수립 연구 / 김현철·최창욱·김지연·이춘화·오해섭
- 10-R32 청소년 권리증진을 위한 참여확대 방안 연구 / 최창욱·김승경
- 10-R33 학업중단현황 심층분석 및 맞춤형 대책 연구 / 윤철경·류방관·김선아
- 10-R34 2010년 청소년 백서 발간 / 김기현·김형주
- 10-R35 졸업식 및 입학식 개선을 위한 학교문화 선도학교 위탁운영사업 / 성윤숙·이창호
- 10-R36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 / 최인재·김지경·임희진(2011년 발간)
- 10-R37 2010 청소년 디지털 이용문화 실태조사 연구 / 문경숙·장근영
- 10-R38-1 외국의 청소년 활동프로그램 / 김경준·모상현·서정아
- 10-R38-2 우수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사례집 / 김경준·모상현·서정아(2011년 발간)
- 10-R38-3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컨설팅 및 평가사업 :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 / 김경준·모상현·서정아
- 10-R39-1 청소년 권리찾기로 청소년에게 행복을(청소년용 권리교재) / 김영지·이혜연
- 10-R39-2 청소년이 함께 행복한 세상(청소년용 핸드북) / 김영지·이혜연
- 10-R39-3 청소년지도자, 인권지킴이 되다(청소년지도자용 권리교재) / 김영지·이혜연
- 10-R40 2010 서울시 청소년프로그램 운영평가 / 이기봉·김형주(2011년 발간)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10-s01 2010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데이터분석방법론 세미나 I 자료집 (1/26)
- 10-s02 비행청소년 멘토링 시범사업의 성과와 발전방안 (3/9)
- 10-s03 2010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콜로키움 I 자료집 (3/19)
- 10-s04 제2차 연구성과 발표회 (4/15)
- 10-s05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학교생활 실태와 지원방안 (5/6)
- 10-s06 제1차 청소년미래포럼 (6/21)

- 10-s07 청소년수련원 평가모형의 시범적용을 위한 전문가워크숍 (6/29)
- 10-s08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개발현황과 개선과제·발달권·참여권 정량지표- (6/29)
- 10-s09 2010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콜로키움Ⅱ 자료집 (7/2)
- 10-s10 글로벌 시티즌십 함양 활동의 국제적 동향과 발전과제 (7/9)
- 10-s11 청소년멘토링 봉사활동의 세계적 동향과 전망 (7/8)
- 10-s12 2010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콜로키움Ⅲ 자료집 (7/27)
- 10-s13 한국의 다문화주의: 현황과 쟁점 (8/18)
- 10-s14 2010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데이터분석방법론 세미나Ⅱ 자료집 (8/19)
- 10-s15 학교문화선도 운영학교 워크숍 (8/24, 25)
- 10-s16 국제결혼가정의 생활 실태 및 정책 방안 (8/25)
- 10-s17 다문화관련 정책용어 개선과 제안을 위한 토론회 (8/26)
- 10-s18 청소년 또래멘토링 시범사업 평가 (8/27)
- 10-s19 청소년수련시설 유형별 자도자의 역량강화 및 복지개선 방안 (9/10)
- 10-s21 소년범죄자에 대한 전자감독 확대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 (9/29)
- 10-s22 청소년 체험활동 개념정립을 위한 세미나 (9/30)
- 10-s23 청소년의 멘토링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 마련 (9/28)
- 10-s24 장애아동·청소년의 성문제 실태 및 가족지원 서비스 (10/13)
- 10-s25 청소년 글로벌 시티즌십 프로그램의 성과와 발전방안 (10/8)
- 10-s26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연구Ⅰ 콜로키움 자료집 (10/8)
- 10-s27 2010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콜로키움Ⅳ 자료집 (10/14)
- 10-s28 청소년정책 모니터링단 토론회 (10/16)
- 10-s29 학업중단 청소년 유형별 현황 및 맞춤형 정책 개발 (10/19)
- 10-s30 미래시민으로서 청소년의 핵심역량 개발과 교육에 관한 국제회의 (10/26)
- 10-s31 디지털 유해매체환경에 대한 청소년수용자 중심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 (10/28)
- 10-s32 아동·청소년 인권정책개발을 위한 워크숍 -발달권·참여권- (11/5)
- 10-s33 정부부처 디지털 유해매체환경관련 청소년보호정책 현황과 대응방안 모색 워크숍 (11/5)
- 10-s34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정·보완(안) 공청회 (11/8)
- 10-s35 학교문화선도학교 우수사례 워크숍 (11/22, 23)

학 슬 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21권 제1호(통권 제56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1권 제2호(통권 제57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1권 제3호(통권 제58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1권 제4호(통권 제59호)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지도총서① 「청소년정책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② 「청소년수련활동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③ 「청소년지도방법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④ 「청소년문제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⑤ 「청소년교류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⑥ 「청소년환경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⑦ 「청소년심리학」,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⑧ 「청소년인권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⑨ 「청소년상담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⑩ 「청소년복지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⑪ 「청소년문화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⑫ 「청소년 프로그램개발 및 평가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⑬ 「청소년 자원봉사 및 동아리활동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⑭ 「청소년기관운영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⑮ 「청소년육성제도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연구방법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개론」,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1 「좋은교사와 제자의 만남」,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2 「행복한 십대 만들기 10가지」,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3 「집나간 아이들 - 독일 청소년 중심」,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4 「청소년학 용어집」, 교육과학사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I : 외국의 창의적 체험활동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II : 1부 일본의 「종합적학습」 가이드 “요코하마의 시간”
 2부 일본의 「청소년체험활동전국포럼」 보고서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III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스포츠활동」 지도 매뉴얼(중·고등학생용)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IV : 청소년지도자 전문성 교육 매뉴얼 : 생활권수련시설 지도자용 / 한상철·길은배·김민·
 김진호·김혜원·문성호·박선영·설인자·오승근·윤은종·이명옥·이은경·최순종·김영지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V : 청소년민주시민 교육 매뉴얼(중·고등학생용)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VI : 학교기반 지도매뉴얼 I : 핵심역량-창의적체험활동 연계 / 김기현·장근영·권해수·김민성·강영신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VII : 학교기반 지도매뉴얼 II : 핵심역량-교과(지리)수업연계 / 김기현·장근영·권해수·김민성·강영신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VIII : 청소년 수련관 기반 지도매뉴얼 I : 핵심역량-사고력 / 김기현·장근영·임영식·정경은·조아미·정재천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IX : 청소년 수련관 기반 지도매뉴얼 II : 핵심역량-사회성 / 김기현·장근영·권일남·김태균·김정율·김지수·김영희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X : 청소년 수련관 기반 지도매뉴얼 III : 핵심역량-자율적행동 / 김기현·장근영·권일남·김태균·김정율·김지수·김영희

기타 발간물

NYPI YOUTH REPORT 7호 : 청소년들의 핵심역량(4월)

NYPI YOUTH REPORT 8호 : 청소년들의 진로 및 직업(6월)

NYPI YOUTH REPORT 9호 : 청소년들의 활동 및 문화(8월)

NYPI YOUTH REPORT 10호 : 다문화가정 및 장애아동·청소년들의 역량강화(10월)

NYPI YOUTH REPORT 11호 : 멘토링과 청소년사회참여(11월호)

2009년 간행물

기관고유과제

- 09-R01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KYPS) Ⅶ : 1-6차년도 조사개요 보고서 / 이경상·안선영
- 09-R01-1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KYPS) Ⅶ : 생활긴장과 청소년 비행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 이경상·이순래
- 09-R01-2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KYPS) Ⅶ : 고등학교 졸업 후 진로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안선영·장원섭
- 09-R01-3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KYPS) Ⅶ : 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 기초연구 / 김지경·안선영·이계오·이미리·김성식·김명희·박일혁
- 09-R02 아동·청소년 정책평가모형 개발 연구 : 고객지향 평가모형을 중심으로 / 김형주·김영애·조선하
- 09-R03 비행청소년 멘토링 운영을 위한 다기관 협력체제 구축방안 연구 / 김지연·김성연
- 09-R03-1 비행청소년 멘토링 운영을 위한 다기관 협력체제 구축방안 연구 : 비행청소년 멘토링 운영지침 개발 / 김지연
- 09-R04 지역사회 아동·청소년인프라 활용방안 연구 : 학교와의 연계를 중심으로 / 최창욱·송병국·김혁진
- 09-R05 여성청소년의 인터넷성매매 실태와 대응방안 연구 / 성윤숙·박병식
- 09-R06 아동청소년안전실태와 대응방안 연구 : 물리적 위해를 중심으로 / 김영한·최은실
- 09-R07 위기가정 아동·청소년의 문제와 복지지원방안 연구 : 빈곤한 한부모·조손가정 아동·청소년을 중심으로 / 이해연·이용교·이향란
- 09-R08 청소년 가출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 연구 / 백혜정·방은령
- 09-R09 세대간 의식구조 비교를 통한 미래사회변동 전망Ⅱ / 이종원·김영인
- 09-R10 아동·청소년 비만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 임희진·박형란
- 09-R11 청소년의 게임중독 예방을 위한 가족단위 여가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 이기봉·설수영·원형중·설민신
- 09-R12 한국 청소년 지표조사Ⅳ : 청소년 진로·직업 지표 / 최인재·김봉환·황매향·허은영
- 09-R12-1 한국 청소년 지표조사Ⅳ : 아동·청소년 활동·문화 지표 / 임지연·김정주·김신영·김민
- 09-R13 국제기준 대비 한국아동청소년 인권수준 연구Ⅳ : 생존·보호권 인권실태조사 / 모상현·김희진
- 09-R13-1 국제기준 대비 한국아동청소년 인권수준 연구Ⅳ : 생존·보호권 정량지표 / 모상현·천정웅·신승배·이중섭
- 09-R14 미래 한국사회 다문화 역량강화를 위한 아동·청소년 중장기 정책방안 연구Ⅰ / 양계민·조혜영·이수정
- 09-R15-1 조기유학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발달과 정책방안 연구Ⅰ : 귀국 청소년의 정체성에 대한 질적 연구 / 문경숙·윤철경·임재훈
- 09-R15-2 조기유학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발달과 정책방안 연구Ⅰ : 청소년 조기유학의 결과와 정책방안 / 윤철경·문경숙·송민경
- 09-R16 아동·청소년 역량개발을 위한 능동적 복지정책 추진방안 : 총괄보고서 / 황진구·김진호·임성택·주동범

- 09-R16-1 아동·청소년 역량개발을 위한 능동적 복지정책 추진방안 : 저소득가정 아동·청소년의 역량개발 / 문성호·임영식·문호영·김남정·한지연
- 09-R16-2 아동·청소년 역량개발을 위한 능동적 복지정책 추진방안 : 장애아동·청소년의 역량개발 / 박영균·김동일·김성희
- 09-R16-3 아동·청소년 역량개발을 위한 능동적 복지정책 추진방안 :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학교 청소년의 역량개발 / 이민희·강병로
- 09-R16-4 아동·청소년 역량개발을 위한 능동적 복지정책 추진방안 : 범죄청소년의 자립지원 방안 / 최순종·윤옥경·조남익
- 09-R17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비한 청소년인재개발전략에 관한 국제학술회의 / 이창호·오해섭

협동연구과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1-01 장애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 I : 총괄보고서 / 박영균·박은혜·이상훈·최은영·Elmar Lange (자체번호 09-R18)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1-02 장애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 I : 장애아동·청소년 가족 지원방안 / 서정아·조흥식·김진우 (자체번호 09-R18-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1-03 장애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 I : 교수·학습활동 지원정책 / 박재국·정대영·황순영·김영미·김혜리 (자체번호 09-R18-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1-04 장애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 I : 장애아동·청소년의 심리사회, 정서, 신체적 발달 지원방안 / 현주·박현옥·이경숙·김민 (자체번호 09-R18-3)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1-05 장애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 I : 문화예술·체육 활동 지원방안 / 김종인·김원경·고정욱·오이표 (자체번호 09-R18-4)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1-06 장애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 I : 재활복지서비스 제고방안 / 권선진·이근매·조용태 (자체번호 09-R18-5)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2-01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 II : 총괄보고서 / 김기현·맹영임·장근영·구정화·강영배·조문흠 (자체번호 09-R19)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2-02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 II : 지적 도구 활용 영역 / 최동선·김나라·김성남 (자체번호 09-R19-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2-03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 II : 사회적 상호작용 영역 / 김태준·김남향 (자체번호 09-R19-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2-04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 II : 자율적 행동 영역 / 김기현·맹영임·장근영·구정화·강영배·조문흠 (자체번호 09-R19-3)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2-05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 II : 사고력 영역 / 조아미·김정희·설현수·정재천 (자체번호 09-R19-4)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2-06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 II : 총괄보고서 부록 / 김기현·맹영임·장근영·구정화·강영배·조문흠 (자체번호 09-R19-5)

수시과제

- 09-R20 경제 위기에서 빈곤 아동·청소년의 생활실태 / 모상현·김영지·김희진·정익중

- 09-R21 한국 청소년정책 20년사 : 한국 청소년정책의 성과와 전망 / 김광웅·이종원·천정웅·이용교·길은배·전명기·정효진
- 09-R22 청소년지도 전문인력 국가자격검정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한상철·서정아·길은배·김진호·김혜원·문성호·박철웅·방은령·송민경·송병국·오승근·유진이·조아미
- 09-R23 아동청소년 국가기초통계생성을 위한 기초 연구 / 김기현·홍세희·설현수·유성렬·정익중
- 09-R24 청소년쉼터 운영 모형개발을 위한 연구 / 백혜정·정익중·박현선·천창암·박현동
- 09-R25 녹색성장정책에 대한 청소년의 인지도 조사 / 김승경·김지경·성윤숙
- 09-R26 한·중·일 고교생의 학습환경 및 학업태도에 관한 국제비교조사 / 김진숙·임희진·김현철 (2010년 발간)
- 09-R27 서머타임제 시행에 따른 아동·청소년 생활시간 연구 / 김희진·진미정 (2010년 발간)
- 09-R28 교육봉사를 통한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정책 시범연구 / 모상현·김성희·박영숙·이명균 (2010년 발간)

수 탁 과 제

- 09-R29 2009 취약위기 아동청소년 보호자립 실태조사 / 이경상·임희진·안선영·김지연·강현철·김광혁·김기남·박창남
- 09-R30 2009 소외계층 아동·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만족도조사 / 백혜정
- 09-R31 2009년 아동보호전문기관 평가 결과보고서 / 김영지·성윤숙
- 09-R32 2009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조사연구 / 양계민·조혜영
- 09-R33 청소년 양성평등 의식조사 / 장근영·이종원
- 09-R34 대중매체를 통한 다문화사회 시민교육 활성화 방안 / 이창호
- 09-R35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 중장기발전방안 연구 / 오해섭·박진규·박정배
- 09-R36 2009년 지역아동센터 평가편람 개발연구 / 황진구·김미숙
- 09-R37 아동청소년의 생활패턴에 관한 국제비교연구 / 김기현·안선영·장상수·김미란·최동선
- 09-R38 통합 아동·청소년정책 추진전략연구 / 윤철경·박영균·성윤숙·문경숙·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등 30개 기관
- 09-R39 형사조정실수가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 개발 / 최창욱·박수선
- 09-R40 2009 아동·청소년백서 / 김기현·김지경·임희진
- 09-R41 열린장학금 효과성 및 발전방안 연구 / 최창욱·이기봉·최인재
- 09-R42 청소년관련학과 현장실습 교육과정 표준 매뉴얼 개발 / 맹영임·전명기
- 09-R43 2009 서울시 청소년 문화·수련활동 프로그램 운영평가 / 임지연·김형주 (2010년 발간)
- 09-R44 시립청소년수련관 운영체계 효율적 개선 방안 연구 / 김영한·이혜연·서정아·홍연균·유진이·김영호·김광남·황성수(2010년 발간)
- 09-R45 청소년 사이버멘토링 효과성 연구 / 조혜영·양계민 (2010년 발간)
- 09-R46 공공-민간협력 비행청소년 멘토링 시범사업 / 김지연 (2010년 발간)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09-s01 지역아동청소년권리센터 시범사업지원단 4차 워크숍 (1/21)
- 09-s02 경제위기가 아동과 청소년에게 주는 고통 (2/27)
- 09-s03 청소년 지도 인력의 전문성 강화 방안 (3/12)
- 09-s04 아동·청소년 권리지표 및 지수개발을 위한 워크숍 (4/11)
- 09-s05 녹색성장 강화와 글로벌 인재개발 전략 (4/16)
- 09-s06 독일의 장애아동·청소년 지원 정책 (5/25)
- 09-s07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비한 청소년 인재개발전략 (6/25)
- 09-s08 2009년 한국청소년패널 콜로키움 자료집 (7/8)
- 09-s09 비행청소년 멘토링 운영지침 및 운영체계 개발 (6/26)
- 09-s10 한국의 다문화주의와 아시안 아메리칸의 인종적 경험 (7/14)
- 09-s11 2009 서울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평가위원 워크숍 (7/20)
- 09-s12 아동청소년조기 유학 적응과 글로벌 역량개발 (7/21)
- 09-s13 아동청소년 생활 패턴과 역량강화 세미나 (7/22)
- 09-s14 선진국의 장애아동·청소년 지원정책 국제세미나 (8/28)
- 09-s15 2009년 한국청소년 패널 데이터 분석 방법론세미나 자료집 (8/26)
- 09-s16 다문화 청소년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8/25)
- 09-s17 청소년의 게임중독 예방을 위한 가족단위 여가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워크숍 (9/18)
- 09-s18 형사화해 조종실무가(조정위원)연수 자료집 (10/7)
- 09-s19 아동·청소년 활동문화 현황 과제 (10/15)
- 09-s20 한·일 청소년 연구포럼: 노동·교육 그리고 가족에 대한 한일 비교 (10/27)
- 09-s21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현황과 정책방향성 제고를 위한 전문가 워크숍 (10/29)
- 09-s22 한국 청소년 진로·직업 실태 및 향후 전망과 정책적 과제 (11/6)
- 09-s23 여성 청소년의 인터넷 성매매 방지를 위한 정책 방안 (11/10)
- 09-s24 2009년 한국청소년패널 제2차 콜로키움 자료집 (11/18)
- 09-s25 청소년 관련학과 현장실습 매뉴얼(안) 개발 및 효율성 제고 방안 (11/18)
- 09-s26 청소년 가출 예방 및 지원방향과 과제 (11/19)
- 09-s27 제6회 한국청소년패널 학술 대회 (11/27)
- 09-s28 2009년 한국청소년패널 제3차 콜로키움 자료집 (11/22)

학 술 지

「한국청소년연구」 제20권 제1호(통권 제52호)

「한국청소년연구」 제20권 제2호(통권 제53호)

「한국청소년연구」 제20권 제3호(통권 제54호)

「한국청소년연구」 제20권 제4호(통권 제55호)

청소년지도총서

- 청소년지도총서① 「청소년정책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② 「청소년수련활동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③ 「청소년지도방법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④ 「청소년문제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⑤ 「청소년교류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⑥ 「청소년환경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⑦ 「청소년심리학」,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⑧ 「청소년인권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⑨ 「청소년상담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⑩ 「청소년복지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⑪ 「청소년문화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⑫ 「청소년 프로그램개발 및 평가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⑬ 「청소년 자원봉사 및 동아리활동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⑭ 「청소년기관운영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⑮ 「청소년육성제도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연구방법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개론」,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1 「좋은교사와 제자의 만남」, 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2 「행복한 십대 만들기 10가지」, 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3 「집나간 아이들 - 독일 청소년 중심」, 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4 「청소년학 용어집」, 교육과학사

기타 발간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타 발간물 01 『자녀의 성공을 위해 부모가 함께 읽어야 할 73가지 이야기』 다솔

NYPI YOUTH REPORT 창간호 : 경제위기와 빈곤 (4월)

NYPI YOUTH REPORT 2호 : 다문화와 탈북청소년 (6월)

NYPI YOUTH REPORT 3호 : 글로벌 환경변화 청소년 (8월)

NYPI YOUTH REPORT 4호 : 글로벌 인재와 청소년 (10월)

NYPI YOUTH REPORT 5호 : 청소년 인권 (11월)

NYPI YOUTH REPORT 6호 : 청소년들의 정보이용 현황 (12월)

2008년 간행물

기관고유과제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 연구(KYPS) VI: 조사개요보고서 / 이경상 외
빈곤이 청소년 성장에 미치는 영향 / 이경상 외
청소년 고등학교 단계 진학 계열화의 관련요인 및 결과 / 이경상 외
초·중·고·대학생 의식구조 비교에 의한 미래사회변동 전망 : 세대관 및 교육·정보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 이창호 외
한국 청소년 발달지표 연구 III : 총괄보고서 / 최인재 외
2008 한국 청소년 발달지표 / 임지연 외
청소년종합통계체계 구축방안 연구 / 김형주 외
청소년의 지역사회 청소년시설 이용실태와 주체적 참여 방안 모색 연구 : 청소년문화의집을 중심으로 / 조혜영 외
청소년의 글로벌 역량강화 정책방안연구 : 글로벌 일자리와 관련하여 / 윤철경 외
청소년 성장환경으로서의 대안교육 활성화방안 연구 / 맹영임 외
사회통합을 위한 청소년 다문화교육 활성화방안 연구 / 양계민 외
청소년 성 의식 및 행동 실태와 대처방안 연구 / 백혜정 외
국제기준 대비 한국청소년의 인권수준 연구 III : 청소년인권실태의 국제비교 / 김영지 외
청소년인권실태의 국제비교 [통계표] / 김영지 외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복지정책 비교 및 발전방안 연구 / 이해연 외
소외계층 청소년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연구 / 김영한 외
청소년 정보화 현황과 대응방안 IV: 인터넷채팅에서의 청소년 인권침해 현황과 대응방안 / 이춘화 외
인터넷댓글에서의 청소년 인권침해 현황과 대응방안 / 성윤숙 외
북한이탈 청소년 종합대책연구 III / 김경준 외
정규학교 재학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진로탐색에 대한 질적연구 / 이수정 외
대안학교 재학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진로탐색 프로그램 개발연구 / 정병호 외

협동연구과제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국제비교 연구 III - 총괄보고서 / 문경숙 외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서 본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국제비교 / 문경숙 외
 교육·가족·청소년정책을 중심으로 / 김지연 외
 청소년생애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 I : 총괄보고서 / 김기현 외
 도구 활용에 관한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측정도구 개발 연구 / 최동선 외
 사회적 상호작용에 관한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측정도구 개발 연구 / 김태준 외
 자율적 행동에 관한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측정도구 개발 연구 / 김기현 외

수 시 과 제

신정부 청소년정책의 발전방향과 과제 / 윤철경 외
 청소년의 세대특성 및 세대간 소통방식에 대한 연구 / 배규한 외

수 탁 과 제

국립 영덕 청소년 환경센터 건립 기본계획수립 / 김영한 외
 청소년의 국가관·안보의식 함양을 위한 정책대안 연구 / 오해섭 외
 초등학생용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학생 교육·상담 프로그램 개발 / 최인재 외
 2008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조사연구 / 양계민
 2008년 제4회 청소년특별회의 의제연구 / 오성배 외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기금 위탁사업 평가연구 / 김기현
 아동청소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연구 / 김현철 외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모형 개발연구 : 학교 내 설치를 중심으로 / 조혜영 외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학교 안전지표 개발 / 성윤숙
 아동청소년정책통합에 따른 국립수련원의 사업개선방안 연구 / 안선영
 한강독섬공원 청소년원드서핑교육사업 평가 / 임지연
 다문화 가정 학생 교육지원을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 오성배 외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제도 변화에 따른 급수별 자격연수 교과과정 개발연구 / 이춘화 외
 2008 아동·청소년백서 발간 / 김기현 외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 / 임희진 외
 아동·청소년권리지수 개발연구 / 이해연 외
 2008년 지방행정기관 청소년 정책 평가에 관한 연구 / 성윤숙 외
 청소년 유해업소 구분기준 및 지역사회 유해환경 감소방안연구 / 김영한 외

2008 청소년지도사자격검정 / 김경준
 2008 서울시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평가 / 임지연 외
 2008 청소년시설종합평가 / 윤철경 외
 청소년글로벌 역량지표개발 및 활용방안연구 / 오해섭 외
 진로교육에 대한 교사 인식 조사 / 맹영임 외
 지역아동청소년권리센터 시범사업지원단 / 성윤숙 외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아동청소년정책 통합과 발전과제」(3.28)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의 대화」(5.6)
 「청소년의 사회적 역량강화 방안 모색」(5.27)
 「패널데이터 분석방법론 세미나 Ⅱ 자료집」(7.8)
 「채팅에서의 청소년 인권침해 관련 입법례 국제비교」(8.22)
 「청소년발달 지표의 현황과 과제」(9.2)
 「청소년기 사회화에 관한 한일비교」(9.16)
 「청소년 핵심역량 개발과 추진과제」(9.19)
 「청소년 성장환경으로서의 대안교육 활성화방안」(9.26)
 「청소년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9.30)
 「한국 청소년 발달지표 조사Ⅲ - 한국 청소년 문화자본 지표 개발」(9.26)
 「지역아동청소년 권리센터 시범사업지원단 1차 Workshop」(9.26)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환경 국제비교연구 I」(10.24)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환경 국제비교연구 II」(10.28)
 「청소년 인권신장 정책개발을 위한 워크숍」(10.17)
 「청소년 세대특성 및 미래의 교육전망」(10.17)
 「청소년문화의집 이용실태 및 방향성 모색」(10.14)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복지정책 발전 방안 모색」(10.17)
 「청소년의 인터넷 댓글 인권침해 현황과 대응방안」(10.17)
 「청소년 다문화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모색」(10.16)
 「제5회 한국청소년패널 학술대회」(11.18)
 「지역아동청소년 권리센터 시범사업지원단 2차 Workshop」(11.24)
 「아동·청소년 참여권 - 한·일 아동과 청소년의 참여권·아동과 청소년의 권리의식 실태」(11.28) 「지역아동청소년 권리센터 시범사업지원단 3차 Workshop」(12.22)

학 술 지

「한국청소년연구」제19권 1호 (통권 제48호) / 학술정보팀

「한국청소년연구」제19권 2호 (통권 제49호) / 학술정보팀

「한국청소년연구」제19권 3호 (통권 제50호) / 학술정보팀

「한국청소년연구」제19권 4호 (통권 제51호) / 학술정보팀

청소년지도총서

- 청소년지도총서① 「청소년정책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② 「청소년수련활동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③ 「청소년지도방법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④ 「청소년문제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⑤ 「청소년교류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⑥ 「청소년환경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⑦ 「청소년심리학」,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⑧ 「청소년인권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⑨ 「청소년상담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⑩ 「청소년복지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⑪ 「청소년문화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⑫ 「청소년 프로그램개발 및 평가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⑬ 「청소년 자원봉사 및 동아리활동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⑭ 「청소년기관운영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⑮ 「청소년육성제도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연구방법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개론」,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1 「좋은교사와 제자의 만남」, 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2 「행복한 십대 만들기 10가지」, 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3 「집나간 아이들 - 독일 청소년 중심」, 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4 「청소년학 용어집」, 교육과학사

기타 발간물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타 발간물 01 「자녀의 성공을 위해 부모가 함께 읽어야 할 73가지 이야기」, 다솔

2007년 간행물

기관고유과제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KYPS) V - 조사개요 보고서 / 이경상 외
청소년 비행의 발전형태에 관한 연구 / 이경상 외
청소년 아르바이트 참여실태의 변화와 특성 / 이경상 외
청소년 사교육 이용 실태 및 효과에 대한 분석 / 김기현
청소년 진로상황의 불확실성에 대한 보호요인 및 위험요인의 탐색 / 임희진 외
한국 청소년발달 지표조사 II : 청소년발달지표 종합부문 / 임지연 외
한국 청소년 발달 지표 조사 II : 청소년발달지표 결과부문 / 김신영 외
북한이탈 청소년 종합대책 연구II - 제3국 체류 북한이탈 청소년의 실태와 정책 과제 / 백혜정 외
뉴거버넌스를 통한 청소년행정체계 운영모형 정립 / 오해섭 외
국제기준대비 청소년 인권실태 조사연구II 청소년인권실태 및 정책방안 / 이종원 외
국제기준대비 청소년 인권실태 조사연구II - 청소년인권영역별 실태분석 / 이용교 외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연구 / 이춘화 외
신종청소년 유해환경 실태와 대책 - 신종·변종 청소년유해업소를 중심으로 / 김영한 외
청소년 정보화 현황과 대응방안 III : 청소년 디지털과소비 실태와 대책 / 성윤숙
청소년 정보화 현황과 대응방안 III : 청소년 디지털소비격차 실태와 대책 / 황진구 외
소수집단 청소년들의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조사개요보고서 / 이창호 외
청소년 우대제도의 국제적 동향과 개선방안 / 김경준 외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의 실태와 적응과정 연구 / 이해연 외

협동연구과제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국제비교 연구 II - 부모자녀관계, 교사학생관계, 또래 관계를 중심으로 / 김현철 외
질적 연구를 통해서 본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 국제비교 / 김현철 외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국제비교 : 면접조사자료집 / 김현철 외
변화하는 가족과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 국제비교 / 김현철 외

청소년기 사회화 담론의 근대적 기원과 그 영향 / 김현철 외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활용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방안 연구Ⅰ : 총괄보고서 / 조혜영 외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활용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방안 연구Ⅱ : 국내 체류 해외한민족 청소년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 조혜영 외
 북미의 한민족청소년 현황 및 생활실태연구 / 윤인진 외
 중국의 한민족청소년 현황 및 생활실태연구 / 김익기 외
 일본의 한민족청소년 현황 및 생활실태연구 / 김태기 외
 독립국가연합의 한민족청소년 현황과 생활실태연구 / 임영상 외
 해외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 활용 중장기대책방안 연구 / 강일규 외

수 시 과 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적 실태 및 사회적 프로그램 개발방안 / 정하성·우룡
 청소년수련시설관리운영 방안 / 권일남 외
 청소년육성기금 확충방안 / 원구환 외
 YP(청소년 스스로 지킴이)프로그램의 운영실태와 발전방안 연구 / 우형진 외
 특별지원청소년 세부 선정절차 및 지원방법 연구 / 김경준 외
 한류가 베트남 청소년의 문화의식에 미치는 영향 / 서동훈·박영균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상근지도자(PM·SM)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 / 김호순 외
 초등학교의 생활습관에 대한 국제비교 연구 / 김현철 외
 고교생의 생활의식 국제비교 연구 / 이종원 외
 고교생의 소비행동 및 소비의식에 관한 국제의식 연구 / 김현철 외

수 탁 과 제

청소년특별회의 운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오해섭 외
 청소년지도사 자격 필기시험 면제에 따른 제도 개선 연구 / 김영한 외
 2007년도 서울시립청소년수련관 시설·안전·프로그램 평가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연구 / 김신영 외
 2007년도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정책 평가에 관한 연구 / 성윤숙 외
 청소년 자율참여형 학교단체 수련활동의 운영모델 개발 / 임지연 외
 2030 청소년 희망세상 비전과 전략 / 김기현 외
 청소년희망세상비전 2030총괄분야연구 / 김기현 외

청소년 통계 혁신방안 / 이경상 외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생활 실태와 교사·학생의 수용성 연구 / 조혜영 외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유 프로그램 및 가해학생선도 프로그램 개발연구 / 최인재 외
 제4차 청소년기본계획 수립 연구 / 맹영임 외
 청소년 독서문화 활성화 종합대책 연구 / 황진구·김은정·백원근·허병두
 2007 방과후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조사 / 김은정·황진구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 규제순응도 조사 연구 / 김영한 외
 2007 청소년활동 참가실태 조사연구 / 이종원 외
 자연(생태)환경활동 영역의 학교교과를 연계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개발 연구 / 이경자 외
 2007 청소년백서 / 문경숙 외
 한국청소년의 행복지수 조사연구 / 김신영 외
 질적수급전망분석 / 김기현
 2007 서울시 청소년 건전활동 프로그램 운영평가 / 김현철 외
 2007 청소년육성기금공모사업평가 / 김현철 외
 2007 청소년쉼터시설종합평가 / 황진구 외
 2007 청소년수련시설종합평가 / 김경준 외
 한국 청소년의 가치관 조사연구 / 김신영 외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2008년도 고유연구과제 발굴·선정과 경영혁신 방향설정 워크숍」(1,23~24)
 「mInternation Conference on Changing Family Relationships & Socialization in Adolescence」(4,20)
 「청소년의 역사사랑 토론회」(5,12)
 「제주세계자연유산과 함께하는 청소년」(8,17~18)
 「청소년지도사 자격 필기시험 면제에 따른 전문성 함양 방안」(6,28)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방향과 과제(안)」(7,3)
 「패널데이터 분석방법론 세미나 자료집」(7,5)
 「청소년 우대제도 국내·외 사례 워크숍」(7,20)
 「다문화 청소년정책의 과제와 방향」(7,20)
 「일본 청소년의 사회화 과정 연구 포럼」(9,11)
 「청소년 인터넷중독 상담과 치료에 관한 국제심포지움」(9,13~14)
 「질적 연구를 통해서 본 청소년의 사회화 과정」(9,14)
 「뉴거버넌스를 통한 청소년행정체계 운영모형 정립」(9,14)

「한민족 청소년과 글로벌 네트워크」(10.30)
 「2007 고유과제 정책제안 검토 및 중장기 경영목표 수립을 위한 직원 워크숍」(11.1~2)
 「제4회 한국청소년패널 학술대회」(11.9)
 「질적연구를 통한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연구 세미나」(11.27)
 「한국과 미국 청소년의 사회화과정 연구 포럼」(11.29)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안)」(12.7)
 「한국의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담론 형성의 기원과 그 영향」(12.24)

학 술 지

「한국청소년연구」제18권 1호 (통권 제45호) / 연구정보지원팀
 「한국청소년연구」제18권 2호 (통권 제46호) / 연구정보지원팀
 「한국청소년연구」제18권 3호 (통권 제47호) / 연구정보지원팀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지도총서① 「청소년정책론」
 청소년지도총서② 「청소년수련활동론」
 청소년지도총서③ 「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지도총서④ 「청소년문제론」
 청소년지도총서⑤ 「청소년교류론」
 청소년지도총서⑥ 「청소년환경론」
 청소년지도총서⑦ 「청소년심리학」
 청소년지도총서⑧ 「청소년인권론」
 청소년지도총서⑨ 「청소년상담론」
 청소년지도총서⑩ 「청소년복지론」
 청소년지도총서⑪ 「청소년문화론」
 청소년지도총서⑫ 「청소년 프로그램개발 및 평가론」
 청소년지도총서⑬ 「청소년 자원봉사 및 동아리활동론」
 청소년지도총서⑭ 「청소년기관운영론」
 청소년지도총서⑮ 「청소년육성제도론」

기타 발간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타 발간물 01 「자녀의 성공을 위해 부모가 함께 읽어야 할 73가지 이야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직 명단 및 연락처

(2012년 1월 현재)

부 서		성 명	직급(직위)	전화(사무실)	이메일 주소
기획 조정 본부	기획조정본부	김기현	연구위원(본부장)	2188-8880	kihuns@nypi.re.kr
	연구기획·대외 협력팀	장근영	연구위원(팀장)	2188-8870	jjanga@nypi.re.kr
		이창호	연구위원	2188-8801	ifsc334@nypi.re.kr
	감사실	황진구	선임연구위원(감사관)	2188-8805	hwangjku@nypi.re.kr
활동·역량 연구실		조혜영	연구위원(실장)	2188-8813	jhy@nypi.re.kr
		김영한	선임연구위원	2188-8845	mindhill@nypi.re.kr
		맹영임	선임연구위원	2188-8814	yimaeng@nypi.re.kr
		윤철경	선임연구위원	2188-8804	chyoon@nypi.re.kr
		(황진구)	선임연구위원	2188-8805	hwangjku@nypi.re.kr
		김현철	연구위원	2188-8836	heram@nypi.re.kr
		최창욱	연구위원	2188-8807	ccwook@nypi.re.kr
		김지경	부연구위원	2188-8875	jkkim@nypi.re.kr
		김형주	부연구위원	2188-8843	andrea@nypi.re.kr
		이기봉	부연구위원	2188-8878	sunlgb@nypi.re.kr
		임지연	부연구위원	2188-8820	lly522@nypi.re.kr
보호·복지 연구실		양계민	부연구위원(실장)	2188-8831	yangkm@nypi.re.kr
		김경준	선임연구위원	2188-8832	jun@nypi.re.kr
		박영균	선임연구위원	2188-8824	ykpark@nypi.re.kr
		이유진	선임연구위원	2188-8835	spring@nypi.re.kr
		김영지	연구위원	2188-8846	yjkim@nypi.re.kr
		백혜정	연구위원	2188-8818	hbaek@nypi.re.kr
		오해섭	연구위원	2188-8841	ohs@nypi.re.kr
		이혜연	연구위원	2188-8834	hylee@nypi.re.kr
		최인재	연구위원	2188-8876	jae713@nypi.re.kr
		모상현	부연구위원	2188-8803	saarmo@nypi.re.kr
		김승경	부연구위원	2188-8893	skkim0822@nypi.re.kr
		김지연	부연구위원	2188-8868	okness@nypi.re.kr
통계·기초 연구실		이종원	선임연구위원(실장)	2188-8812	yiwon@nypi.re.kr
		성윤숙	연구위원	2188-8823	first1004@nypi.re.kr
		이경상	연구위원	2188-8825	LKS1428@nypi.re.kr
		(이창호)	연구위원	2188-8801	ifsc334@nypi.re.kr
		임희진	연구위원	2188-8886	hjlilim@nypi.re.kr
		김희진	부연구위원	2188-8830	heui529@nypi.re.kr
		박수억	부연구위원	2188-8837	suepark@nypi.re.kr
		서정아	부연구위원	2188-8828	jaseo@nypi.re.kr
		안선영	부연구위원	2188-8806	sxa182@nypi.re.kr

2011 고유과제 정책제안보고서

인 쇄 2012년 3월 30일

발 행 2012년 3월 30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발행인 이 재 연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주)문영사 전화 02)2263-5087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2) 2188-8844